

*The Hyowo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효원 영어영문학

| 2016. 2 | 제 34 호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효원영어영문학

제 34 호

2016. 2

목 차

영어의 양화사 인상에 관한 최소주의 접근	조 은 희 / 1
도상성과 부사의 위치	이 효 정 / 15
F2F 학습 환경과 CMC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진 토익 수업이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 세 리 / 35
『삶의 수행』에 나타난 호모사케르	이 민 아 / 53
Nostalgic Landscape toward an Ambiguous National Identity: Yeats's <i>The Celtic Twilight</i> and Baek Seok's <i>Deer</i>	
조라 닐 허스턴의 “The Gilded Six-Bits”에 나타나는 이중성	Kim, Dah / 65
박 명 훈 / 75	
선어말 어미 ‘-겠-’의 번역 양상 -화용적 의미 중심으로-	김 영 주 / 89
권력과 서법체계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 <관상> 영상 자막 번역)	김 연 주 / 111
영상번역에서 가창성이 노래 번역에 미치는 영향 -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김 세 현 / 135
201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153
201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154
2015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155

영어의 양화사 인상에 관한 최소주의 접근

조 은 희

1. 서 론

생성문법에서 양화사 작용역은 PF접합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표면에서의 비가시적인 이동으로 간주하고 May(1977)를 시작으로 양화사 인상에 관한 논의를 계속해왔다.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은 구조적 애매성(structural ambiguity) 즉, 작용역(scope)과 관련하여 중의성을 가질 수 있는데 지배 결속이론에 의하면 양화사 인상은 LF에서 양화사가 작용역 위치로 이동하여 상대적인 작용역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May(1977)는 양화사구는 비지시적 표현으로 의미역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비논항 위치로 인상되지 않으면 의미역 기준(theta-criterion)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되므로 양화사를 논항 위치로부터 비논항 위치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May(1985)에 따르면, 양화사구가 LF에서 비논항 최대 투사 범주인 IP나 VP에 부가되어 비논항 위치로 이동한다고 분석하였다.

최소주의에서는 형태론적 자질점검의 필요성 여부에 따라 이동이 이루어지므로 양화사 인상이라는 개념을 배제시키고 양화사 인상을 논항 이동의 단순한 부산물로 간주하였다. Hornstein(1995)는 양화사 인상 규칙을 설정하지 않고 최소주의 언어이론에 입각하여 격 점검을 위한 논항 이동 분석을 제시하고 Kitahara(1996)는 연쇄와 점검만으로 논항이동으로서의 양화사 인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Beghelli & Stowell(1997)은 자질 점검이 양화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다고 보고 역 작용역을 가지는 양화사와 역 작용이 없는 양화사들의 논항 이동을 통해 양화사 인상을 설명하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양화사로 인해 야기되는 중의성에 대해 살펴보고 양화사 인상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에 대해 개괄하고자 한다. 아울러 양화사 인상을 통사적 경제성과 작용역 경제성을 바탕으로 자질 점검을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2. 양화사 인상과 작용역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은 양화사의 작용역과 관련하여 중의적인 해석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중의성을 야기하는 것은 상대적 작용역 현상으로 인한 작용역 변경작용이 있다. 2장에서는 이러한 역 작용역(Inverse Scope)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를 예시로 양화사 인상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2.1. 양화사의 중의성

양화사를 포함한 문장은 양화사의 작용역과 관련하여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a. John loves every student.
- b. A professional loves every student.

(1a)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작용역 관계가 바뀌어도 ‘John은 모든 학생을 사랑한다.’라는 한 가지 해석이 가능한 반면, (2b)에서는 주어와 목적어의 작용역 관계가 바뀌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a가 every보다 더 큰 작용역을 가지면 ‘모든 학생을 사랑하는 교수 한명이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고 every가 a보다 더 큰 작용역을 가지면 ‘한명의 교수는 모든 학생들을 사랑한다.’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상대적 작용역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양화사 인상에 따라서 작용역의 변경작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May(1985)에 따르면, 양화사구의 양화사 인상은 의무적이고 Fox(1995) 또한 양화사 이동은 그것이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허가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Fox가 제안하는 작용역 경제성으로 Chomsky(2000,2001)에서 말하는 국면(phase)과 같은 표준적 국부성 제약과 함께 양화사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 (2) a. [CP Who do you think [CP *t*WH that [IP she might have been kissing *t*WH]]]?
- b. One girl said [CP that [IP John talked to every boy]]. * $\forall > \exists$

이는 양화사 인상이 국부적 이동의 연속적 단계를 거치는 wh-이동과는 다른 절 경계(finite clause boundary)에 의해 제약이 가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2a)는 정형절 경계가 wh-이동을 막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2b)는 역 작용역 해석이 불가능한 이유로 정형절 경계가 양화사 인상을 방해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내포된 CP의 지정어로 양화사가 인상되어 작용역 경제성을 만족하면서 새로운 작용역 해석이 만들어질 경우에만 절 경계를 뛰어넘는 양화사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b)에서는 vP로의 의무적인 양화사 인상이 이뤄진 후에 매입된 CP로의 선택적 양화사 인상이 비 작용적 보문소인 *that*을 건너뛰지 못하여 작용역 경제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중간 착륙점이 없이 주절 주어를 넘어서는 양화사인상은 국부성 제약(locality constraint)을 위반하고 따라서 작용역 경제성에 의해 (2b)와 같은 역 작용역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Rodman(1976)에 따르면 작용역 섬(scope island)효과도 양화사 인상을 방해하는 한 요인이 된다.

- (3) a. A doctor will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we give every new patient a tranquilizer. $*\forall > \exists$
 (cf. *Which patients will a doctor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we give t a tranquilizer?)
 b. A doctor should worry if we sedate every new patient. $*\forall > \exists$
 (cf. *Which patients should a doctor worry if we sedate t?)

따라서, 정형절 밖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하고 (4a)와 같은 영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내논항의 재정렬이 가능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양화사 인상을 wh-이동과 같은 비 논항 이동의 경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 (4) a. I gave a child each doll. ($a > \text{each}$, $*\text{each} > a$)
 b. I gave a doll to each child. ($a > \text{each}$, $\text{each} > a$)

다음은 통제구문과 인상구문으로 양화사 인상을 통한 작용역 중의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5) a. A different student persuaded Maryi [PRO_i to read each book on the reading list] $\exists > \forall, \forall > \exists$
 b. John_i seems to a different teacher [t_i to be likely [t_i to solve

- each of these problems]]. $\exists > \forall, * \forall > \exists$
 c. Someone_i seems to the teacher [t_i to be likely [t_i to solve
 every one of these problems]]. $\exists > \forall, \forall > \exists$

persuade, ask와 같은 술어를 가진 (5a)과 같은 부정사 보충어의 경우 매입된 목적어가 주절 주어 이상의 작용역을 가지는 작용역 변환 작용을 방해하지 않지만 (5b)에서와 같이 인상 부정사의 경우에는 양화사 인상에 제약을 받아 역 작용역 해석이 어려운 경우도 보인다. 역 작용역이 허용되는 (5c)는 전형적으로 논항 연쇄에 따른 주어의 작용역 재구조화(reconstruction)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이동된 어구가 이동전의 자리에서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주절주어가 논항 연쇄를 통해 재구조화하고 매입된 DP가 주절 주어의 기저 위치보다 더 상위 자리로 양화사 인상을 하면 역 작용역 해석을 얻을 수 있다.

2.2. 양화사 인상에 관한 분석

2.1 우위성(superiority)

양화사를 포함한 문맥에서 발견되는 현상인 선행사 포함 생략(ACD)구문은 양화사 인상 현상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8)에서 보듯이, 여격 구문의 두 번째 목적어에 ACD를 포함한 관계절 부착이 가능하다.

- (6) I gave Kai each doll Mary did.

이는 두 번째 목적어가 양화사 인상을 겪는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Sag(1976), Larson(1990)은 ACD의 양화사구는 생략된 VP의 선행사보다 큰 작용역을 갖기 위해 양화사 인상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9)에서 생략된 VP의 선행사는 **gave**에 의해 핵어화되는 주절 VP이다. 그러므로 관계절이 부착된 두 번째 목적어는 주절 VP밖의 자리로 양화사 인상이 이루어진다.

- (7) I gave Kai each doll Mary gave Kai t
 antecedent

그러나 (8)과 같은 구문에서는 두 번째 목적어의 양화사 인상이 이루어지는

ACD구문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목적어 이상의 작용역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보인다.

- (8) *Ozzy gave someone everything that Belinda did.*
 (some > every, *every > some)

이에 Bruening(1999)는 두 개의 목적어 모두 vp위로 양화사 인상을 한다고 제안하면서 (9)과 같은 도출은 가능하나 (10)는 역 작용역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제안한다.

- (9) *someone everything* [_{VP} *Ozzy gave* *t_{some} t_{every}*]
- (10) **everything someone* [_{VP} *Ozzy gave* *t_{some} t_{every}*]

VP내에 있는 모든 양화사는 Chomsky의 EPP자질과 같은 v의 지정어에 적절한 요소를 유인하는 자질 점검을 위해 vP로 이동한다. 최단거리 조건에 의해 someone이 인상된 후에 everything that Belinda did가 인상된다. someone이 everything that Belinda did보다 상위에 위치하므로 (8)과 같이 역 작용역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VP내의 두 개의 양화사 어순을 바꾸는 것은 우위성 효과에 의해 위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Stepanov & Stateva(2009)에서 양화사 인상은 우위성 효과와 관련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wh-이동과 관련하여 우위성 효과를 보이는 언어는 양화사 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우위성 효과를 보인다고 주장하고 Bruening(2001)도 Rudin(1988)이 제시한 불가리아 언어에서 wh구는 절의 왼쪽 주변부로 모두 이동해야 하지만 그것의 기저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양화사 인상과 우위성 효과와의 연관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11) Bulgarian (Rudin 1988:449)

- a. Koj_i kogo_j t_i vižda t_j?
 who whom sees
 'Who sees whom?'
- b. *Kogo_j koj_i t_i vižda t_j?
 whom who sees

2.2 목적어 이동(object shift)

Chomsky(1998)는 구 구조에 국면(phase)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국면은 LF층에서 이해되는 개념의 최소 단위로 CP, vP를 국면의 성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강한 국면(strong phase)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Fox and Pesetsky(2005)는 외논항을 배제한 동사구 투사 VP를 국면이라 하고 목적어 이동은 이 VP위의 위치로 좌향 이동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Drummond(2013)는 양화사 인상은 국면 가장자리(phase edge)자질을 통해 연속 순환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동이며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첫 번째 목적어와 두 번째 목적어 사이에 개입되는 국면의 경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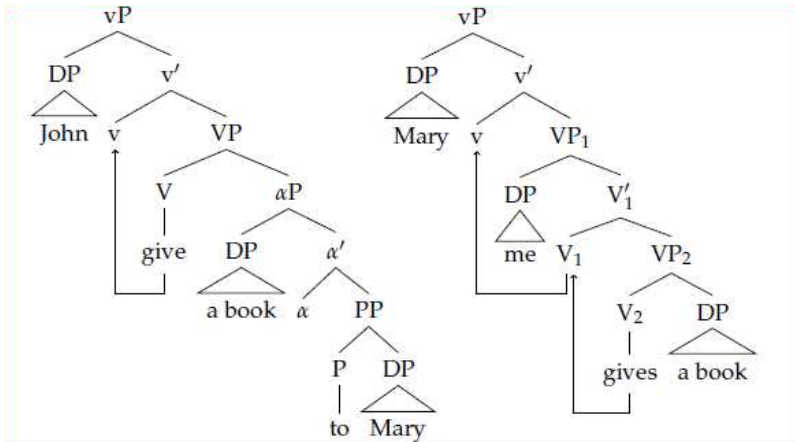
- (12) a. I gave every boy a book. * $\exists > \forall, \forall > \exists$
 b. I gave a book to every boy. $\exists > \forall, \forall > \exists$

작용역 동결(Scope Freezing)을 보여주는 (12a)와 같은 구문은 Bruening(2001)이 이중 목적어는 V의 핵어 이동을 통해 복잡한 술어의 형성을 촉발한다고 제안하면서 양화사 인상을 우위성으로 설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Drummond(2013)는 국면 확장(phase extension)개념과 연결하여 동사구 핵어 인상은 두 개의 목적어 사이에 개입하는 어떠한 국면 경계도 제거시킨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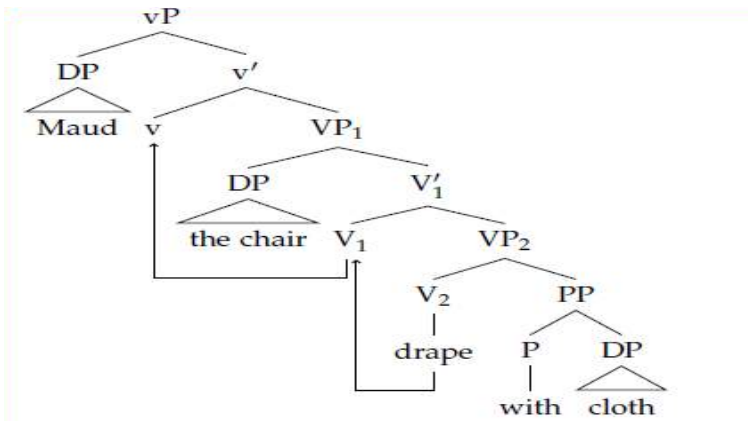
도 (13)–(15)는 Bruening이 제시한 이중타동사, 이중 목적어 그리고 *with* 변형을 가진 *spray/load* 동사의 구조이다. 만약 (13)에서 α 가 구 핵이라면 직접목적어와 간접 목적어는 동일한 최소 국면에 있지 않으므로 작용역 동결은 일어나지 않는다. (14)–(15)에서는 V1, V2가 구 핵어인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모든 동사구 핵어는 결국 *v*의 위치로 인상되므로 원래의 V1, V2는 국면이 될 수 없다.

(13) Ditransitive

(14) Double object



(15) Spray/load(*with* vari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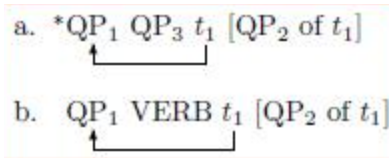


3. 양화사 인상과 경제성

3.1 Q-자질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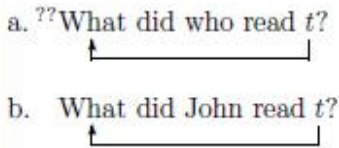
최소주의는 이동을 각각의 구조가 가지는 고유자질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고 역 의미를 허락하는 양화사 인상 또한 양화 자질이 이동의 유발자라고 본다. Larson(1990)는 (16a)에서 역 연결된 QP1은 주어 QP3위로 인상하지 못하고 (16b)는 역 연결된 QP1은 동사 이상의 작용역을 가지는 더 높은 위치로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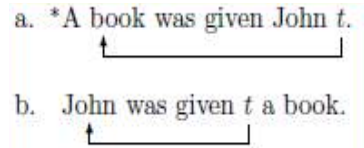


Rizzi(1990)의 상대적 최소성 효과(relativized minimality effect)를 보여주는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17a)는 wh구 what은 또 다른 wh구인who에 의해 방해받고 (17b)는 반대로 이동이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18a)에서 주어 위치로의 DP의 이동은 주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또 다른 DP가 개입되어 있어서 방해받지만 (18b)의 이동은 가능하다.

(17)



(18)



(16)에서 보이는 차이는 (17)-(18)에서 보여주는 차이와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양화사 인상은 또 다른 QP에 의해서 방해 받지만 동사 이상의 작용역을 가지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동의 촉발자가 자질(feature)이라

면 양화사 이동은 통사적 경제성(syntactic economy) 원리에 제약되고 이는 최소 유인과 최단 거리 이동을 기본으로 한다.

(19) a. Shortest Attract Condition

A requirement F' attracts the closest feature F that satisfies F' .

b. Shortest Move Condition

The overt movement of must be shortest, observing the Minimize Chain Links. (Chomsky 1995)

따라서 (19)를 근거로 한 상대적 최소성 효과의 설명은 이동은 이동항목을 가지는 자질의 유인과 관련이 있다. 즉 (17)에서 wh-이동은 wh-자질의 유인에 의존하고 (18)에서의 DP의 이동은 D-자질의 유인에 의존한다. 이를 양화사의 인상과 상대적 최소성 효과를 연관 지어 설명하면 양화사 인상은 자질 유인을 가지고 이러한 자질을 양화사 자질(quantificational feature), 즉 Q-자질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동은 자질 F의 점검에 의존하므로 (16a), (17a), (18a)는 자질 F를 가지는 또 다른 구가 사실상 이동하는 구 보다 이동의 착륙점에 더 가까이 있으므로 최소 유인 조건을 위반하고 (16b), (17b), (18b)는 이동의 착륙점과 이동하는 구 사이에 개입되는 관련된 자질 F를 가진 또 다른 구가 없으므로 최소 유인의 위반이 아니다. 또한 기저위치와 이동의 착륙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한이어야 하는 최단 거리 이동 조건도 만족하므로 이는 양화사인상이 통사적 경제성 조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20) Ozzy gave someone every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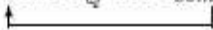
따라서 (20)과 같은 DOC구문에서 다중 QR이 vP의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을 고려해 볼 때 (21b)는 최단거리이동 조건 즉, someone의 Q-자질이 v의 Q'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everything보다 더 가까이 있으므로 everything의 이동은 최단 거리 조건을 위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출은 역 작용을 가질 수 있으나 막아져야 한다. 그러므로 DOC구문은 (22)와 같이 통사적 경제성 원칙을 충족하면서 첫 번째 목적어가 높은 위치로 양화사 인상을 했을 때만 두 번째 목적어의 양화사 인상이 가능하므로 역 작용역 해석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1)

- a. $v_{Q'} \dots$ someone everything
- b. *everything $v_{Q'} \dots$ someone $t_{everything}$

- c. everything someone $v_{Q'} \dots$ $t_{someone}$ $t_{everything}$


(22)

- a. $v_{Q'} \dots$ someone everything
- b. someone $v_{Q'} \dots$ $t_{someone}$ everything

- c. someone everything $v_{Q'} \dots$ $t_{someone}$ $t_{everything}$


3.2 배분 자질

Fox(1995)는 이동의 요인에는 형태론적 자질 점검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해석을 위한 이동도 존재한다는 주장으로 양화사 이동을 설명하였다. 작용역 경제성을 통해 양화사 인상을 논항 이동으로 보고 의미적 이동으로 간주하였다. 작용역 경제성이란 의미적 효과가 없으면 양화사 인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Chomsky(2001)에 따르면 자질 점검은 반드시 이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없더라도 일치라는 연산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양화사 인상은 배분을 시키는 요소의 [D]자질이 배분을 당하는 요소의 [D]자질과의 일치관계가 성립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아래에서 동사구 생략 구문의 작용역을 살펴보자.

(23) a. A boy admires every teacher. Mary does, too.

(A > every , *every > A)

b. A boy admires every teacher. A girl does, too.

(A > every , every > A)

(23a)에서 생략된 동사구를 복구시키면 Mary admires every teacher로 every teacher이 Mary위로 인상되어도 ‘어떤 한 소년이 모든 선생님을 존경하고

Mary도 모든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해석만 가능하므로 중의적 해석이 불가능하지만 (23b)는 every teacher의 인상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소년이 모든 선생님을 존경하고, 어떤 소녀도 역시 모든 선생님을 존경한다.’는 해석과 ‘모든 선생님에게 자기를 존경하는 어떤 소년이 각 각 있고 역시 모든 선생님을 존경하는 어떤 소녀가 각 각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very teacher의 인상으로 의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성 원리에 따라 양화사 인상이 허용되고 평행성 원리에 의해 상대적 작용역을 모두 취할 수 있으므로 중의적 해석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A girl과 every teacher과 같은 양화사는 변향으로 의미가 고정적이지 않다. (23b)에서 every > a와 같은 작용역을 가지면 every는 a에게 배분적 의미를 제공한다. 배분을 시켜주는 요소 every와 배분을 당하는 요소 a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치에 의해 자질을 점검받고 배분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양화사 인상이 발생하여 중의적인 해석이 나온다. (23a)의 Mary는 배분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일치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every > A에 해당하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4. 결 론

본 논문은 May(1977)을 시작으로 제안된 양화사 인상을 통해 양화사를 포함하는 문장은 양화사의 작용역과 관련해서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양한 양화사 인상 분석을 개괄하고 최소주의 언어분석을 기반으로 Q-자질과 배분 자질의 일치를 바탕으로 영어 양화사의 작용역 현상을 분석하였다.

먼저, 질 경계와 작용역 섬 효과로 양화사 인상의 제약들을 고찰해 보고 통제구문과 인상 구문을 통해 양화사 작용역을 살펴보았다. 또한 ACD구문을 통해 양화사 인상이 우위성과 관련이 있고 국면의 개념을 통해 목적어 이동으로서 양화사 인상을 분석하였다.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양화사구가 의미역을 받지 못하므로 논향에서 비논향으로 이동한 뒤에 작용역이 결정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반면, 이동을 각각의 구조가 가지는 고유자질 충족을 위한 것으로 보는 최소주의 관점에서는 역 의미를 허락하는 양화사 인상은 양화 자질이 이동의 유발자라고 본다. 양화사 인상은 자질 유인을 가지는데 이러한 자질을 양화사 자질(quantificational feature), 즉

Q-자질이라 하며 최소 유인과 최단거리 이동을 기본으로 하는 통사적 경제성 원리에 제약을 받는다. 또한 자질 점검은 이동이 없더라도 일치라는 연산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기반으로 양화사 인상은 배분을 시키는 요소의 [D]자질이 배분을 당하는 요소의 [D]자질과의 일치관계가 성립할 때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지배결속이론에서부터 최소주의 이론까지 양화사 인상을 분석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고 하나의 통합된 이론을 정립하기란 어려워 보이지만 경제성에 대한 도입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Beghelli, F. and T. Stowell. 1997. Distributivity and Negation: The Syntax of Each and Every. In Szabolcsi, A. (ed). *Ways of Scope Taking*, 71-109.
- Bruening, B. 1999. QR obeys superiority: Frozen scope and ACD. Manuscript, MIT.
- Bruening, B. 2001. QR obeys superiority: Frozen scope and ACD. *Linguistic Inquiry* 32, 233-273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y: the Framework.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Cambridge, Mass: MIT Press. 89-155.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rase. A Life in Language*. Cambridge, Mass: MIT Press. 1-52.
- Drummond, A. 2013. *Quantifier Scopepe in Single Output Syntax*. McGill University.
- Fox, D. 1995. Economy and Scope. *Natural Language Semantics* 3, 283-341.
- Fox, D. and D. Pesetsky. 2005. Cyclic linearization of syntactic structure. *Theoretical Linguistics* 31: 1-46
- Hornstein, N. 1995. *Logical Form: from GB to Minimalism*. Cambridge, Massachusetts: Basil Blackwell.
- Kitahara, H. 1996. Raising Quantifiers without Quantifier Raising. In *Minimal Ideas: Syntactic Studies in the Minimalist Framework*, ed. Werner Abraham, Samuel David Epstein, Hoskuldur Thrainsson, and D.

- Jan-Wouter Zwart, 189–198. Amsterdam: John Benjamin.
- Larson, R. 1990. Double objects revisited.: Reply to Kackendoff. *Linguistic Inquiry* 21. 589–632.
- May, R. 1977. The grammar of quantification. Ph.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May, R. 1985. *Logical Form: Is Structure and Deriv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Rizzi, L. 1990. *Relativized Minimality*. Cambridge: MIT Press.
- Stepanov, A. and P. Stateva. 2009. When QR Disobeys Superiority. *Linguistic Inquiry* 40, 176–185.

Abstract

Minimalist Approach to English Quantifier Raising

Cho, Eunhu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pproach of MP about Quantifier Raising phenomenon.

Starting with May(1977), there has been a long line of work attempting to study on quantifier scope. The sentences contained the quantifier can have structural ambiguity that is attributed to scope-shift operation. Furthermore, Clause Bounded constraint and scope island effect are associated with QR construction. Also, I examine QR subject to Superiority via ACD structure and QR as Object Shift via phase. In the MP theory, the basic assumption is that movement is triggered by Feature Checking Operation. Therefore, Minimalist program explains that quantifier having [Q]feature moves to check feature. Quantifiers also have [D]feature for agreement without movement.

Finally, existing proposals for QR have been successful, but a unified account still seems out of reach. It seems that many studies should be established in terms of different Economy mechanisms.

도상성과 부사의 위치

이 효 정

1. 서 론

영어에서는 수식어가 여러 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런 수식어가 배열 될 때,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a. They can share the *many wonderful* things.
b. She would *frequently* have *cleverly* avoided the theme.

(1a)의 예문에서 수량 형용사는 의견 형용사보다 앞서 나온다. 이와 비슷하게 예문 (1b)에서 빈도부사는 양태부사를 앞서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영어에서는 부사나 형용사가 중첩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기본적인 어순 역시 존재한다.

사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명사와 관련된다. 따라서 형용사와 명사와의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상대적 어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부사는 여러 요소와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형용사에 비해, 분석이 까다로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부사의 어순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부사 어순 결정 요인과 형용사 어순 결정 요인 사이의 연관성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형용사 어순을 결정하는데 적용되는 원리가 부사의 상대적 어순을 결정하는데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부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부사들의 일반적인 분포 양상을 설명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특히 동사와 관련된 부사와 주어와 관련된 부사를 나누어서 주어 중심의 부사의 경우에는 주어와 해당 부사와의 관계를, 동사와 관련된 부사의 경우에는 해당 부사와 동사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형용사에 적용되는 원리가 부사에도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형용사간의 어순과 관련된 도상성(iconicity)의 원리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다음으로는 이

원리를 부사의 어순 분석에도 적용하여 보고, 부사들의 상대적 어순 체계에 대한 기본 원리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도상성의 원리

도상성은 언어의 구조와 실제 사건의 구조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러한 도상성과 관련하여 도상적 순서(iconic sequence), 도상적 근접성(iconic proximity), 도상적 양(iconic quantity)의 개념이 존재한다.

우선, 언어의 순서와 관련하여 순서의 원리(sequencing principle)¹⁾에 대해 살펴보자. 이 원리는 Newmeyer(1992, 1998)가 주장하는 구조-담화(structure-discourse)의 도상성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자연적이고 연속적인 시간적 순서가 언어 구조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는 아래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a. He opened the cap and poured himself a cup
b. *He poured himself a cup and opened the cap.

- (3) a. He hopped onto the bike and rode out into the house.
b. *He rode out into the house and hopped onto the bike.

(2a)와 (3a) 문장에서 두 절의 순서는 자연적인 시간 사건 순서와 일치한다. 이에 비해, (2b)와 (3b) 문장은 자연적 순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게 느껴진다. 사실, 이러한 경우의 비문법성은 통사적 이론 보다는 의미적 관점에서 순서의 원리를 고려한다면, 비교적 쉽게 설명 가능하다.

Haiman(1983)에 따르면, 거리의 원리(distance principle)²⁾는 개념의 근접성

1) 순서의 원리는 Driven and Verspoor(1998: 8)에서는 일시적 사건들과 언어구조에서 요소들의 선행적 순서와 관련된다. Ungerer and Schmid(1997: 251)에서는 언어적 요소들의 순서와 사건 범주들의 순서 사이의 유사성과 관련된 시간적 순서로, Lakoff and Johnson(1980: 133)에서는 어떤 요소의 순서는 다른 요소보다 더 표준적인 경우가 있다는 표준성의 원리로, Vender(1968: 122)에서는 and 또는 or에 의해 단어가 결합될 때 더 짧은 요소가 먼저 온다는 단순 표음 규칙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2) 거리의 원리를 Driven and Verspoor(1998: 10)는 개념적으로 함께 속하는 것들은 언어적으로 함께하는 경향이 있다는 동일 범주의 개념과 연관이 있으며, Ungerer and Schmid(1997: 251)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소들은 함께 가까이 놓여야 한다는 도상 근접성으로

(proximity)이 형태의 근접성과 비례 관계에 있으며, 심리적으로 같이 속해 있는 요소는 통사적으로도 서로 가까이 위치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아래는 도상성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예문 중의 하나이다.

- (4) a. the *famous delicious Italian pepperoni* pizza
- b. *the *Italian delicious famous pepperoni* pizza
- c. *the *famous pepperoni delicious Italian* pizza
- d. *the *pepperoni delicious famous Italian* pizza

위의 예문 (4a)만이 문법적이며, 나머지는 어색한 표현이 된다. 그 까닭은 첫 번째 예문만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요소는 서로 가까이 놓아야 한다는 근접성의 원리를 따르기 때문이다. *pepperoni*는 피자의 고유한 성분이기 때문에, Pizza라는 명사 바로 앞에 놓아야 한다. 또 출처를 지시하는 *Italian*은 두 번째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는 반면, Pizza의 고유 속성과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delicious*라는 특징이나 *famous*라는 평가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이와 관련하여 Haiman(1994)에서는 언어적 요소 간의 언어적 거리(linguistic distance)와 개념적 거리(conceptual distance)를 나타내기 위해 아래와 같이 나타낸 바 있다.

- (5) a. Z (synthetic or lexical)
- b. X +Y (agglutinative or morphological)
- c. X #Y (analytic)
- d. X # A # Y (periphrastic)

위의 표시는 두 요소 X와 Y 사이의 언어적 거리는 (5a)에서 (5d)로 진행됨에 따라 멀어지게 된다. (5a)의 경우는 X와 Y가 융합되어 하나의 단일 요소가 된 경우이고, 반면 (5b)에서는 단일 요소를 형성하지만, 형태소적 경계가 존재하여 두 요소가 분리 가능한 경우를 나타낸다. 이 때, 보통 X와 Y 중 하나는 의존형태소(bound morpheme)로서 독립적인 단위를 형성할 수 없고, 다른 하나는 자

서, 또 이는 더 가까이 있는 요소가 더 강한 효과를 낸다는 인습적 은유에 관한 Lackoff and Johnson(1980: 128)의 설명과 연관된다. 또 Haiman (1983: 782)은 인간의 인지 작용의 개념적 거리는 언어에서의 거리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립형태소(free morpheme)로서 독립적인 단어를 이룬다. (5c)는 각각의 단어가 독립된 자립형태소로서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경우이고, (5d)는 이 자립형태소 X와 Y 사이에 또 다른 단어나 자립형태소가 존재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처럼, 도상성 원리는 언어 전반에 작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마지막으로, 양의 원리(quantity principle)³⁾는 언어 형태의 양과 그 의미의 양 사이에는 비례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Haiman(1985a: 147)에 의하면, 형태적 복잡성은 개념적 복잡성과 상응하는 것으로, 언어의 형태가 늘어나면 의미의 양도 늘어난다는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다음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 a. This guy is getting on my nerves.
 b. This aggressively impertinent egghead is getting on my nerves.
 (Givón 1990: 966)

위의 예문에서 두 문장에서 주어 명사구의 길이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이에 상응하여 수식받는 주어 사람을 기술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보의 양도 차이가 난다. 이러한 주장은 Lakoff and Johnson(1980: 127)의 양이 많으면 내용도 많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 따라서 양의 원리 역시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2.2. 도상성의 원리와 형용사의 어순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도상성의 원리가 형용사 어순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중첩될 때, 그 순서가 어느 정도 고정적이다. 형용사들의 분포를 살펴보면, 명사에 근접한 형용사일수록 명사와 개념적으로도 더 친밀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명사와의 개념적 거리의 차이에 따라 형용사의 표면적 위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학자들(Dixon 1982, Clark and Clark 1977)의 의견에 따라 정리한 형용사의 어순은 아래와 같다.

3) 양의 원리는 Driven and Verspoor(1998: 11)는 형태의 양과 의미에 관계가 있다는 설명으로, Ungerer Ungerer and Schmid(1997: 252)는 언어적 표현의 길이와 인지적 모형의 복잡성 사이의 관계에서의 예측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Lakoff and Johnson(1980: 127)은 형태와 내용 사이의 공간적 관계로, Givón(1990: 966)은 더 긴 언어적 표현이 더 많은 양의 개념적 정보를 반영한다는 설명과 Clark and Clark(1977: 523)은 사고의 복잡성은 표현의 복잡성에 반영된다는 경향과 관련된다.

- (7) 소유-지시-수량-의견-크기-나이-모양-색-기원-재료-목적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8) the *many wonderful* things

- (9) He was a *tall, good-looking* man.

- (10) a. *a clever little* baby dog.
 b. *a new young* man
 c. *a his old black* suit
 d. *a famous old Italian* doctor

- (11) a. *dark* tunnel
 b. *dark and devious* tunnel

(8)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다른 형용사와 함께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 다른 형용사들 보다 앞서 온다. 이는 앞에서 설명한 도상성의 원리 중에서 순서의 원리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9)에서와 같이 순수 형용사와 분사 형용사와 관련하여, 형태가 복잡한 것은 문미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형태가 단순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이다. (10a)에서, *little*이 명사와 가까이 위치하는데, 이는 크기를 나타내는 *little*이 의견, 모양, 나이 형용사에 비해 객관적인 요소이며, 다른 형용사에 비해 명사의 속성을 더 한정하기 때문에 명사 가까이에 놓인다. (10b)에서는 나이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명사 가까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화의 초점이 나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10c)에서는 모양이나 색 역시 객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명사 가까이 위치하며, (10d)에서는 기원, 유래, 출처 등은 사물을 가장 잘 식별해 줄 수 있는 형용사이므로 명사 가까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에서와 같이 명사를 수식할 때, 형용사 수가 증가 할수록 수식받는 명사의 의미가 강조되고, 명사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는 도상성의 양의 원리와 부합한다.

3. 도상성과 부사의 위치

외견상 부사는 도상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형용사와는 달리 부사가 다른 요인들과 다소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즉 부사어의 경우에는 그 중심이 되는 머리어가 하나 이상이거나, 중심어 자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사를 포괄적인 큰 틀에서 분석한다면, 부사가 기본적으로 도상성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부사인 양태부사나 주어관련 부사들을 중심으로 형용사의 도상성 원리가 부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3.1. 동사 앞에 오는 부사와 도상성

동사 관련 부사에는 대표적으로 양태부사가 있다. Ernst(1984)에 따르면, 이러한 양태부사는 단일한 어휘범주라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어휘 부류를 모아 모은 것으로, 대체로 순수 양태부사, 행위자지향부사, 완벽성정도부사, 수단·영역 부사⁴⁾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부사들의 위치와 도상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보통의 순수양태부사는 기본적으로 동사 가까이 위치한다. 이는 Frey and Pittner(1999)의 제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 양태 부사가 동사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진 동사이기 때문이다.

- (12) a. Bob (has) removed the cap *carefully*.
 b. He (has) stirred something *slowly* into the soup.
 c. He has eaten his lunch *quietly*.

위에서 the cap보다 *carefully*가 뒤에 오는 이유는 *carefully*보다 동사의 보충어인 the cap이 해당동사와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이는 도상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양태부사가 동사 뒤가 아니라 앞에 오는 경우 역시 존

4) 사건의 태도와 방식을 나타내는 양태부사는 순수양태부사이고 행위자와 연관된 양태부사는 행위자지향부사이며, 영역부사 중에서 양태부사에 속하는 부사는 수단영역부사이다. 또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중에서 양태부사에 속하는 부사는 완벽성정도부사이다.

제한다.

- (13) a. Bob (has) *carefully* removed the cap.
 b. He (has) *slowly* stirred something into the soup.
 c. He has *quietly* eaten his dinner.

이 때 동사 앞에 오는 양태부사는 단순히 동사의 양태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니라 의미상 주어와도 연관된다. 즉, 동사 뒤에 나타나는 양태부사는 그 방식을 나타내는 반면, 동사 앞에 나타나는 양태부사의 경우는 주어가 행위를 하는 방식과 관련된다. 이 역시 부사가 도상성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동사 앞과 뒤에 오는 양태부사가 모두 주어와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처리상으로는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다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다.

- (14) a. Bob removed the cap *carefully*.
 (= Bob removed the cap, being careful in doing so.)
 b. Bob *carefully* removed the cap.
 (= Bob removed the cap, being careful in doing so.)

(14a) *carefully*는 주어 Bob과 개념상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의미적으로 수식하는 요소인 부사와 수식받는 요소인 주어 사이에 또 다른 개념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Bob *carelessly* removed the cap *carefully*"의 의미로 해석 될 때의 *carelessly*라는 다른 개념이 문장 해석에서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는 *carelessly*라는 또 다른 개념이 의미해석에 참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 괄호 안의 내용으로 바꾸어 말할 수 없다. 이에 비해, (14b)의 *carefully* 경우처럼 동사 뒤에 오는 경우는 *if* 문장으로 바뀌 쓰기가 가능하다. 이는 (14a)에서는 또 다른 개념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중심어 주어와의 거리가 멀지만, (14b)에서는 주어와의 의미적 연관 관계만을 가지고서만 판단하기 때문에 주어와 가까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역시 도상성의 원리를 준수한다는 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완벽성정도부사와 수단·영역부사⁵⁾를 살펴보자. 이들 부사는 기본적인

5) Ernst(2002)에 따르면, beautifully, horribly, perfectly, poorly와 같은 부사가 주어진 행위를

으로 순수 양태부사와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문이 존재한다.

- (15) a. Collins (**beautifully*) conducted the performance *beautifully*.
b. They (**perfectly*) made the movie *perfectly*.

- (16) a. We must (**surgically*) obtain the brain tissue *surgically*.
b. One of the men (**manually*) worked *manually*.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부사는 순수양태부사와는 달리, 동사 앞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를 도상성의 원리와 관련하여 생각해보면, 위의 부사들은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 주어와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위와 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즉, 완벽성정도부사는 행위를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와의 관련성이 적고, 수단·영역부사는 행위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주어와의 관련성이 적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부사들은 대체로 동사 뒤에만 위치한다.

3.2. 동사 뒤에 오는 부사와 도상성

행위자지향부사⁶⁾는 주어와 관련된 부사이다. 특히 논항구조에 행위자가 있을 때 허용되는 부사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17) Joe was *reluctantly* examined by the doctor.

위에서 부사 *reluctantly*는 Joe이나 the doctor를 모두 수식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주저하는 사람이 Joe이거나 the doctor일 수 있다. 이는 보통 행위자지향부사에 한해서는 표면적 주어와 의미상 주어가 모두 중심어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수동 구문에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얼마나 완벽하게 수행되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완벽성정도 부사라고 하며, 수단·영역 부사는 surgically, telepathically, manually, electronically와 같은 부사들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의 수단을 표시한다.

6) 이러한 행위자 지향 부사에는 reluctantly, intentionally, deliberately, willingly, obediently와 같은 부사들이 있다.

- (18) a. Joe *reluctantly* was examined by the doctor.
 b. Joe has *reluctantly* been examined by the doctor.
 c. Joe could have *reluctantly* been examined by the doctor.
 d. *Reluctantly*; Joe was examined by the doctor.

- (19) a. Joe was examined *reluctantly* by the doctor.
 b. Joe has been examined *reluctantly* by the doctor.
 c. Joe could have been examined *reluctantly* by the doctor.

(18)에서처럼 행위자지향부사가 수동 분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의 부사들은 표면적 주어인 Joe하고만 관계가 있다. 반면, (19)에서는 행위자지향부사가 수동 분사 뒤에 오게 되는데, 이는 뒤의 부사는 의미상 주어인 the doctor와 개념적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사가 동사 앞에 위치하여 Joe과 가까운 경우에는 Joe이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상황을 나타내는 반면, 부사가 동사 뒤에 위치하여 the doctor와 가까운 경우는 의사가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즉, 이 역시 도상성 거리의 원리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ower(1993)에 따르면, 능동 구문에서는 동사 뒤에만 위치하는 완벽성 정도부사와 수단·영역부사 역시 수동 구문에서는 동사 뒤에 올 수 있다.

- (20) a. The performance was (*beautifully*) conducted *beautifully*.
 b. The movie has been (*perfectly*) made *perfectly*.
 (21) a. It had to be removed *surgically*.
 b. The work is done *manually*.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완벽성정도부사와 수단·영역부사는 술어, 즉 행위의 완벽성 정도나 수단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주어와의 의미적, 개념적 연관성이 약하기 때문에, 대체로 주어 가까이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20)이나 (21)의 수동 구문에서와 같이, 주어가 초점이 되는 문장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부사가 대체로 동사 앞에 나올 수 있다. 이는 문장 전체에 작용하는 주어의 개념적 중요도⁷⁾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이 부사들에 대한 주어의 영

7) 이를 Langacker(1987)의 초점 조절(focal adjustment)과 연관된다. 초점 조절의 원근법에서 화행 상황에서의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개념은 직시(deixis)인데, 이는 화자의 초점과 주의

항력이 커졌기 때문에 그 개념적 거리도 가까워졌을 것이며 이 때문에 동사 앞, 즉, 주어 가까이 위치할 수 있게 된다.

3.3. 동사 앞에 오는 부사

그런데 영어의 어순을 살펴보면 부사가 거리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문이 있다.

- (22) a. They proved *scientifically* [the fact that the earth is round].
 b. She promised *tomorrow* [that she would read the book].
 c. John I love *very much*.
 d. I am fond *a lot* [of the book that I read last year].

위에서 부가어가 보충어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도상성의 원리를 위배하지 않는다. 이는 순서의 원리로 설명가능한데, 개념적으로 복잡한 요소는 대체로 뒤에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길거나 복잡한 것은 문미에 둔다는 문미초점의 원리(principle of end weight)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또한 Leech and Svartvik(1975)에 따르면, 초점의 유형은 일상적인 발화에서 화자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문미에 배치하고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고 덜 중요한 정보를 배치하는 문미 초점(end focus)과 대조 강세를 부과함으로써 문장의 어느 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조적 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분류된다. 대체적으로 영어에서는 낮은 정보에서 높은 정보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전개⁸⁾된다.

또한 양의 원리는 사고의 복잡성이 표현의 복잡성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로 형태적으로 복잡한 표현은 개념적으로도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 원리를 거리의 원

에 따라 문장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i) Then John hit his brother.

(ii) The Bill was hit by John/his brother.

Kuno와 Kaburaki(1977)의 직시 중 감정이입(empathy)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i)의 문장에서보다 (ii)에서 화자는 주어에 좀 더 감정이입이 된 구문이다. 즉 수동 구문에서는 화자의 초점이 주어로 향하게 된다.

8) 이는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념이다.

(i) Something put it into his mind that she was a spy.

(ii) *Something put that she was a spy into his mind

위의 문미초점의 원리를 거리의 원리에 적용하면, 개념적으로 가까운 것을 가까이 위치는 되지만, 개념적으로 복잡하면 문미에 위치시켜야 할 것이다.

리와 함께 고려한다면, 개념적으로 복잡하면 뒤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사실이 부사의 어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아래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3) a. *Now*, the one thing a night haulier never does is leave his wagon.
 b. It was *now* a lustrous brown, even russet.
 c. It was my turn to smile *now*.
- (24) a. *Right now*, I know how to solve these problems.
 b. *It was *right now* a russet.
 c. I really like you *right now*.

문장 중간에도 나타나는 부사 *now*가 *right*와 병합하여 구조가 복잡해진 경우는 문두 또는 문미에만 나타난다. 이는 부사가 수식에 의해 그 형태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며, 양의 원리에 따르면, 개념적으로도 복잡해진 것이다. 따라서 개념적으로 복잡해진 시간부사가 문미에 온다는 사실 역시 도상성의 순서, 양, 거리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복잡한 구조의 부사구 외에도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시간부사는 복잡한 통사구조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Larson(1985, 1987)은 *today*, *that day*, *next year* 등의 시간 부사를 공백 명사구 부사(Bare NP adverbs)로 제한적인 분류로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부사는 의미적으로도 부사적 용법으로 한정되는 *-ly* 부사에 비해 매우 무거운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 부사 역시 아래와 같이 문미에 출현한다.

- (25) a. John bought a car *yesterday*.
 b. John was altruistic *yesterday*.

이와 같이, 부사로서의 개념외의 의미를 가진 부사는 복잡한 개념으로 대체로 문장 뒤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을 양태부사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양태부사의 경우 동사 앞과 뒤에 나타날 수 있었는데 반드시 동사 뒤에 나타나야하는 양태부사들이 있다.

- (26) a. He (**well*) works *well* with traditional elements
 b. He (**slow*) drove *slow*.
 c. She (**hard*) worked *hard* at school.
 d. Handel did (**fast*) compose *fast*.

위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hard*, *well*, *quick* 등의 부사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부사는 부사로서의 개념 외에도 명사, 형용사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가능하다는 공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된 복잡한 시간부사들인 *yesterday*, *today*, *that day*, *next year*와 같이, 의미적 복잡성을 지닌다는 뜻이다. 이러한 의미적인 복잡성과 처리의 복잡성 때문에 *hard*, *well* 등의 양태부사 역시 문미에 위치하게 된다.

3.4. 부사의 상대적 어순과 도상성

Haumann(2007)에 의하면, 아래 예문에서 행위자지향부사는 순수양태부사, 완벽성정도부사, 수단·영역부사들보다 앞에 와야 한다.

- (27) a. The play has been *hesitantly* performed *loudly*.
 b. *The play has been *loudly* performed *hesitantly*.
 (28) a. The play has been *deliberately* written *poorly*.
 b. *The play has been *poorly* written *deliberately*.

행위자지향부사는 주어와 관련된 부사였다. 위의 예문 (28b)과 (29b)에서 행위자지향부사 *hesitantly*, *deliberately*와 행위자간의 개념적 거리가 *loudly*, *poorly*로 인해 멀어졌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이 역시 도상성의 원리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수단·영역부사, 순수양태부사, 완벽성정도부사는 의미상으로도 상대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서로 동시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 (29) a. I sent the mail was *secretly* to everybody *electronically*.
 b. The mail was *secretly* sent to everybody *electronically*.
 c. *I sent the message *electronically* to everybody *secretly*.

d. *The message was *electronically* sent to everybody *secretly*.

- (30) a. They adjusted themselves *perfectly* to the new conditions *surgically*.
 b. They have been *perfectly* adjusted to the new conditions *surgically*.
 c. *They adjusted themselves *surgically* to the new conditions *perfectly*.
 d. *They have been *surgically* adjusted to their new conditions *perfectly*.

이 때, 수단·영역부사는 양태부사나 완벽성정도부사 뒤에 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순수양태부사와 완벽성정도부사는 함께 나타날 수 없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 (31) a. *They presented the facts *poorly* to audience *loudly*.
 b. *They presented the facts *loudly* to audience *poorly*.
 (32) a. Here she sings *beautifully in a slow manner* in another strange language.
 b. Much time is devoted to fleshing out the characters *poorly in a silly ma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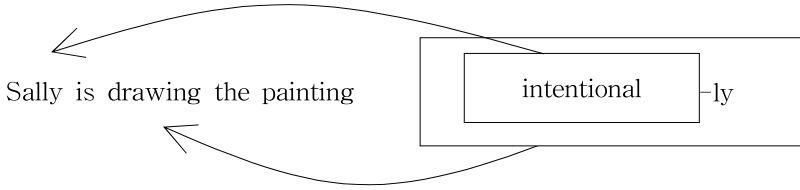
(31)에서는 양태부사와 완벽성정도부사가 같이 나와서 비문이 된다. 그러나 (32)와 같이 양태부사가 무거운 형태일 때는 두 부사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는 양태부사가 구조상 복잡해져 양의 원리에 따라 문미에 위치한다.

이를 바탕으로, 부사가 중첩될 때의 상대적 어순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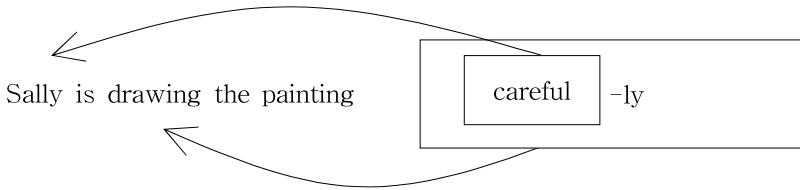
- (33) 행위자 지향 부사 > 양태부사, 완벽성 부사 > 수단·영역 부사 > 복잡한 부사구

이러한 어순을 결정하는 원리를 설명하는데 앞서, 이러한 부사의 의미적 관계를 우선 파악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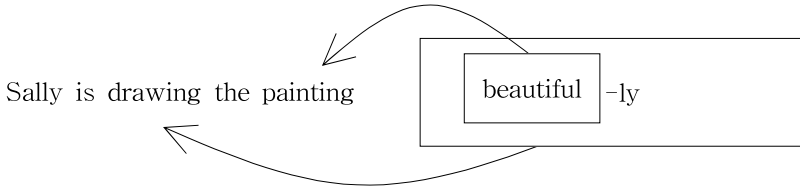
(34)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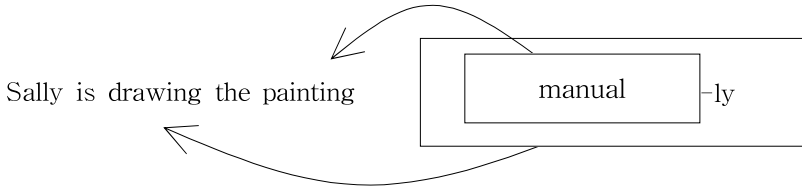
b.



c.



d.



(34a)에서 부사는 술어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Sally가 의도적이라고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내포된다. (34b) 역시 Sally가 조심스러운 태도라는 의미가 내

포된다. 반면, (33c)에서는 술어뿐 아니라, the painting이 아름다운 형태임을 내포할 수 있고, (33d)에서 역시 the painting이 손으로 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33a, b)에서의 행위자지향부사, 순수양태부사는 주어와의 개념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33 c, d)에서의 완벽성정도부사와 수단·영역부사는 개념적으로 보충어인 목적어와도 연관되어 있다. 즉, 행위자지향주어는 앞에 위치한 주어와 개념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앞서 출현하고, 수단·영역부사는 뒤에 위치한 목적어와도 개념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행위자지향부사나, 순수양태부사보다 뒤에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도상성 원리를 기반으로 한 설명인데, 이는 앞서 정리한 (33)에서의 부사들의 상대적 어순 역시 반영한다.

또한 동사구 내에서의 부가어가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역시 거리의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아래는 Quirk et al.(1985: 650)의 예이다.

- (35) a. Kenny ate [noisily] [in the kitchen] [at noon].
b. John worked [hard] [at home] [that night].

거리의 관점에서, 동사 다음으로 오는 요소가 동사와 개념적으로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양태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동사와 개념적으로 가장 가깝고, 장소를 나타내는 부가어가 시간을 나타내는 부가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사와 개념적으로 더 가깝다. 동사구 내부에 있는 다중 부가어의 순서도 부가어와 동사 사이의 개념적, 의미적 근접성을 반영하고 있어 거리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이 두 부사가 의미적으로 하나의 단위처럼 함께 쓰이는 부사구의 경우 순서의 원리가 적용된다.

- (36) a. now and then
b. sooner or later
c. today and tomorrow
d. now and then
e. more or less
f. for good or ill

개념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이 먼저 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역시 도상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특히 more or less에서 more가 먼저 온다는 도상성의 원리는 Cruse and Togia(1995)의 우위(supra)와 하위(sub)의 개념과도 연관되어있다. 이는 개념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 언어적 표현에서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도상성의 원리가 부사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도상성 원리의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존의 형용사 연구를 간단히 정리하였다. 또한 이러한 선행연구의 설명을 기반으로 부사의 어순에 대해 도상성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특히, 부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부사인 양태부사와 시간부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부사의 어순은 도상성의 원리 중에서도 대부분 거리의 원리를 준수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부사는 대체적으로 동사 뒤에 나타나고, 주어를 중심으로 하는 행위자지향부사는 주어 뒤,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의미와 관련하여 보면, 이는 도상성 원리를 준수한다.

둘째, 같은 행위자지향부사도 수동 구문에서 표면상 주어와 의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는 앞에 나타나고, 표면상 주어가 아닌 의미상 주어와 개념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동사 뒤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역시 도상성 원리와 연관이 있다.

셋째, 수동 구문에서 주어의 중요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능동 구문에서 동사 뒤에만 위치하던 부사들이 동사 앞, 주어 가까이로 위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넷째, 형태적으로 복잡한 부사구나 여러 의미를 가진, 개념적으로 복잡한 *yesterday, well* 등의 부사들은 대체로 문미에 온다. 이는 순서의 원리, 양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다섯째, 부사가 중첩이 되는 경우, 부사는 행위자지향부사 > 양태부사/완벽성 정도부사 > 수단·영역부사 > 복잡한 부사구 순으로 나타나는데, 의미 관계 도식에서 확인하였듯이, 행위자지향부사와 순수양태부사는 동사 외에도 주어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 다른 부사에 비해 대체적으로 앞에 나타나고, 완벽성 정도부사와 수단·영역부사는 목적어와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뒤에 나타난다.

여섯째, 다중 부가어, 두 부사가 복합된 부사구도 도상성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대체로 부사 중에서 양태부사와 시간부사에 치중하여 설명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우선, 순수양태부사와 완벽성정도부사가 함께 나오지 않는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같은 자리에서 생성되었다고 가정하는 통사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대체로 두 종류의 부사가 왜 나란히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도상성의 원리는 대체적인 어순에 대한 윤곽을 제공하고, 간단한 개념으로 많은 설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세부적인 언어 현상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Works Cited

- Bowers, J. 1993. The Syntax of Predication. *Linguistic Inquiry* 24, 591-656.
- Clark, H. and E. Clark.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tcourt.
- Cruse, D., A. and P. Togia. 1995. Towards a Cognitive Model of Antonymy. *Lexicology* 1, 113-141.
- Driven, R. and M. Verspoor. 199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Dixon, R. 1982. *Where Have all the Adjectives Gone?* Amsterdam: Mountain.
- Ernst, T. 1984.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of Adverb Position in English*.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loomington.
- Ernst, T. 200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y, W. and K. Pittner. 1999. Sdverbialpositionen im Deutsh-englischen Verglerich. In M. Dohertu (ed.), *Sprachspezifische Aspekte der Informationsverteilung*. Brtlin: Akadimie Verlag. 14-40.
- Givon, T. 1990, *Syntax: A Functional-Typological Introduction*, Amsterdam: Benjamins.
- Haiman, J. 1983. Iconic and Economic Motivation. *Language* 59, 791-819

- Haiman, J. 1985a. *Iconicity in Syntax*. Amsterdam: John Benjamins.
- Haiman, J. 1994. Iconicity. In Asher, R and J. Simpson (eds.), *The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Oxford: Pergamon Press. 1629-1622.
- Haumann, D. 2007. *Adverbs Licensing and Clause Structure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 Kuno, S and E. Kaburaki. 1977. Empathy and Syntax. *Linguistic Inquiry* 8, 627-672.
- Lakoff, G. and M.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ngacker, R.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1: Theoretical Prerequisites.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 Larson, R. 1985. Bare-NP Adverbs. *Linguistic Inquiry* 16, 595-62.
- Larson, R. 1987. Missing Prepositions and the Analysis of English Free Relative Clauses. *Linguistic Inquiry* 18. 239-266.
- Leech, G. and J. Svartvik 1975. *A Communicative Grammar of English*. London: Longman.
- Newmeyer, F. 1992. Iconicity and Generative Grammar. *Language* 68, 756-795.
- Newmeyer, F. 1998. *Language Form and Language Fun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Quirk, R., S. Greenbaum, G.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Ungerer, F and H. Schmid. 1997.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London: Longman.
- Vendler, Z. 1968. *Adjectives and Nominalizations*. Walter De Gruyter Inc.

Abstract

Iconicity in Ordering of English Adverbs

Lee, Hyo-jung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explanations for the distribution of English adverbs in the perspective of cognitive grammar. This paper introduces some backgrounds such as the main idea of Newmeyer's (1992, 1998) structure-concept iconicity and that of Haiman's (1983, 1985, 1994) distance principle. In order to account for the distribution of adverbs, I focus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linguistic distance and the conceptual distance, that is, the closer an adverb is to its head conceptually, the closer it appears to its head linguistically. At the end, the paper demonstrates that the ordering of the multiple adverbs also observes the distance principle. Therefore, I suggest that the framework of adverb distribution is within the locus of iconicity theory which governs the ordering of the elements. However, given the limitations of the approach, it needs to be supported with additional future studies.

Key Words

iconicity, distance principle, linguistic distance, adverb ordering, adjunct stacking

F2F 학습 환경과 CMC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진 토익 수업이 영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박 세 리

1. 서 론

시대가 바뀔에 따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더불어 우리 생활의 질도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의식주만큼이나 밀접한 것이 교육이다. 이는 우리의 삶이 배우는 연속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학습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이나 학습 환경에 있어서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 중 하나의 변화가 컴퓨터를 사용한 것이다. Susan C. Herring(1996)은 CMC(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컴퓨터-매개 의사소통)를 제안했는데, 이것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람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다. 교육에서는 컴퓨터 바탕의 학습 환경으로 이는 기존에 학습자들을 교육하는 방법인 F2F(Face-to-Face), 즉 면대면 바탕의 학습 환경과는 달리 컴퓨터를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좀 더 나은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은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친근한 교실에서 교사와 학습자간의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하는 교육방식이다. 반면에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컴퓨터를 사용한다는 면에서 학습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강국인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학습 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중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토익수업에서 두 가지 학습 환경인 CMC 바탕의 학습 환경과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직접 교육을 해보고 이를 통해 나온 연구 결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좀 더 보완하고 좋은 점 역시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서 실질적인 교육에 대입하여 앞으로의 영어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효율적인 학습법을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연구문제 1. CMC 바탕의 학습 환경과 F2F 학습 환경 중에서 토익을 배우는 학습자들 입장에서 어떠한 학습 환경이 좀 더 효율적인가?

연구문제 2. CMC 바탕의 학습 환경과 F2F 바탕의 학습 환경 중에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가? 만약 차이점을 찾았다면,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가?

2. 이론적 배경

2.1. CMC 바탕의 학습 환경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 학습하는 것으로 Bruce et al.(1997)에 따르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처음에는 Network-based Classroom으로 네트워크 바탕의 교실 개념이었다. 초기의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 구축된 교실에서 시작하여 오늘날의 CMC 바탕의 학습 환경으로 발전된 것이다. Network-based Classroom의 학습 환경은 F2F 학습 환경처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의 학습 환경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학교의 교실은 물론이고 그 외에 학습자가 필요한 장소들 중에서 CMC가 바탕이 된 학습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학습할 수 있다. CMC는Trent Batson에 의해 1985년 Washington D. C.에 위치한 Gallaudet University에서 제2언어인 영어를 통해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머거리들을 학습하기 위한 교육적인 용도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Susan B. Barnes(2003)는 오늘날 CMC가 이메일, 토론 목록, 뉴스 그룹, 채팅, 메시지와 웹 페이지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돕는 기술적인 범위로 넓어졌다고 한다. CMC는 두 가지 특성이 있다. Asynchronous CMC (ACMC)와 synchronous CMC (SCMC)이다. ACMC는 비동시성으로 흔히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으로 먼저 한 사람이 글을 써서 보내면 다른 사람이 그 메일을 받고 답을 해 주는 것으로 상대방의 글을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다. 하지만 SCMC는 동시성으로 그것과는 달리 채팅처럼 한 사람이 글을 쓰면 동시에 그 글을 받는 사람이 읽고 답을 하는

것으로 서로가 동시에 쌍방향으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2.2.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장점과 단점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앞서 언급된 것처럼 자신이 학습하고 싶은 때 언제든지 어디서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Berge & Collins 1995; Blake 2000; Goertler 2009). 만약 한 학생이 입원을 하였을 경우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는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한 가지 예가 바로 동영상 강의라고 생각한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은 모든 포커스가 교사에게 집중이 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교사에게는 물론이며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도 집중이 된다. 즉, F2F 바탕에서는 수업을 교사가 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교사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한다. 그래서 컴퓨터와 네트워크에 문제만 없다면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더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수업진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교사가 주로 말로써 교재를 바탕으로 칠판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미리 준비해야 하고 자료 사용이 제한적이며 만약 자료가 준비되어진 것이 없고 설명 위주라면, 수업 분위기는 지루해질 것이다. 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말로 설명하는 것과 동시에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인 자료를 인터넷 공간에서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쉽게 구할 수 있고 설명 위주의 수업보다 좀 더 재미있게 수업이 진행되어 학습자들의 흥미를 쉽게 유발하며 그 결과 학습자들의 호응도가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커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수업을 진행한 학습자들의 언어 학습이 향상된 결과를 보인다(Blake 2000; Goertler 2009; Hegelheimer & Chapelle 2000).

Goertler (2009), Harasim (1990)과 Warschauer (1995a, 1995b)에 의하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실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나 내성적인 성격이거나 부끄러움이 많은 학습자들의 대부분이 수업참여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로 수업에 임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처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으므로 실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수업에 참여한다고 하였다. 그 예로 한국에서의 F2F 바탕의 수업 시간에는 교사가 질문을 할 경우 대부분의 학생이 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은 발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발표를 할 경우 교실의 모든 학습자들과 교사가 자신만을 바라보는 부담감과 압박감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혹시 대답한 것이 틀렸을 경우 다른 학습자들이 비웃을 거라는 걱정 때문에 교사와 눈을 회피하고 스스로 발표를 하거나 질문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한다. 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일단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기 때문에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보다 스트레스가 덜 할 것이며, 또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익명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의 수업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일단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수업보다는 인터넷 웹 서핑을 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채팅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로 인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몇몇 학습자들의 학습 결과가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하였다. 그리고 또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몇 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영어 수업 시간에 처음으로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을 함께 실시한 수업을 듣게 되었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은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 때까지 12년을 계속 경험하였기 때문에 금방 적응을 잘 하였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처음 접하는 환경이라서 낯설고 계속해오던 학습 환경과 다르고 일단 새롭고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보다 더 컸다. 또 컴퓨터로 해야 할 것이 많았는데 일단 컴퓨터로 수업에 참여한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잘 몰랐기 때문에 애를 먹고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잘하였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적응을 하지 못해서 성적이 좋지 못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유는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 비해서 자발적인 분위기인데 필자는 자발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경우이며, 또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이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은 교사가 학습자들과 매일 부딪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모든 학습자들을 다 같이 끌고 가려고 하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교사가 일일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신경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초기에 학습자들이 컴퓨터 기술과 관련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그 수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반면에 학습자가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는 경우에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학습 환경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F2F바탕의 학습 환경은 교사가 준비해온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 내용이 제한적이지만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은 교사가 준비해온 수업과 함께 학습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점에서는 좋은 점이

기는 하지만 학습자가 그날의 수업보다 다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코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좋다고만 할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항상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 CMC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반대로 항상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바탕이 되어 서로 다른 결과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다음 2.3장 선행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연구되어온 논문들이 어떠한 결과를 보여주는지 알아볼 것이다.

2.3. 선행연구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과 관련된 논문들이 많은 학자들과 연구가들에 의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으며,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본다. 2.2장의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의 학습 환경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 중에서 어느 것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항상 좋다고 볼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어떤 학자들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좋다고 하였으며, 또 어떤 학자들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좋다고 연구하였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모두 두 가지 학습 환경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실험한 연구들이다.

먼저 Sullivan & Pratt (1996)에 따르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좋다고 하였다. 그들은 ESL 학습 환경에서 작문 수업을 바탕으로 두 가지 학습 환경인 전통적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을 비교하였다. 이 논문은 세 가지 방법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작문과 작문 이해와 작문의 질과 같은 태도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두 가지 분석 방법인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하였다. 첫째, 양적인 분석 결과를 보면, 작문 수업은 컴퓨터를 사용한 작문과 작문 이해에 대한 태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작문의 질에서는 CMC 바탕의 학습 환경서 0.08이라는 의미심장한 수치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둘째, 질적인 분석을 해보니 각각의 학습 환경에서 나타난 담화의 유형은 서로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큰 단위의 그룹 간의 논의에서는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친구들끼리 응답을 한 그룹에서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서로에 관한 논평들이 더 많았으나,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서로의 논평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문 수업에 있어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에게 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양수 (2011) 역시 서로 다른 학습 환경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진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이 영어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25명의 학생이 전통적인 F2F 학습 환경에서 평가되었고, 24명의 학생들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평가되었다. 그 결과는 학생들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된 인지전략, 초인지 전략, 교수 과정적 전략에서 좀 더 상호작용 전략적이며, 영작문의 질에서나 작문의 과정에 있어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좀 더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가진 것을 알게 되었다. 게다가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학생들과 교수간의 실질적인 피드백에 있어서 좀 더 상호작용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Bordia (1997)에 따르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 더 좋다고 하였다. 그의 연구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 사이에 실시된 실험으로 모두 10개의 계획된 실험을 걸쳐서 나타났으며, 각각의 증거들이 실험들을 뒷받침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오랜 시간동안 좀 더 많은 지식을 생산하고 참여에 있어서 좀 더 균등하다는 사실을 논의하였다. 규범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고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 있어서 논의에 관한 이해가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행업무의 질에 있어서 결과들은, 태도에 있어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업무의 선택이나 태도의 변화와 의사소통 파트너의 평가에 있어서는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들은 내적인 유효성이나 외적인 유효성의 제한적인 요소들을 계속 논의되어야 한다. 논문의 연구는 두 가지 주요한 테마에 관해 관찰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 CMC의 기술적 제한점과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 또는 개인 간의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Proposition 1과 2에 따르면, 할당된 과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 CMC 그룹이 F2F 그룹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과 주어진 시간 동안에 관찰할 것들이 더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특징은 CMC의 기술적 제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제한점은 몇 가지 결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실험자들은 Proposition 8에서 나쁜 평가를 받은 실험자들이 두려움을 느꼈다. 또한 논의된 Proposition 2에서 제약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룹 구성원들이 주로 업무 위주로 사용을 하였으며, 사회적인 감정에 관한 관찰은 적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Proposition 5에서는 CMC 그룹들이 서로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된 업무로 인해 고통 받는 것을 결과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Hegelheimer & Chapelle (2000)의 연구에서는 CALL(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컴퓨터 보조 언어 학습) 자료들이 제2언어 습득을 위한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환경을 충족시키고 또 다양한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실험이나 관찰에 의한 경험주의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실제로 제 2 언어 학습 환경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어떻게 SLA theory(제 2 언어 습득 이론)가 언어 교실이나 독학에 사용되는 CALL 업무 평가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있다. 지각을 위해 만들어진 환경이 업무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이 방법을 통한 지각의 효력을 평가하는 두 가지의 중점적인 사안에 대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의논하였다. 연구의 결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데,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들처럼 긍정적인 면이 많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가장 큰 점은 컴퓨터 화면을 보는데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이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라고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대상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던 여러 논문들과 자료들에서 볼 수 있듯이 확실하게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 CMC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더 좋다 아니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더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인 대학생들 중에서 토익을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학습 환경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토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두 가지 학습 환경에서 차이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학습 환경이 교육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부산에 있는 전문대학교에서 같은 과에 있는 학생들을 먼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로 나누고, 나누어진 각각의 2개의 그룹을 다시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모두 4개의 그룹을 바탕으로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어떤 결과를 보이는지 실험하였다. 각 그룹의 학생의 수는 15명씩으로 모두 60명이고

각 그룹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똑같지가 않아서 본 논문에서는 남·여의 비율은 따지지 않기로 하였다. 다른 논문과의 차이를 두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학습 환경의 차이가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과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들 간의 토익 수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든지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든지 어떠한 학습 환경에 상관없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들보다 시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3.2. 연구 과정

본 논문은 3.1 연구 대상에서 나뉜 4개의 그룹 총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넥서스에서 출판된 'How to Toeic Basic R/C' 라는 토익 교재를 사용하여 똑같은 교재와 내용으로 주1회 2시간씩 약 2달에 걸쳐 모두 8번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시간 2시간 중에서 첫 번째 1시간은 각각의 단원에 해당하는 문법에 대해 설명을 하고, 나머지 1시간은 각각의 단원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기간은 8주이며, 총 16시간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의 토익 수업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 모두 2번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시험은 사전 테스트로 첫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하였다. 사전 테스트를 실시함으로써 먼저 학생들의 수준을 알고, 또 두 번째 시험인 사후 테스트와 비교 하여 본 논문의 목적인 좀 더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찾고자 하였다. 두 번째 시험인 사후 테스트는 8주차에 수업을 하고 며칠 뒤에 시험을 실시하였다.

사후 테스트를 실시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알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조사하였다. 설문지에는 60명의 모든 학생들의 배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나이, 출생지, 출신 고등학교, 영어 중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영어를 보통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공부하는지에 관해서 물어봤으며, 이 외에도 수업을 하는 동안 학생들에 관해 알기 위해서 수업의 난이도와 이해도 정도를 리커트 척도를 바탕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수업에 대한 의견도 서술케 하였다.

시험도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학습 환경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 모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시험 문제는 모두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토익 문제집과 기출 문제들을 참고하였으며, 모두 16주에 걸쳐 수업을 실시하는 동안 16개의 과를 배웠으며,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각 과당 모두 5개의 문제를 제출하여 모두 40

개의 문제를 내었으며, 문제 하나에 1점씩으로 총점을 40을점 만점으로 하였다. 처음 8번의 수업은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의 학생들을 먼저 수업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학생들에게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 후에 나머지 8번의 수업은 반대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학생들의 수업을 먼저 실시하고 그 다음에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 있는 학생들의 수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실시한 이유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공평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총 4개의 그룹 모두 전통적인 수업방식인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고, 또 CMC 바탕의 학습 환경으로 온라인상에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동영상 강의와 비슷한 방식으로 동시에 채팅이 가능하게 하여 궁금한 것은 물을 수 있게 하였다. 토의의 대부분의 교재와 마찬가지로 본 논문의 실험에 사용된 교재 역시 각 단원의 구성이 문법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 문제는 문제로 정리하는 각 단원과 기본다지기, 기출다지기 모두 3가지가 있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 모두 모든 문제를 학생들에게 시간을 주고 풀게 하였다.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처음에 나온 문제로 정리하는 각 단원은 연구자가 풀이를 하고 나머지 기본다지기과 기출다지기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연구자가 풀이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풀이하도록 시키거나 아니면 같이 단계 단계를 밟아나가면서 풀이하였다.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는 역시나 처음에 나온 문제로 정리하는 각 단원은 연구자가 풀이를 하고 나머지 기본다지기과 기출다지기는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토론 방식으로 풀이하도록 하고 연구자는 감독과 마지막 결론만 내는 역할을 하였으며 F2F 바탕의 학습 환경보다 자유스러운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다.

3.3. 분석 방법

본 논문에서는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를 실시한 각 그룹간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는 무엇이며, 또 두 가지 테스트를 실시한 학생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SPSS 21.0K for window를 사용하여 Two-Way ANOVA(이원분산분석) 방식을 바탕으로 t-test를 사용하여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 f값과 p값 등을 알아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그룹 간의 학습 환경의 차이 즉, 어떤 학습 환경이 좀 더 나은지에 관한 효율성에 대해 비교해보고, 또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의 차이점이나 학습자들 간의 차이점은 학생들이 답한 설문지와 본 연구를 실시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정리할 것이다.

4. 연구결과

4.1. 학습 환경의 효율성

토의를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배운 학습자들이 어떤 학습 환경에서 배웠을 때, 더 효율적인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학습자들이 실시한 영어 시험은 총점이 사십 점이며, 각각의 네 그룹의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표 2>와 <표 3>과 <표 4>와 <표 5>와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각각의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가 나타난 <표 1>과 <표 3>에는 각각의 네 그룹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 그리고 네 그룹의 간의 평균값과 전체 평균값과 표준편차, f 값과 p 값 등이 나타나 있다. <표 2>와 <표 4>에는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를 나타냈으며, <표 5>에는 인문계를 졸업하였는지 아니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았는지에 따른 사전·사후 테스트의 변화량이 나타났으며, <표 6>에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에 따른 사전·사후 테스트의 변화량이 나타난다.

<표 1> 사전 테스트 시험 결과

	F2F 인문계 ○	CMC 인문계 ○	F2F 인문계 ×	CMC 인문계 ×
최고 점수	23	24	21	22
최저 점수	17	15	13	12
평균	19.73	19.27	16.87	17.00
전체 평균	18.22			
표준편차	2.282	2.404	2.532	2.726
전체 표준편차	2.756			
f 값	5.401			
p 값	0.002			

※ 평균값과 전체 평균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p < 0.05$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에 관해서 살펴보면,

각각의 네 그룹의 최고 점수들 중에서도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도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이 24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도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이 21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 점수를 살펴보면 17점으로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이 17점으로 네 그룹 중에서 높았지만, 가장 낮은 최저 점수는 12점으로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도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의 점수이다. 네 그룹의 모든 학생들의 평균은 18.22점이며, 표준편차는 2.756이며,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두 그룹은 모두 19점대의 평균을 가지고 평균 18.22점을 넘겼지만,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두 그룹은 16점대와 17점대로 평균인 18.22점을 넘기지 못했다.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가진 그룹은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도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로 16.87점이다. f 값 5.401이며, p 값이 0.002로 0.005보다 작으므로 네 그룹 간에 평균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사전 테스트의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그룹	N	집단군	
		1	2
F2F 인문계 ○	15	19.73	
CMC 인문계 ○	15	19.27	
F2F 인문계 ×	15		16.87
CMC 인문계 ×	15		17.00
유의확률		0.61	0.88

※ 유의확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2〉에 따르면, 사전 테스트에서는 네 그룹은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보다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인지 아니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에 따라 집단이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 아니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에 상관없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의 점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사후 테스트 시험 결과

	F2F 인문계 ○	CMC 인문계 ○	F2F 인문계 ×	CMC 인문계 ×
최고 점수	37	37	37	34
최저 점수	23	25	21	23
평균	28.53	29.53	28.67	27.93
전체 평균	28.67			
표준편차	4.051	3.543	4.402	3.327
전체 표준편차	3.80			
f값	0.440			
p값	0.725			

※ 평균값과 총 평균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p < 0.05$

〈표 3〉에 따르면,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살펴보면, 각각의 네 그룹간의 최고 점수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 두 그룹과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 모두 세 그룹의 점수가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한 그룹인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이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최저 점수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의 점수가 2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23점으로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과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의 점수이며, 가장 낮은 21점으로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중에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이다. 평균 점수들을 보면, 네 그룹의 모든 학생들의 평균은 28.67점으로 이는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가운데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그룹 점수와 같다. 사전 테스트의 평균 점수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두 그룹의 평균 점수가 평균 점수를 넘겼지만 사후 테스트에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가운데서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평균이 29.53점으로 가장 높고 평균인 28.67점을 넘겼으며,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 가운데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평균은 28.53점으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 가운데서 F2F 바탕

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평균은 28.67점으로 전체 평균과 같으며,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학습한 학생들의 평균은 27.93으로 전체 평균 점수보다 낮다. 표준편차는 3.80이며, t 값은 0.44이며, p 값은 0.73으로 0.05보다 크므로 네 그룹들 간에 평균에는 차이가 없다.

〈표 4〉 사후 테스트의 Duncan의 사후분석 결과

그룹 1	N	집단군
		1
F2F 인문계 ○	15	28.53
CMC 인문계 ○	15	29.53
F2F 인문계 ×	15	28.67
CMC 인문계 ×	15	27.93
유의확률		0.308

※ 유의확률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표 4〉에 따르면, 사후 테스트에서는 네 집단이 동일한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점수 상황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점수 상황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점수 변화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표 5〉 인문계 ○ VS 인문계 × 그룹들의 사전·사후 테스트 변화량

		N	평균	표준편차	t	p값
사전	인문계 ○	30	19.50	2.316	4.050	0.000
	인문계 ×	30	16.93	2.586		
사후	인문계 ○	30	29.03	3.774	0.745	0.459
	인문계 ×	30	28.30	3.852		
사후-사전 변화량	인문계 ○	30	9.53	4.240	-1.601	0.115
	인문계 ×	30	11.37	4.620		

$p < 0.005$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테스트에는 학습 환경에 상관없이 인문계를 졸업하였는지 아니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t -test 결과 t 값이 4.050과 p 값은 0.000으로 0.005보다 작으므로 통계적으로는 점수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 외에 사후 테스트와 사후-사전 테스트 변화량에

는 차이가 없다.

〈표 6〉 F2F VS CMC 환경에 따른 사전·사후 테스트 변화량

		N	평균	표준편차	t	p값
사전	F2F	30	18.30	2.781	0.232	0.817
	CMC	30	18.13	2.776		
사후	F2F	30	28.60	4.157	-0.135	0.897
	CMC	30	28.73	3.473		
사후-사전 변화량	F2F	30	10.30	4.714	-0.257	0.798
	CMC	30	10.60	4.336		

$p < 0.005$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와 사후-사전 테스트 모두 학습 환경에서는 t값과 p값에서 통계적으로는 점수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익을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어떤 바탕의 학습 환경이 좀 더 효율적인지를 본 논문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사전 테스트에서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에 관계없이 토익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두 학습 환경 모두 효율적인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후 테스트에서는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인지에 관계없이 토익을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두 학습 환경 모두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없다. 하지만 네 그룹의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평균 점수 차이를 비교해보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그룹들 중에서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토익을 배우는 학습자들이 11.8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면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예상했던 F2F 바탕의 학습 환경이든지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든지 어떠한 학습 환경에 상관없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이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시험 성적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무조건적으로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이 잘 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판단의 기준은 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 환경과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인지 졸업하지 않은 학생인지에 상관없이 교사와 학습자의 특징이나 성향 그 외에 모든 학습 환경의 요소들에 따라서 면대면 바탕의 학습 환경이 더 좋은지 아니면 CMC 바탕의 학습 환경이 더 좋은지는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고 본다.

4.2. 차이점

각각의 학습 환경에서 토의를 배운 학습자들 사이에서의 영어 능력 향상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표 6>의 p값을 통해서 알 수 있다. p값이 0.005보다 작을 때 이 실험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p값이 모두 크므로 실험값이 유효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다면, 각각의 학습 환경에 따른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점수 변화량에 따른 그룹들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 따른 사전·사후 테스트 점수 변화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러나 <표 5>를 살펴보면, 유효한 실험값이 단 한 개가 있는데 이는 학습 환경과는 관련이 없고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과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의 사전 테스트 결과만의 p값이 0.005보다 작아서 유효하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토의를 배우는 대학생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의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 중에서 어떤 학습 환경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토의를 배울 수 있는지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각각의 학습 환경에서 토의를 배운 학습자들 사이에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영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2F 바탕의 학습 환경과 CMC 바탕의 학습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사전과 사후 테스트 변화량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들의 그룹과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학생들의 그룹간의 사전 테스트와 사후 테스트의 점수 변화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인문계를 졸업하지 않은 그룹들은 F2F 바탕의 학습 환경에서 토의를 배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실험에서는 F2F와 CMC 바탕의 학습 환경 중에서 어떤 학습 환경이 영어 능력 향상에 좀 더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각 그룹을 15명씩 모두 네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몇몇 소수의 학생들만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학생들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학생의 성향이 혼자서도 열심히 잘 하는 성향인지 아

닌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Works Cited

- 정양수. 2011. 먼대면 학습환경과 CMC 기반의 학습환경에서 이루어진 상호작용이 영어 쓰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영어교육연구」 23.2, 137-158.
- Berge, Z. & Collins, M. 1995.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nd the Online Classroom(Vol. 3): Distance Learning. New York: Hampton Press.
- Blake, R. 2000.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 Window on L2 Spanish Interlanguage.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4.1, 120-136.
- Bordia, P. 1997. Face-to-Face versus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 Synthesis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The Journal of Business Communication」 34.1, 99-120.
- Bruce, B., Peyton J. Kreeft & Batson, T. 1997. Network-Based Classrooms - Promises and Realities. 「Intelligent Tutoring Media」 7.3-4, 151.
- Goertler, S. 2009. Using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CMC) in Language Teaching. 「Die Unterrichtspraxis/Teaching German」 42.1, 74-85.
- Harasim, L. Online Education: Perspectives in a New Environment. In N. Harasim (Ed.), Online education. N.Y.: Praeger.
- Hegelheimer, V. & Chapelle, C. 2000. Methodological Issues in Research on Learner-Computer Interactions in CALL. Language Learning and Technology. 4.1, 41-59.
- Sullivan, N. & Pratt, E. 1996. A Comparative Study of Two ESL Writing Environments: A Computer-Assisted Classroom and a Traditional Oral Classroom. System 29.4, 491-501.
- Susan C. Herring.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Linguistic, Social and Cross-Cultur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Susan B. Barnes. 2003.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Human to

Human Communication across the Internet, Rochester Institute of Technology.

Warschauer, M. (1995a). Comparing Face-to-Face and Electronic Discussion in the Second Language Classroom. *Caligo Journal*, 13.2-3, 7-25.

Warschauer, M. (1995b). E-mail for English Teaching: Bringing the Internet and Computer Learning Networks into the Language Classroom. Alexandria, VA: Tesol Publication. 2.1, 7-120.

Abstract**A study of effect on improving English skills
between learning environment for Toeic in F2F
and CMC****Park, Se Ri**

The learner's environment is an important factor to study other language. There are two large environments in the language learning; face-to-face environment(F2F) and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environment(CMC).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know which environment is more efficiently for language learner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fficiency of English learning between face-to-face environment and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Key Words

F2F(face-to-face), CMC(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삶의 수행』에 나타난 호모사케르

이 민 아

I

이제까지의 마리아 아이린 포네즈(Maria Irene Fornes)의 『삶의 수행』(*The conduct of life*)에 관한 비평은 페미니즘적인 것들이 주를 이루었다. 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자주인공들의 자아인식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남성의 권력에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여성과 그 여성의 육체에 가해진 폭력을 비판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랭거네이션(Renganathan)은 포네즈 극의 공간은 여성의 사회적 계급과 문화적 공간을 상징한다고 지적하였고(39) 이 극의 무대도 4개로 나누어진 공간에서 주방(diningroom)이 중앙의 가장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이 극은 단순히 남성의 폭력에 지배당하는 여성의 모습에만 초점을 둔 작품이 아니라, 폭력성이 누구에게나 내재하며 극중의 인물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포네즈가 “창조적 위험”(“Creative Danger”)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극이 여성에게만 가해진 폭력에 대한 극은 아니며(230) 조르지오 아감벤(Giorgio Agamben)이 그의 저서 『호모사케르』(*Homo sacre*)에서 말했던 사회제도나 국가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난 ‘벌거벗은 생명’에게 가해지는 처벌 받지 않는 폭력으로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감벤은 자신의 저서인 『호모사케르』에서 현대나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된 자들이 겪어온 폭력의 성격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무방비하게 폭력에 노출된 모든 존재를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 이 개념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배제의 매커니즘을 밝혀내기 위한 시도에서 도출된 것이다. 호모사케르란 사람들이 범죄자로 판정한 자를 말한다. 그 자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죽이더라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대상이다.(45) 아감벤은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인

호모사케르를 ‘벌거벗은 생명’으로 지칭하고, 이들이 겪는 폭력은 법의 영역에도, 신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한 ‘예외상태’(the state of exception)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45) 그는 현대 정치에서도 민족-국가의 경계 밖의 예외상태는 본질적으로 장소 확정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근본적인 정치구조로 전면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한다.(63) 법질서 밖의 예외상태의 상시화라는 그의 진단은 그 만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뜻하며, 현대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폭력이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아감벤의 사유에 따르면 극에 나타난 여러 인물들은 법의 경계선 밖의 예외상태에서 존재하는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호모사케르이다. 이 극에서 그들을 호모사케르로 지정한 권력주체인 올란도(Orlando)와 권력 아래서 그들이 어떻게 호모사케르로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인간이 가진 폭력성과 그에 대한 저항을 고찰해 볼 것이다.

II

군대에서 고문을 담당하는 장교 올란도의 최고 이상은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계획을 세우고,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은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다.(68)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만약 그가 높은 지위에 있는 여자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현재의 부인인 레티시아(Leticia)는 장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에게 가정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며 아내는 집을 지키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늘 아내를 무시하고 “mad” 나 “foolish” 같은 단어를 서슴지 않고 사용함으로써 언어폭력을 휘두른다. 가난한 이에게 돈을 나눠주고 싶다고 말하는 그녀에게 자신이 죽어도 돈 한 톨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숙지시킨다.(69)

그의 폭력은 이 극의 전반에 깔려있으며 다른 등장인물들은 그의 폭력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다. 그는 군대에서 고문관으로 임명되고 펠로(Felo)라는 인물을 고문하다 실수로 죽여 버리지만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는 고문관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지?”(79)라며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분개하면서 부인에게 또 다른 언어폭력을 저지른다. 올란도의 직업이 군인이고, 그의 폭력이 직장과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폭력은 군인이 하는 전쟁에서만 일어나는 특수한 일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인 현상이 된다. 이를 역으로 보면, 일상의 자잘한 폭력은 거대한 폭력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 유기적으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해 어디든 ‘수용소’(232)가 될 수 있다는 아감벤의 통찰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레티시아는 남편으로부터의 무시가 지긋지긋하다며, 자신도 대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한다. 이러한 고등교육을 통해 ‘group’ 즉 사회 속에서 말할 수 있는 여성이 되었으면 하고 바란다.

레티시아: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대학에 가고 지식인이 되고 싶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요. [...] 나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말 할 수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요. 그들이 나를 경청하게 만들고 싶어요.

Leticia: I want to study so I am not an ignorant person. I want to go to the university. I want to be knowledgeable. I'm tired of being ignored. [...] I would like to be a woman who speaks in a group and have others listen.

레티시아가 올란도의 부하인 알레호(Alejo)에게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말하는 위의 대사에서 우리는 그녀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올란도와 함께 있을 때는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처음에는 언어폭력으로 시작되었던 레티시아에 대한 폭력은 19장에서 한통의 전화를 받은 후 그녀의 외도를 캐내기 위해서 고문을 하는 신체적 폭력으로 발전한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다가 급기야 그녀의 블라우스 속으로 손을 넣는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레티시아는 서랍장 속의 총을 꺼내 그를 향해 방아쇠를 당긴다.(88) 결국 올란도의 폭력은 부메랑처럼 돌아 그를 파멸시킨다. 레티시아에게 사랑하는 올란도가 있는 가정은 곧 국가였다. “누군가에게 “너에게 국가라는 것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들은 “나의 침대, 나의 저녁식사야” 라고 대답한다”(75)라며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올란도에 의해 지배되는 가정은 결국 권력과 폭력으로부터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 줄 수 없는 예외상태이거나 아감벤의 수용소와 마찬가지로였다.

이제 호모사케르의 삶 또는 이와 여러 모로 유사한 도적떼, 평화를 상실한 자, ‘수화불통’에 처해진 자의 삶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종교

공동체 그리고 모든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었다. 그는 자기 부족의 의례에도 참가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유효한 법률 행위도 수행 할 수 없다. 게다가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그의 실존 전체가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별거벗은 생명으로 축소되며, 따라서 끊임없이 도망치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피난처를 찾아내지 않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하지만 매순간 무조건적인 죽음의 위협 하에 놓여 있는 한, 그는 바로 자신에게 추방령을 내린 권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 매 순간 이 사실을 의식해야만 하며 추방령을 회피하고 따돌릴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야만 한다. (호모사케르 345)

레티시아는 그녀의 남편이 휘두르는 권력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의 폭력에 저항 할 힘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아감벤이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녀에게 추방령을 내린 남편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이를 따돌릴 수단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한때 사랑했었지만, 폭력과 모욕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올란도 향해 총을 쏘았다. 그러나 이것이 오랜 시간동안 준비해 온 실전적 저항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녀가 총을 쏘 후 당황해하며 그 총을 12살짜리 네나(Nena)의 손에 쥐어주기 때문이다. 사냥을 가려는 올란도에게 “사슴을 어떻게 죽일 수 있죠”(68) 라고 말하던 그녀의 첫 대사는 사람을 죽이고 자신보다 더 약한 이에게 총을 떠넘기며 “제발...”(88)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대사로 마무리 된다. 폭력에 시달리던 레티시아는 그녀를 보호할 어떤 장치도 없는 수용소인 가정에서 또 다른 폭력을 저지르며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III

올란도의 폭력은 알레호와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펠로의 고문 장면을 목격한 알레호가 그의 잔인성을 지적하는 장면에서 올란도는 자신이 다가가기 전에 펠로가 사망했으며 이것은 그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75) 이렇게 말함으로써 올란도는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고, 펠로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음을 피력한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란도는 “남자들이 노는 방식이 다 그렇지 뭐”(75)라며 추호의 죄책감도 없이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것은 자신의 폭력에 대해 폭력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중의 폭력이 된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정권에 의해 수많은 인체

실험이 수행된 것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인체 실험은 매우 잔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였으나, 독일의 과학자들과 히틀러는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 당시에 실험을 진행하였던 과학자들의 관점에서는 매우 훌륭한 실험이었으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유린되었던 인권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폭력이며, 나치는 유대인들에게 이중의 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울란도의 살인행위는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호모사케르에 대한 처형이며, 주권을 가진 가해자는 어떠한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일로 직장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자, 가정에서의 그의 잔인성과 비열함은 한층 강화된다. 울란도는 세상이 악의와 파괴성으로 가득 차 있어서 환멸을 느끼고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79) 여기서 주목할 만 한 점은 부하인 알레호의 행동이다. 그는 울란도가 비열하다고 생각하지만 레티시아와의 대화에서 “당신은 누군가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70)라고 질문하며 울란도의 부정을 당당히 밝히지 못한다. 그는 인간 내면에 있는 잔인성이 여러 가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인식하지만 스스로를 “성불구자”(75)라고 지칭하며 자신의 내부에도 존재할 지도 모르는 잔인성을 부정한다. 그는 이 극에 나오는 여성들과는 달리 그의 내면에 깔려있는 폭력성을 감지하고 두려워하며 이를 회피하고 억압하려고 애쓴다. 그는 폭력에 직접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폭력에 의해 무기력하게 변하고 울란도의 폭력에 의해 파괴되어지는 다른 인물들처럼 권력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별거벗은 생명이 될 뿐이다.

이 극에 등장하는 인물 중 네나는 가장 힘없고, 별거벗겨진 인물이다. 그녀는 늘 맨발로 등장한다.(70) 울란도는 그녀를 창고에 가둬두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을 위기로 몰고 갈 지도 모르는 성적충동을 표출한다. 네나는 조금의 저항을 해보지만, 전혀 소용없는 일이다. 그녀는 성폭력 뿐 만 아니라, 정신 병원으로 보내라는 언어폭력, “그가 나를 매달았다”(84)는 대사에서 신체적 폭력까지 당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이 폭력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처벌 되지 않으며 심지어 그의 아내도 창고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그에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한다. 거실과 주방 뿐 아니라 창고 역시 그 어떤 법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울란도가 마음껏 폭력을 자행할 수 있는 수용소이다.

아감벤은 범집행자들이 자신을 인종공동체에 결박시킴으로서 생명과 정치, 사실과 법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영역으로 이동시키며, 이러한 영역은 특정한

법질서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영토’가 아닌 또 다른 위치가 된다고 말한다.(232)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수용소’이다. 수용소는 정상적인 법질서에서 배제되었기에 국가의 영토가 아니지만, 예외상태가 주권자를 위시한 법질서에 의해 창출된 것이므로 법질서에 포함된다는 역설적 지위를 가진다. 수용소의 구조는 정상적인 법질서가 사실상 정지된 공간과 임시적인 주권자의 임의적인 권력 행사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모든 법적 권리에서 배제된 ‘벌거벗은 생명’ 혹은 ‘호모사케르’는 어떤 매개도 거치지 않고 권력과 마주친다.

아감벤은 수용소가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정치의 ‘숨겨진 모태’(232)라고 보는데 이는 국민국가의 틀에 수용되지 못하는 요소를 지닌 삶이 언제라도 그 수용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간 ‘벌거벗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다양하게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고 있는 수용소의 구조를 인식하고 일반 국민, 시민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 호모사케르의 잠재적 가능성을 감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 극에서 올란도가 펠로를 죽인 고문실, 레티시아가 있는 가정, 네나를 성폭행 하는 창고는 모두 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올란도라는 주권자에 의해 폭력이 일어나고, 누구도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수용소가 된다.

7장에서 또 다시 올란도는 창고에서 네나를 성폭행 한다. 흘쩍이는 네나를 “착한 소녀야”(76)라고 달래어 성적 욕구를 충족한 뒤, 그녀에게 자신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으라고 한다. 올란도에게 있어 네나는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충족시키는 애완견과 다를 바 없다. 애완견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면, 음식이라는 보상이 주어지듯 그렇게 네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네나가 아무리 갈 곳 없이 떠도는 아이였다고 할지라도 그녀를 동물처럼 취급 할 정당성은 어디에도 없다. 이 처벌 받지 않는 부정한 정당성은 펠로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로 네나에게 가하는 이중의 폭력이 된다. 아감벤은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 한다’라고 하였다.(55) 이는 법질서 자체가 주권자들에 의해 만들어 지지만, 동시에 그들이 만들어낸 법질서에 의하여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지 못하는 모순구조로 이해 할 수 있다. 그러나 주권자가 법질서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옳지 못하다면 주권을 가지지 못하는 현상은 모순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즉 예외상황을 만드는 주권자의 판단근거가 옳지 못하다면 예외상태에 있는 인간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법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법이 존재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사람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나뉘지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생겨나고 이 상황이 바로 호모사케르를 대두시킨다.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네나에 대한 폭력은 그의

권력을 더욱 확고히 만들어 주는 장치이다.

IV

아감벤은 근대 민주주의의 탄생의 과정을 설명하며 예외상태의 경계들이 흐려지면서 그 경계 안에 머물러 있던 벌거벗은 생명들은 도시 국가에서 해방되어 정치 질서를 둘러싼 갈등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고, 즉 국가 권력이 조직되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장소에 존재 할 것이라고 말한다.(47)

이 극에서도 올란도의 폭력과 지배에 대한 경계가 흐려지는 여성들의 저항과 해방의 공간을 찾아 볼 수 있다. 올림피아(Olimpia)는 올란도 집에서 일하는 하녀이다. 그러나 레티시아가 도움을 청하자 하루에 해야 할 일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이를 거부한다. 그리고는 부실한 냄비를 의자에 두드리며 새로 냄비를 하나 장만해야 한다며 돈을 달라고 요구한다.(72) 주인에 의해 수동적인 역할이 기대되어지는 하녀 올림피아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올란도와의 대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11장에서 알레호, 네나, 올림피아가 지하실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올란도는 네나를 정신 병원으로 보내라고 소리친다.(80) 이에 올림피아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란도 보다 더 많은 말을 쏟아내며 반박한다.

올란도: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들어. 너의 그....(그는 그녀의 언어장애를 따라한다. 그녀는 그를 향해 주먹을 날린다.)

올림피아: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들지! (그는 그녀를 밀친다.) 니가 나를 미치게 만든다고! 이 나쁜 놈! 언젠가는 니가 잠든 사이 널 죽일 거야. 니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고 잘게 썰어서 뱀에게 먹이로 줘버려야지. (그녀는 그의 목을 조른다.) 심장을 찢어서 개에게 먹이고, 니 머리를 갈라 뇌를 꺼내 고양이의 밥이 되게 할 거야. (그의 지퍼를 가리키며) 니 성기를 잘라 나무에 매달아 놓고 새의 밥이 되게 해주겠어.

Orlando: You drive me crazy too with your ... (He imitates her speech defect. She punches him repeatedly.)

Olimpia: You drive me crazy! (He pushed her off.) You drive me crazy! You are a bastard! One day I'm going to kill you when

you're asleep! I'm going to open you up and cut your entrails and feed them to the snakes. (She tries to strangle him.) I'm going to tear your heart out and feed it to the dogs! I'm going to cut your head open and have the cats eat your brain! (Reaching for his fly.) I'm going to cut your peepee and hang it on a tree and feed it to the birds!(80)

올림피아는 올란도가 행하는 언어폭력에 그보다 더한 언어폭력으로 맞선다. 이따금씩 목을 조르거나 때리면서 신체적 폭력을 가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올림피아의 행동은 앞서 알레호가 숨기고자 했던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는 폭력성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권력을 위시한 무자비한 폭력에 대한 이 극에 나타나는 유일한 적극적인 저항으로 보인다.

15장에서 네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올림피아에게 꺼내 놓으며 자신을 도와주는 올림피아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한다.(83) 네나에게 있어 올림피아는 그녀를 처음으로 인격체로 대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네나의 할아버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집이 어디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늙고 병든 노인이며 행방조차도 불분명하다. 그녀는 잠시 할아버지와 함께 두 명이 들어갈 만한 박스에서 생활했는데 그는 너무나 여위어서 딱딱한 바닥에 눕는 것이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네나의 위에서 주무시곤 했는데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할아버지가 자신의 위에서 오줌을 누는 것 이였다.(83) 이 독백에서 할아버지의 이미지는 올란도의 이미지와 겹쳐지는데 그도 할아버지처럼 그녀 위에서 정액을 분출하기 때문이다. 네나가 돌봐야 했던 할아버지와 네나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올란도는 같은 모습으로 그녀에게 고통을 안겨준다. 네나는 올란도에게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 올렸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올란도의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누군가 자신을 혹독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분노에 눈멀지 않고, 자신보다 더한 고통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받아 드려야 한다.”(85)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나의 이 대사는 권력에 대한 좌절과 포기라기보다는 인류가 자행하는 선과 악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이며,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폭력에 대한 성스러운 용서로 보인다. 아감벤이 말하는 진정한 주권자의 모습은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인류 보편적인 윤리와 원칙에 따라 주권 영역을 재정립하고 재설정하는 것이다.(149) 이러한 점에서 이 극의 가장 호모사케르적인 인물인 네나에게서 가장 윤리적인 주권자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주권자는 기존의 법

을 폐지 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법을 도입하여 소외된 이들을 받아드릴 수 있는 충분한 권리를 가진다. 네나는 “하루하루를 최선의 방법으로 내 삶을 꾸려나가고 싶다고 말한다.”(84) 이것은 호모사케르에게도, 호모사케르를 지정한 주권자에게도 삶을 수행해 나가는 최선의 윤리가 될 것이다.

딱 한번 올림피아와 네나는 주방과 창고를 벗어나 함께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다. 레티시아가 거실로 들어오고 네나는 그녀를 피하려고 하지만 올림피아는 그대로 있으라는 싸인을 보낸다.(86) 그녀들이 나누는 이야기는 내향성 손톱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손톱은 살을 파고 들어와 염증을 유발하고 자신을 괴롭게 만든다. 손톱이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 자기 스스로 과감히 손톱을 뽑아버려야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인용했듯이 알레호는 레티시아에게 “당신은 누군가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70)라고 질문했고, 결국 레티시아는 자신이 직접 올란도를 총으로 쏘 죽임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다. 그 순간은 올란도의 전유물과 같았던 폭력성이 자신에게도 존재함을 혹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함을 느끼는 순간이기도 하면서, 그녀 자신이 스스로 폭력에 맞서는 순간이기도 하다. 올림피아는 언제든 해고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그에게 저항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다. 네나는 가장 약한 존재였지만 가장 성자다운 모습으로 고통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견뎌낸다. 레티시아, 올림피아, 네나는 법의 경계선 밖으로 밀려나있는 별거벗은 생명이지만, 그 예외상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삶을 주체적으로- 적극적으로든, 소극적이든- 이루어내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V

인류의 긴 역사에는 수많은 호모사케르가 존재해 왔다. 물론 호모사케르와 같이 살해해도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불리한 처분이나 피해를 당해도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존재해왔던 것이다. ‘희생’이란 갑작스런 상황, 혹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함이지만 근대사회의 호모사케르는 주권자에 의하여 미리 예측된 예외상태를 가지게 된다. 아감벤이 모두가 모두에게 ‘누대’가 되는 자연 상태란 법의 제도 속에서 내제하며 언제라도 풀려 나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았듯이 (65)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우리가 사는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 극중

의 인물들이 올란도에 의해 당했던 폭력은 어떤 사회적, 도덕적 범의 매개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호모사케르적인 폭력이다.

앞서 포네즈가 자신의 극이 여성을 다루고 있다고 해도 여성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 바 있다. 결국 그녀의 주장은 자신의 극작품에 대한 바람직한 비평은 여성 등장인물들에게만 두는 여성 중심 비평이 아니라 남성 및 여성 모든 등장인물을 아우르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 중심 비평이라는 것이다.(황규철 122) 올란도는 극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에게 폭력을 가한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폭력으로 인해 각기 다른 결말을 가진다. 권력을 가진 주권자와 권력에 대항한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와 통찰은 인간의 일상적인 폭력성과 저항이라는 극의 주제에 한층 더 다가가기 쉽도록 도와준다. 작품의 제목인 ‘conduct’라는 단어는 네나의 독백에서 딱 한번 나오게 되는데 ‘삶의 수행’, 혹은 ‘삶의 구성’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 제목이 함축하는 의미는 그녀들이 그러했듯이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이다. 레티시아는 교육을 받길 원했고, 네나는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올림피아는 자신의 일을 하며 네나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길 원한다. 그녀들은 더 이상 수용소에 갇힌 별거벗은 생명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권력을 휘두르던 주권자가 없어졌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을 둘러싼 권력을 철저히 인지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범의 예외상태에 놓인 호모사케르가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가장 바람직한 저항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Works Cited

- 이형식. 「미국 연극에서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 현대 영미드라마 협회, 2003.
- 황규철. 「인간에 내제한 폭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현대 영미 드라마 협회, 2008.
- Fornes, Maria Irene. *Maria Irene Fornes plays*. New York: PAJ Publications, 1986.
- . “Creative Danger.” *The Theater of Maria Fornes*. Ed. Marc Robinson.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9. 230–33.
- Giorgio Agamben. 『호모 사케르』, 박진우 역, 새물결, 2008.
- Kent, Assunta Bartolomucci. *Maria Irene Fornes and Her Critics*. Westport:

Greenwood P, 1996.

Loger Trigg. 『인간 본성에 대한 철학적 논쟁』, 최용철 역. 간디서원. 1996.

Renganathan, Mala. *Understanding Maria Irene Fornes's Theatre*.
Champaign: Common Ground, 2010.

Abstract

The characters as Homo Sacre in Maria Irene Fornes's *The conduct of life*

Lee, Minah

This essay focuses on sovereign power by Orlando, a main character and resistance from the other characters in *The conduct of life*. However this study is not concentrated on feminism as usual but based on the concept of Homo Sacre which Giorgio Agamben takes to explain sovereign Power and bare life on his book. Homo Sacre originally from Roman Law is a person who may be killed by anybody but may not be sacrificed in a religious ritual. It means a person expunged from society and deprived of all rights and all functions on the status of an outlaw.

I can figure out the various forms of violence revealed by Orlando against the other characters who can be called bare life in the camp where is not a prison but is designated some areas by Sovereignty. Reckoning with the sovereign power, the women, Leticia, Olimpia, and Nena offer resistance to Orlando's violence by finding how to elude or deceive it in their own way.

Key Words

Maria Irene Fornes, Giorgio Agamben, Homo Sacre, sovereign power, violence, resistance

Nostalgic Landscape toward an Ambiguous National Identity: Yeats's *The Celtic Twilight* and Baek Seok's *Deer*

Kim, Dah

I

Nostalgia has existed since ancient era but there is a radical difference between nostalgia in ancient era and one in modern. From Homer's day to seventeenth century, ancient nostalgia shows the desire to return to homeland or homesickness which means 'yearning for home', 'longing for the place where someone does not belong at the moment'. In contrast, modern nostalgia could be the same way but usually indicates 'yearning for the past'. John Armstrong said "nostalgia can be defined, from the socio-historical viewpoint, as a persistent image of a superior way of life in the distant past"(*Nations Before Nationalism* 16). This alludes to the desire to escape from suffocating reality which makes the past, believed differ from the present, more captivating and fancier. By longing for the past, nostalgia, therefore, could be a fantasy. In respect of history, the past refined by nostalgia is far from the present, but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ideal future of the present. Nostalgia looks back and picks out the dim figures of the past, shining a flashlight named 'future', tied its body with the present. In this respect, Frizsche argues that "nostalgia is a sightfulness that gives meaning to experiences that might otherwise have gone unremarked"(*Specter of History* 1617). This means that remembrance makes experience in the past meaningful, and furthermore creates the past different enough from it would really be, in need of setting apart from present.

With ideas of ethnic election and their secular transformations, as with

memories of golden ages, a start has been made in establishing important cultural continuities, despite the breaks often introduced by conquest, colonization, migration, and assimilation. (Smith 24).

Under the yoke of colonization, both William Butler Yeats (1865–1939) and Baek Soek (1912–1996), one of Korea's most beloved and well-known poets, seek for the link between literature and national identity, and found in myth, folklore, and symbolic landscape, nostalgia, a subject ideally suited to expressing their respective efforts to discover a national character and spiritual foundation. This thesis aims to explore the working of nostalgia as a major driving force in locating, bringing in, and inscribing national history and territory in Yeats and Baek Soek Based on Yeats's poetry and his prose *The Celtic Twilight* (1893) and Baeks Seok's *Deer* (1936), I propose that in portraying the past, nostalgia in their works plays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core of national identity, and making it visible. Instead of simply creating a false memory or placing something in the past which might have been never there before, as often implied, nostalgia in their works integrate and differentiate the past between historical textuality and memorializing nostalgia. By attempting to recover the native space, practices, and objects in the past, Yeats and Beak Seok intervene the past as an effect of resistance to colo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explore the possibility of inhabiting multiple spaces simultaneously that does not fall into a national essentialism: their turn to nostalgic landscape contains ambivalent struggle between their efforts at cultural unity and the uncontainable problems of nation, tradition, and the role of memory.

II

After the death of the Irish leader Parnell in 1891, Yeats feels that Irish political life lost its significance and the vacuum left by politics might be filled by literature, poetry, and folklore. Through these, Yeats undertakes to build a legitimate Irish identity against the modern industrial and materialistic England. Striving for Ireland's independence, Yeats needs to

construct a true Irish culture without English or other influences. Yeats finds its possibility in Irish myth and folklore. Yeats argues against imperial England who demotes 'Irishness' to an appendage.

[...] folk art is, indeed, the oldest of the aristocracies of thought, [...] and because it has gathered into itself the simplest and most unforgettable thoughts of the generations, it is the soil where all great art is rooted. (*CT* 232-33)

In the wake of the Irish Literary Revival, Yeats struggles to revive the Irish heroes and retells entire folktales in epic poems and plays, such as *The Wanderings of Oisín* and *The Death of Cúchulainn*. He culls subjects, images, and themes from the Irish myth and folklore in his shorter poems like "The Stolen Child", "Who Goes with Fergus?", "The Song of Wandering Aengus" and so on. W. B. Yeats conceives of Irish identities being substantially dependent upon myth and folklore which produce and enforce a national identity through its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and coherent system of symbols. For him myth and folklore as a system of interlocking symbols constitutes the national machinery of a society works: myth as master symbol stitches together the symbolic strands into a significant whole making up national identity.

Myth and folklore for Yeats are also the tool for cultural unity of heterogeneous Catholic and Protestant Christianity that has divided Ireland. There are conflicts in Ireland between opposing factions; Unionists and Nationalists, Catholics and Protestants, English and Irish, and the rich and the poor. The Irish has been differentiated by the English, but in Ireland conflict also exists between Catholics and Protestants. Yeats struggles to open the Celtic past, make it pertinent to the present, and thus create a great art rooted in the soil of folk-belief before the time Ireland was divided religiously. The Celtic Ireland that Yeats envisages is a nation free of sectarian differences and conflicts politically and religiously. He regards ancient Celtic culture as "a Golden Age, to halcyon days before corruption

and equivocation permeated civilized life”(Armstrong 16). Going back to the Celtic past, the poet creates a cultural nexus around which various forces can congeal to resist colonialism. For Yeats, the nostalgia is temporal displacement of present political struggle as active attempt to present the national past and future that have publicly been rendered absent and ignored. Nostalgic return to the Celtic past enacts a national vision of a unified Irish state and culture: It is a kind of fundamental glue in the society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structure; the nostalgic past makes national bonds created and individuals joined.

Yeats's endeavor to draw past into present looks successful but brings about violent and irresolvable conflict behind such a nexus that nostalgic myth may offer. Nostalgic myth and folklore Yeats brings to establish the Irish identity involves some risk of totality.

[...] myth is a power more than it is a thing, an object, or a representation and designates identity as an exclusive difference, and its affirmation; mythical power is then power of the dream, of the projection of an image with which one identifies. (Nancy 305)

Yeats, in his hope of creating a 'golden bridge between the old and the new', is still paying homage to the past as center. This golden bridge would carry two-way traffic, not only from past to present, but also from present to past in a process which would reinvent that past. Crucially, he is not simply invoking the past, but rather transactionally reinventing that past in the light of his own 'ambiguous' sense of Irishness.

Strong, stable and unified myth that is central to the politics and culture of nation, however, could cause alienation. Not everyone could be a true citizen for unified history, and social exclusion from the standard he establishes as true Irish is one of inevitabilities of powerful history. To fix this problem, Yeats tries to present the Celtic peasants as the main characters of his story. The Irish peasantry and his folk tales are significant means for establishing a legitimate Irish voice. Yeats universalizes or even

naturalizes the peasants as a core of national identity between past and present. He continuously celebrates the peasant who cherishes ancient Ireland as well as traditional values, religious beliefs, and the spiritual. Immersing in the stories, the poet regards them as his own experience. Yeats collects folk tale spoken in Gaelic, and writes in English and in his own words, as 'Gaelic is my[Yeats's] national language but it is not my[Yeats's] mother tongue' (*Essays and Introductions* 520). His writing of folklore in English is a target of many criticisms but it is the most effective way for him to render Gaelic myth realistic. As another way to provide folklore with reality, Yeats attempts to illustrate the stories as episodic, temporal, accidental and adventitious, as though they happened in the real world.

For Yeats the Celtic past brought out to present in nostalgia is inherent unconsciously in the presents' lives and their Irish historical narrative. The peasant in Yeats's works, though presented a person, is not an individual who has own character, but a typical image and symbol of his ideal ancient Ireland, a part of imagined community. This unified category of the peasant is not real but simplified falling under the category of 'the folk'. This simplification of the peasants has the risk of obliterating the Irish rural life in reality as well as of ignoring the hard and brutal dimensions of their existence. In an attempt to attempt to locate and inscribe national history and territory by resorting to nostalgic landscape, Yeats inevitably faces the irresolvable problem that might engulf and destroy the political reality of actual inequality and exploitation from which Ireland and the Irish peasants have suffered.

III

Like Yeats who underwent the yoke of colonization, Baek Seok, born in 1912 not long after Japan colonized his country, experienced the process of colonial modernization and the spiritual impoverishment of the modern subject. Living on the horizon where the tradition was alienated and displaced, he was forced to enter the realm of colonial modernity as an

inevitable process of colonial formation. In order to resist colonization, Baek Seok, who studies Russian as well as English literature, translates a great deal of articles to find a mean to bring into the realm of poetry the colonial statu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tragedy of losing national sovereignty. One of his translations includes the critical works of Dmitry Petrovich Svyatopolk-Misky. The Russian critic writes on Irish literature influences the poet's idea of ethnicism and the vernacular. Baek Seok believes the vernacular can bear an ethnic identity: using the vernacular local landscape for poetic background may serve a vehicle for national character and identity. By utilizing the local names of places and by using the backdrop of the local countryside, he evokes the sanctity of land and a sense of tradition while inspiring the national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within the confines of the reality of colonialism. He presents local customs and convention, retells folksongs and folklore, and describes the world of local customs and conventions.

If Yeats conceives of a national identity through nostalgic revival of the grand history of Celtic Ireland reflected in myth and folklore, Baek Seok constantly returns to the concrete and immediate life in the recent but pre-colonial and pre-modern past. In his effort to maintain the cultural root, he often relates happy memories of childhood which are replete with sensual detail and the pervasive emotions of excitement, security, delight, and being loved. Shared memories for him are integral to cultural identity, meaningfully combining cultural diversity with unity, promoting a shared identity and carving the foundations of nation.

As in his "Relatives Who Lived Near Fox Valley" well shows, for example, families gather on New Year's Day to share memories and to enjoy traditional food and to play traditional game. In these almost stereotypical feasts among families, the community reconnects to the past as they re-enact what is a familiar experience. Baek Seok describes the retained local tradition and custom, vividly concentrating on ordinary things and acts that have not just done for a few days by a few people, but continuously since old days, by people who are enough to be called ethnic. The poet also

uses rich and vivid poetic imagery. Rather than visual or auditory imagery that implies distance from the described objects, he uses tactile, palate, olfactory imagery, transmitted only by direct contact with objects, as a vehicle for reconnection to and transmission of the past memory. Baek Seok fastens private practice with an ethnic convention, thereby ventilating an ethnic identity and universality among community. In "The Place called Ogeumdungee", for example, he evokes the local place intertwined with community memory at the heart, as "at every night a fox cries", "urinating on strewn red beans" vividly illustrates.

Baek Seok in his poetry constantly evokes the irrecoverable nature of the past for its emotional impact and appeal. He seizes on an object world of local place, ritual, images, and the ephemera of everyday life. For him, however, food is the most significance material evoking nostalgia that serves a reparative role for national memory: in an effort to maintain their cultural roots, on the special days, such as national holidays, a memorial sacrifice day, family members gather to share memories and to enjoy various traditional dishes. Food is an efficient tool for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happier times': it is tangible, renewable and easily transportable, and specialty dishes can be constantly reproduced across time, ready to evoke visceral memories in those who are feeling nostalgic. For Baek Seok food continues to provide the sensual link to a now absent and idealized past. In addition to bolstering communal memory, food is also strongly associated with memory in historical and autobiographical accounts of the pre-colonial and pre-modern world as a site of control, renewal, transmission, power over what is lost and forgotten.

Baek Seok's nostalgia, however, often remains episodic, personal and temporal, at risk of straying away from experience of community. To compensate for danger, he does not use the first person narrator "I", but instead sets forth ordinary people and children as main characters of his poems. The avoidance of "I" in his poetry, however, reflects his unconscious anxiety of colonial loss that could not remain personal but should resonate with the colonial realities publicly. In an attempt to see the past objectively,

Beak Seok often presents a child as the speaker of poem and its harmonious past. Such nostalgia dependent on a happy childhood inevitably makes the past more captivating and fancier, recreating a fiction. In fact, a child in his poetry often stays in public space like the rice field that calls up joint labor or family, or like a stone bridge that evokes intersection from one to another. Nostalgia for him serves to gloss over difference, paradox and conflict by constructing a harmonious past. This yearning may instigate his attempts to recreate an aspect of this past life by reproducing activities related to the rosy recollections of it, but his community memory is rarely the past as actually experienced. Despite with the very tangible and odors, the nostalgic past in his poetry is always imagined and idealized through his memory and desire. In this sense, his nostalgic landscape, now absent and idealized, works to understand the fragmented present state that impels him to resort to the collective and shared memories in which community are inevitably embedded.

Works Cited

- Armstrong, John. *Nations Before National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2.
- Fritzsche, Peter "Specters of History: On Nostalgia, Exile, and Modernity," *American Historical Review* 106 (2001): 1587 - 1618.
- Seok, Baek. *Collected Poems*. ed. Kim Jae-yong. Seoul: Silcheon. 2011.
- Smith, Anthony D. *Myths and Memories of the N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Nancy, Jean-Luc and Lacoue-Labarthe, Philippe. "The Nazi Myth". trans. Brian Holmes. *Critical Inquiry*. Vol. 16, No. 2 (Winter, 1990): 291-312.
- Yeats, W. B. *The Celtic Twilight*. London: A. H. Bullen. 1902.
- _____. *Essays and Introductions*. New York: Macmillan.

국문초록

노스텔지어와 민족 정체성: 예이츠의 『켈트족의 황혼』과 백석의 『사슴』

김 다

아무런 흠이 없는 과거, ‘황금시대’로 돌아가려는 열망은 노스텔지어를 만들어 낸다. 이는 힘들고 답답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다. 과거의 ‘황금시대’와 현재의 연결은 절대 복잡한 관계가 아니며, 단번에 연결된다. 노스텔지어는 미래를 앞세워 현재라는 연속적인 끈을 켜 채 과거의 경험을 추적한다. 커다란 역사적 서사에 잠식되었을 과거의 경험들은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행위를 통해 현재로 불러온다. 이 때문에 존재 자체를 느끼지 못 했던 과거는 사회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회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과거에 지녔을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위험 역시 있다.

아일랜드는 12세기 이후로 800년 가까운 세월을 영국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고, 예이츠는 과거의 영광을 간직한 아일랜드 고유의 신화나 민담을 민중들에게 전파하여, 민족적 자부심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하여 예이츠는 고대 켈트족의 삶을 “황금시대, 타락과 모호성이 문명화된 삶에 침투하기 전의 평온한 날들로” 설정한다. 예이츠는 진정성 있고 토착적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활용하여 순수하고 토착적이며 독특한 민족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했다. 이는 1893년 출간하고, 1902년 재출간한 『켈트족의 황혼』(*The Celtic Twilight*)에 잘 드러난다.

조선의 백석은 일본의 지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12년, 조선 평북 정주에서 태어났다. 그가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했던 1930년대의 후반은 ‘민족 말살기’로 통칭되는 시기였다. 이에 대한 반기로 민족 혹은 전통에 대한 관념은 정치적, 사회적인 강력한 도구로 작동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분위기에서 백석은 1936년 1월 20일 100부 한정으로 그의 첫 시집 『사슴』을 출간한다. 백석이 회상하는 ‘황금시대’는 식민지배 이전의 전근대적인 삶, 백석의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이다. 백석은 과거의 일화적인 사건들을 통해 과거를 현재로 불러들인다. 이는 더 큰 역사적 서술에 의해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던 문화에 대한 회상의 몸짓이라 할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노력이지만 이는 민족 공동체의 힘을 촉진한다. 에이즈와 백석 모두 민중에게서 공동체의 결속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이는 토착적인 장소, 익숙한 정경, 정서 등을 통해 발생한다.

주요어

노스텔지어, 민족 정체성, W.B. 예이츠, 『켈트족의 황혼』, 백석, 『사슴』

조라 닐 허스턴의 “The Gilded Six-Bits”에 나타나는 이중성

박 명 훈

I

문화인류학자, 민속학자, 소설가, 극작가 등 미국 흑인 사회의 문화적 아이콘으로서 다재다능한 흑인 여성의 모습을 보였던 조라 닐 허스턴(Zora Neale Hurston, 1891-1960)은 플로리다의 이튼빌(Eatonville)에서 목수이자 침례교회 목사이던 존 허스턴(John Hurston)과 주일 학교 교사인 루시 포츠 허스턴(Lucy Potts Hurston) 사이에서 태어났다. 하워드 대학교 (Howard University)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그녀는 이후 바나드 대학교(Barnard College)에서 저명한 인류학자인 프란츠 보아스(Franz Boas)의 지도 하에 인류학과 민속학을 연구하였고 다수의 소설, 희곡 작품과 흑인 민담집 등을 출판하였다.

1925년 뉴욕으로 건너간 허스턴은 2년여를 할렘에 체류하며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¹⁾의 대표 작가로 손꼽히게 된다. 랭스턴 휴즈(Langston Hughes)와 공동으로 창작한 희곡 작품인 『노새의 뼈』(*Mule Bone*)는 문단에

1) 니그로 르네상스(Negro Renaissance)라고도 불리는 흑인문예운동인 할렘 르네상스는 노예 해방 후 흑인들의 대이동의 결과였다. 아프리카, 서인도제도 등에서, 혹은 인종 차별 정책이 강요되던 억압적인 남부에서 자유와 더 나은 삶을 찾아 북부로 이주한 여러 계층의 흑인들이 뉴욕의 할렘으로 모여들었다. 할렘은 흑인예술가들에게 인종 문제뿐만 아니라 농업 중심의 남부 사회와는 다른 도시생활을 관찰하고 미국문학·음악·연극 등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여러 지식인들과 작가·음악가 등은 할렘에서 상호자극과 교류를 통해 미국 흑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원동력을 축적하였다. 이 운동은 다양한 형식적 실험과 아울러 흑인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양상을 보이면서 ‘흑인다운 것’을 발견하려는 노력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제 1차 세계 대전 이전 백인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던 동화주의 경향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자신들이 흑인이라는 점에 가치를 부여하는 민족주의 경향(nationalism)이 주를 이루었다. (최순근, ‘흑인 여성 문학의 해체적 정체성: 조라 닐 허스턴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 『수와니 강의 천사』, 『요나의 박 넝쿨』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9. 3쪽.

서 작가적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특히 그녀의 경험이 절게 녹아있는 단편들을 모은 『이튼빌 연대기』(*The Eatonville Anthology*, 1927)를 출판할 수 있었다. 시와 희곡 등 여러 영역을 넘나드는 문필작업에 전념한 그녀는 1933년 「도금된 동전」(“The Gilded Six-Bits”)을 스토리(Story)라는 잡지에 단편으로서 발표한다. 여러 권의 서적을 출판한 그녀는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Their Eyes Were Watching God*, 1937), 『수와니 강의 천사』(*Seraphon the Suwanee*, 1948), 그리고 『요나의 박 넝쿨』(*Jonah's Gourd Vine*, 1934) 등의 작품을 발표하며 유명인사가 된다.

그러나 허스틴의 문예활동은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된다. 이는 1929년의 대공황 이후 불황과 사회주의의 대두로 인해서 흑인 작가들의 작품에 담긴 인종정치학적 열망이 정치, 경제적으로 억압받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그녀의 위치를 자신들의 정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흑인 남성들과 백인 남성들 사이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대상으로 그녀를 보았기 때문이다. 뉴욕의 출판시장과 언론계, 평단 등을 장악하고 있던 백인 남성 지배세력은 인종과 계급이 결합하여 발생될 사회주의적 파괴력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백인들의 경제적 후원을 받으며 문예활동을 했던 허스틴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다른 흑인 작가들과는 대조적인 탈정치적 작가로서 위치 지워졌다(김준년 182). 이를 직접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1954년의 흑백 인종 차별 폐지(desegregation decision)를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그녀가 반대 의견을 피력하여 흑인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다.²⁾

당시의 흑인 문단은 흑백평등을 요구하는 과격한 정치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던 리처드 라이트(Richard Wright)와 같은 남성 작가들이 득세하던 시기였기에, 직접적인 정치적 동기를 표현하지 않고, 남부 노예 농장 문화를 흑인의 정신적 기원으로 재현하는 것으로 보였던 허스틴은 문단의 거센 비판을 받게 된다. 백인의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해 흑인의 타자성을 부각시킨 이국적(exotic)

2) 허스틴이 신문에 보낸 흑백 차별 폐지 반대 서한은 인종 차별주의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으며, 흑인들이 백인들과의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증거물로 이용하기 위해 남부의 신문사에서는 그녀의 편지를 대서특필하였다. 그러나 그녀가 흑백 차별 정책을 유지할 것을 주장한 이유는 흑백 인종 차별 폐지 조치 자체가 흑인들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열등함을 기정사실화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백인에 의해 끌려다니는 노새처럼 흑인 학생들이 백인 아이들과 선생님들에 의해 끌려가게 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흑인 학생들이 백인 학생들과 함께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들이 일방적으로 백인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과 백인들의 일방적인 연민의 결과물로서의 ‘흑백평등’을 거부한 것이다(최순근 4).

인 작품을 썼다는 비판이었다. 이는 할렘 르네상스의 대다수 흑인 남성 작가들이 지배계급인 백인과는 극명하게 대립되는 전형화된 흑인의 모습을 작품 속에서 구현하려 했던 것과는 다르게, 흑인의 전통과 가치관을 지닌 평범한 흑인을 작품에 담아내어 그것으로부터 긍정적인 흑인성을 도출하려 했던 그녀의 방법론 사이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던 문제였다. 이러한 흑인 문단 내의 갈등은 그녀와 리처드 라이트 사이의 논쟁으로 잘 드러난다. 라이트는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의 서평에서 허스턴이 구사하는 감각적 문제를 과거 백인들을 웃기기 위해 고안된 쇼의 기교로 격하시키면서 그녀의 등장인물들은 “웃음”과 “눈물” 사이의 안전하고 좁은 궤적 사이를 시계추처럼 왕복할 뿐 흑인 민중의 각성과 계몽에 필요한 어떠한 사상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허스턴은 1년 뒤 출판된 라이트의 『톰 아저씨의 자식들』(*Uncle Tom's Children*, 1938)의 서평에서 이 소설을 일말의 “이해심”도 “동정심”도 없이 “인종적 증오”만으로 가득 찬 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인의 책임을 무시한 채 “당의 결정”만을 절대시한 라이트의 공산주의 경도를 지적한다(김준년 184).

허스턴과 라이트 사이의 갈등이 내재하고 있는 쟁점은 흑인 또는 흑인성을 어떻게 재현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허스턴에게 사회기록소설을 쓸 것을 권했던 앨런 로크(Alain Locke)나 라이트 등을 위시한 당대 주류 흑인 남성 작가들은 흑인이 미국 사회의 희생자라는 생각을 품고서 이러한 불합리한 사회경제적 배치에 저항하기 위해서 가난과 폭력이 지배하는 흑인들의 삶과 백인에 대한 분노를 하나의 전형을 통해서 그려내길 원했고, 그러한 재현이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거부하는 흑인들의 실질적인 각성으로 현실화되기를 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리얼리즘적 전형성은 흑인들을 부정적인 어둠의 형상으로 표상하여 그들 스스로를 꺾박받고 고통 받는 운명 속의 존재로 고정시켜 버리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결핍과 고통의 형상을 흑인들의 표상에 부가함으로써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존재, 즉 긍정적인 한 명의 흑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아포리아로 귀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백인에 저항하기 위한 그들의 담론이 오히려 역으로 백인들의 흑백분리정책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서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 즉 흑인해방과 인간해방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예리하게 인식한 허스턴은 백인에 대한 강경한 투쟁을 선동하는 남성 작가들의 방식을 거부하고, 긍정할 수 있는 존재로서 흑인을 재현하길 원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나는 비극적 흑인이 아니다. 내 영혼에는 차오르거나 눈 뒤에 숨어 있는 커다란 슬픔도 없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나는 자연이 그들에게 가장 최악의 운명을 주었다고 믿거나 그것에 대해 상처를 입은 슬퍼하는 흑인에 속하지 않는다." (Hurston, *I Love Myself When I Am Laughing* 153)³⁾ 허스톤은 흑인이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존재임을 이튼빌을 떠나면서 강렬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흑인으로 다시 태어난 그녀는 인종이라는 범주가 사회 속의 개개인들을 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남성 작가들이 구체화시키는 전형적인 흑인의 모습이 만들어내는 고정관념으로는 개개인들의 차이들이 은폐되고 결국에는 비극적 운명에 사로잡힌 불운한 흑인의 모습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흑인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 피부색이 짙은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 가정 내에서 착취 받는 흑인 여성의 모습 등을 전형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흑인문학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인식을 동반한다. 그렇기에 그녀는 백인 중심의 미국 사회 속에서 하나의 흑인유형으로 고정되는 흑인의 모습이 아니라 미국이란 국가에서 살아가는 흑인의 다양한 모습을 그려내어 내부의 긴장과 복잡한 사회정치적 맥락을 형상화하려고 하였다.

허스톤이 자신의 흑인성을 긍정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인종 차별로 가득한 어두운 도시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전통이 남아 있는 미국 남부의 시골을 배경으로 하여 그들의 힘찬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⁴⁾ 그녀는 시골의 흑인 민중(rural folk)들에게 이러한 에너지와 문화적 진정성(authenticity)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허스톤의 전략에는 시골의 흑인들이 도시로 이동하며 자본주의적인 대중문화에 포섭되어 소모하게 된 그들의 문화적 형식들(특히 흑인음악)에 대한 보존의 욕망, 즉 잊혀져 가는 흑인들의 문화적 형식들을 기록하고 수집해야 하는 인류학자로서의 당위성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인류학적 요소는 허스톤의 문학 작품 생산에 상응하며 지식인으로서의 허스톤 자신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흑인 여성 비평가인 헤이즐 카비(Hazel V. Carby)는 허스톤이 목표로 삼았던 진정한 흑인성의 획득과 개인주의를 긍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의식의 구축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그

3) 구은숙, '조라 닐 허스톤의 「그들의 눈은 신비를 보았다」 : 흑인 여성 정체성 추구와 공동체', *영어영문학연구*, Vol.44 No.1, 2002. 36-7에서 재인용.

4) 해롤드 블룸(Harold Bloom)은 허스톤이 표상하는 이러한 생명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다(1).

녀가 어린 시절 체험했던 유토피아적인 남부 시골을 재구축함으로써 상상적으로 해소할 수 있었다고 보았다(27-8).

그러나 카비는 오늘날의 비평계에 있어서 허스턴의 작품에는 역사의식이 부재한다고 비판한 라이트의 비평이 무시되는 경향을 지적하며, 역사적 변화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흑인공동체를 재현함으로써 흑인 공동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생산하여 허스턴 자신이 피하고자 하였던 흑인 본질주의와 분리주의를 미학적으로 재생산한다고 비판한다(30). 허스턴이 목가적으로 그리고 있는 남부 흑인들의 삶은 실제 그들이 가난이나 질병, 폭력과 착취 등으로 고통받는 것이었음을 간과하기 쉽게 만든다. 행복한 남부 흑인 공동체로 재현된 작품의 이면에는 남부에서 북부로 대이동하며 도시로 이주해야 했던, 그리고 대공황과 가난, 인종차별 등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던 1930년대 흑인의 역사성을 은폐하고 망각시키는 효과가 존재한다. 이는 동시에 역사성과 정체성의 문제를 내밀한 사적 영역에 한정시키고자 한 그녀의 전략이 백인들의 인종 정치학 속으로 포섭되는 것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비판이다.

II

그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허튼슨의 「도금된 동전」을 읽으며 우리는 새로운 쟁점들에 눈을 뜨게 된다. 위에서 허튼슨에 있어서 인류학적 요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녀가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는 인류학자 또는 지식인이라는 입장은 그녀의 작품 속에 흑인 여성이 가지는 이중성으로 투영된다. 그녀는 흑인여성이자 동시에 지식인으로서 인류학이라는 ‘스파이 안경’을 쓰고서 흑인 공동체를 관찰하는 관찰자이다. 흑인 공동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원이자 동시에 그 공동체의 민중을 재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위치에서 거리를 두고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소유한 주체로서 이중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그녀는 이 둘 사이의 긴장과 혼돈을 복합적인 서사 양상과 시각적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대립으로 실천하고 있다. 소설 속의 화자는 표준 영어의 어법을 사용하는데, 이는 남부 흑인 사투리를 구사하는 등장인물들의 발화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화자의 논평과 등장인물의 발화가 구분되지 않는 순간이 나타난다. 인용부호를 달지 않은 등장인물의 생각이 화자의 입을 통해(비록 여전히 화자의 표준영어에 가까운 언어이지만)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의 시선을 통해 객관적인 거리를 상정하는 시각 이미지의 재현은 그들

이 사는 생활의 걸모습과 그 삶의 내용 사이의 거리를 생산한다. 냉정한 관찰자로서 화자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튼빌의 외면과 그들이 삶에서 겪는 괴로움과 복잡성이 충돌하는 것을 서술로서 재현하는 것이다.

텍스트의 표면적인 주제와 내면적 주제 사이의 긴장에서도 이러한 이중적 입장이 드러난다. 「도금된 동전」의 표면적 주제는 미시 메이(Missie May)와 조뱅크스(Joe Banks)로 대표되는 농촌사회의 가치관과 슬레먼스(Otis D. Slemmons)의 도시적 가치관 사이의 대립이다. 미시 메이와 조의 재결합과 출산은 외부의 위협에 대한 거부와 목가적인 가족의 아름다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 또한 이는 대도시로부터 이주해온 슬레먼스가 표상하는 백인화된 흑인성이 흑인공동체 사회로 침입하여 미치는 유해한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남편인 조로부터 무시당했던 미시 메이의 고난(travail)(The Gilded Six-Bits 734)은 조의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그 죄값을 치른다.

그러나 텍스트의 이러한 표면적인 정합성은 화자가 그들의 삶을 서술하며, 역설적으로 사용하는 “happy”라는 단어의 이중성으로 위협받는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화자는 “조와 미시의 집에는 행복한 무엇인가가 존재했다”(But there was something happy about the place)(727)라고 서술한다. 역접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but’은 그 행복한 무엇인가가 비료공장(G and G Fertilizer)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흑인공동체에 있을 수 있음을 또는 흑인들로 만들어진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서술한다. 그 행복한 무엇인가는 잘 꾸며진 도입부에 나타나는 파노라마적인 묘사에서 그들의 가정집의 걸모습으로 표현되며, 아름다운 미시 메이의 외모 역시 그 행복함을 구성하는 일부로 나타난다(그러나 역설적으로 미시 메이의 아름다움은 그녀가 부정을 저지르는 원인으로 작동한다). 조는 미시의 아름다움이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선언하며 자신들의 행복함과 그 아름다움을 과시하려 한다. 슬레먼스를 의심하는 미시의 주장을 묵살하며, 조는 미시의 아름다움을 슬레먼스에게 자랑할 것이라고, 그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운 여성이 슬레먼스가 자랑하는 도시의 여성들과 그가 가진 재산에 못지않는 것임을 증명하려 한다. 조는 미시 메이에게 슬레먼스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는(슬레먼스) 그의 예쁜 여자들에 대해서 말하곤 하지, 이번엔 내가 그에게 내 여자를 보여줄거야”(He talkin’ ‘bout his pretty womens - Ah want ‘im to see mine)(730).

슬레먼스는 백인 부자의 걸모습을 소유하고 있다. 그의 피부색이 백인과 같

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고 있는 옷과 번쩍번쩍하는 장신구들이 그를 부유한 백인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다. 조가 슬레먼스에게 자신의 행복함과 자신이 소유한 아름다움을 과시하려는 욕망은 조 자신이 슬레먼스를 만남으로 그가 표상하는 부유함과 백인성을 욕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며, 자신도 자랑할 만한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진다. 이는 단지 슬레먼스의 백인성에 대한 대응물로 자신의 흑인성을 미시 메이의 아름다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표상하는 백인성, 즉 훌륭하고 좋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는 백인(에 가까운 흑인) 자본가와 상보적 관계를 맺는, 훌륭한 것은 어느 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흑인 노동자의 흑인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슬레먼스의 백인성은 역설적이게도 거짓일 가능성이 큰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장된다. 슬레먼스의 말에 따르면 대도시의 백인여성들에게서 얻은 돈으로 그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소유할 수 있었고 그녀들이 그가 지금 걸치고 있는 귀금속들을 선물하였다고 한다. 조는 이러한 사실(거짓)들이 슬레먼스를 부유한 백인처럼 보이게 한다고 미시에게 말한다. “그것이 그를 부유한 백인 남자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지”(Dat make ‘m look lak a rich white man)(729).

조의 과시는 그가 가진 유일한 가치 있는 소유물을 슬레먼스에게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미시 메이가 슬레먼스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조의 만족과 행복의 근거는 그가 미시 메이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었다. 조는 미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내가 지금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어. 내가 당신의 남편이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 것도 신경 쓰지 않는다니까”(Ah’m satisfied de way Ah is. So long as Ah be yo’ husband, ah don’t keer ‘bout nothin’ else)(731). 조가 자신의 삶을 만족하도록 만들었던 미시 메이의 남편이라는 자랑거리는 미시 메이의 불륜을 발견하는 순간 그를 절망으로 빠뜨리고 만다. 여전히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는 미시 메이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조는 더 이상 행복하지도 만족스럽지도 않다. 이는 그의 행복함이 미시의 섹슈얼리티를 그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비료공장의 흑인 노동자인 조에게는 더 이상 그 자신만의 것,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소유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 자신이 배타적으로 소유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조는 마음 속에 분노만을 품은채 무기력하게 변한다. 아름다움으로 대표되던 조와 미시 메이 가정의 질서와 행복함이 슬레먼스의 출현과 미시의 불륜으로 파괴되어 버린 것이다.

조가 미시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녀에게 계속 분노한 이유는 그녀가 자신의 소유라는 사실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조가 이룩한 아름다운 가정의 토대와 그의 삶이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토대 역시 부정하는 것이기에 그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미시 메이의 불륜은 그녀와 조 사이의 관계가 인간적인 유대나 사랑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 사이의 아름다웠던 가짜 싸움처럼 거짓된 관계였음을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이 거리의 창녀와 같은 여자가 아니라 진짜 부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인 교환과 소유에 기반한 것이었다. 슬레먼스와 불륜이 목격된 뒤 울며 변명하던 미시 메이는 조에게 자신의 불륜이 그들 사이의 사랑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는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지 미시가 아직 알지 못한다며 그들 사이의 관계가 단지 사랑이란 가치로 맺어진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미시 메이, 무었에 대해서 울고 있지?”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이제 당신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조는 배가에 얼굴을 파묻고는 쉼 소리로 말한다. “당신은 그런 감정을 아직 알지 못해, 미시 메이.”

“Missie May, whut you crying for?”

“Cause Ah love you so hard and Ah know you don't love me no mo'.”

Joe sank his face into the pillow for a spell then he said huskily,

“You don't know de fellings of dat yet, Missie May.” (732)

조가 느낀 감정은 미시 메이가 자신의 사랑을 배반하였다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녀에게 던졌던 동전들처럼 그들 사이의 관계는 화폐를 매개로 사랑과 섹스를 교환하는 관계였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마치 칸트의 정의처럼 결혼의 근거를 상호 간의 결혼 상대에 대한 성적인 배타적 독점에 두었다. 조는 미시 메이에게 자신이 그녀 이외의 다른 여자들이 필요없음을 강조한다. 그러한 독점적 관계가 미시 메이의 배반으로 파괴되었기에 그 모든 잘못은 온전히 그녀에게 있고, 완벽했던 질서들 역시 파괴되어버렸다. 그러나 백인이나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슬레먼스의 가짜 금화를 욕망하고 그 욕망

을 그녀에게 주입한 것은 조였다. 미시 메이는 조에게 금화를 선물하기 위해 슬레먼스와 불륜을 저질렀다. 미시 메이를 남성들의 욕망의 대상으로 슬레먼스에게 소개하고 그와 그가 가진 것들을 욕망의 대상이 되도록 만든 것은 미시 메이가 아니라 바로 조의 행위였다. 미시에게만 강요되는 처벌은 정당하지 않다.

파괴된 그들 부부의 행복은 미시 메이의 출산을 통해 회복된다. 그러나 이는 둘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다시 단단히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부부의 모습은 허튼스의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에 나타나는 여주인공 제니의 결혼과 비교할 경우 더욱 비판적으로 보도록 만든다. 헬블링(Helbling)은 『그들의 눈은 신을 보고 있었다』에서 제니의 결혼은 그녀가 세상과 마주치면서 겪게 되는 자아 찾기의 사회적 형식이라고 평가한다(325). 제니는 세 번의 결혼과 이별을 통해서 결혼과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하여 그녀를 억압하는 굴레와 갈등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로부터 해방되어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된다. 그러나 조와 미시 메이 부부는 그들 사이의 결혼이 함축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 관계 속에서 안주하며 거짓된 행복을 연기한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출산을 통해 매끄럽게 회복되며, 미시 메이나 조는 그들이 겪었던 고통의 원인을 은폐하고 도금된 동전으로 사랑을 구매함으로써 다시금 시장경제의 그물망 속에서 교환관계를 이어간다. 실질적으로 그들의 계약관계는 결코 무효화된 적이 없었으며, 미시 메이의 임신과 출산은 그러한 계약관계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미시 메이는 조가 지불하는 동전들로 그녀의 섹슈얼리티가 아니라 다른 상품을 제공하였기에 그는 다시금 삶을 만족하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다. 이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조의 소유물인 그의 분신, 그의 자식이다. 조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바로 조의 것임을 선언하며, 조가 아들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고 이제 이 아이는 조가 자랑스러워할 대상이라고 이야기한다.

“너는 네 자식에 대해서 묻지를 않는구나, 조. 너는 자랑스러워해도 된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바로 아들 너의 모습을 아주 쏙 닮았기 때문이다. 바로 네 자식이야. 네가 다른 아이를 가지지 않는다면, 애가 바로 네 것이지. 그래서 나도 이리 자랑스럽다는 것을 너도 알겠지, 아들이야.”

“You ain’t ast ‘bout de baby, Joe. You oughter be mighty proud cause he sho’ is de spittin’ image of yuh, son. Dat’s yourn all right,

if you never git another one, dat un is yourn. And you know Ah'm mighty proud, too, son," (735)

자식의 출산으로 조의 세계는 다시금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한다. 부부 사이의 즐거운 거짓 놀이들 역시 다시 시작한다. 존스(Sharon L. Jones)는 허스틴이 부부 사이의 거짓 놀이를 통해서 사랑과 돈을 훌륭하게 연결지었다고 평가한다(52). 다시 반복되는 거짓 놀이는 사랑과 화폐 사이의 관계가 정지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그녀는 주장한다(53). 거짓 놀이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미시에게 줄 물건들을 사기 위해 아주 오래간만에 조는 올랜드(Orlando)로 간다. 조는 슬레먼스에게서 얻은 도금된 동전으로 아이에게 줄 캔디를 산다. 점원은 50센트 어치 캔디는 너무 양이 많다며 초콜릿도 함께 살 것이 어떠냐고 묻지만 자신의 자식이 먹기에는 캔디가 더욱 좋다며 조는 도금된 금화를 모두 캔디를 사는 데 쓴다. 이는 조가 물건을 사는 것의 직접적인 목표가 아이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캔디를 사고 떠나는 조를 바라보며 점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도 이런 흑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항상 웃고,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잖아”(Wisht I could be like these darkies. Laughin' all the time. Nothin' worries 'em)(735). 흑인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는 점원의 말은 그 자신이 흑인이 아닌 백인임을 보여준다. 백인이 바라보는 흑인의 관점을 이 점원의 대사가 드러낸다. 그들은 별 걱정 없이 하루하루 웃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백인이 보기에 흑인들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백인들은 불행하고 흑인들은 행복하다는 뜻일까? 이 백인 점원이 보기에 자신은 너무나도 걱정할 것이 많고 그에 반해서 흑인들은 웃으며 엉뚱한 일 따위나 별이는(여기서는 동전을 도금하는 것으로 도금을 하더라도 금화의 가치를 가지지는 않기 때문에 위조화폐로서는 통용되기 어려워 장난처럼 보인다) 심각함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 작품에서 도금한 동전이 의미하는 것은 백인의 겉모습으로 도금한 흑인이다. 그리고 동시에 행복함으로 도금한 흑인 역시 의미한다. 이는 행복함과 아름다움(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이 흑인들에게는 없음을 또한 그러한 행복함은 백인적인 것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내용물, 즉 화폐를 구성하는 물질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가치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관습과 규약에 따라서 (교환)가치가 존재한다는 화폐의 물신성이 더욱 확장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서 미국 사회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흑인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자본주의적 교환원리는 도시적 가치를 구현하는 슬

레먼스에게만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흑인공동체 내의 순진한 그리고 겉으로는 행복하게 보이는 흑인 노동자들 내부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본 작품은 보여준다. 겉으로 드러나는 대립구도, 즉 이튼빌의 순진한 흑인들과 도시적 가치와 거짓에 물든 백인화된 흑인들 사이의 이분법이 그들 미국의 흑인들 사이에서 존재론적 대립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 그러한 이중성 위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 아이에게 줄 선물로 초콜릿이 아니라 “키스 사탕”(candy kisses)(735)을 선택하며 자신은 슬레먼스에게 속지 않았다고 허세를 보이는 조의 모습은 그러한 이중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다. 초콜릿이 암시하는 흑인성을 거부하며 또 다른 가짜(가짜 키스와 같은 사탕)를 도금된 동전으로 구매하는 조는 그가 여전히 백인성을 좇고 있음을 증명한다. 백인으로 대표될 수 있는 중심의 존재와 긍정적 가치들의 소유는 그와 대립되는 장소에 배치되어 있는 흑인들로 하여금 백인의 가치를 위조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적 배치와 상호 규정은 실상 그들의 중심에는 뚜렷한 긍정성이 존재하지 않는 텅빈 것임을, 그렇기에 흑인들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분열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허스턴은 「도금된 동전」을 통해 꼬집고 있다.

III

「도금된 동전」의 작품 분석에서 보았듯이 텍스트의 이면적 주제인 흑인 공동체 내의 경제적 불평등과 억압적인 성역할의 위계성은 도시적 가치의 대립쌍으로 보이는 흑인 농촌사회의 기저에 놓인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불평등임을, 그리고 이는 인종주의적 대립과 공명하는 것임을 증명한다. 또한 그들의 행복한 겉모습은 실제로 위조된 슬레먼스의 금화처럼,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독자에게 제시한다. 경제적 교환으로 사랑과 섹스를 바라보는 미시 메이와 조 뱅크스는 그들과 대립하는 슬레먼스가 표상하는 교환과 매매를 기본원리로 삼는 자본주의적 인간관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다. 이는 본 작품을 “위조”(Counterfeiting)의 모티프로 해석한 저먼(Norman German)의 비평이 바라보듯이 그들의 행복한, 걱정없는 삶이 하나의 ‘위조’이기 때문이다(6). 그들의 행복한, 걱정 없는 삶은 하나의 ‘위조’로서 은폐된 흑백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과 분열된 이중적 의식을 그려낸다.

Work Cited

- 구은숙. 「조라 닐 허스턴의 『그들의 눈은 신비를 보았다』 : 흑인 여성 정체성 추구와 공동체」. 영어영문학연구, Vol.44 No.1, 2002. 33-61.
- 김준년. 「조라 닐 허스턴의 『그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네』를 논하는 부담과 읽는 즐거움」. 안과 밖, Vol.23, 2007. 178-95.
- 헬블링, 마크. 『할렘 르네상스 : 개인과 집단』, 이경식 역,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 2007.
- Bloom, Harold. 'Introduction', in *Zora Neale Hurston*. New Edition. Infobase Publishing. New York. 2007: 1-6.
- Carby, Hazel V. "The Politics of Fiction, Anthropology, and the Folk: Zora Neale Hurston", in *Zora Neale Hurston's Their Eyes Were Watching God*, New Edition.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Harold Bloom. Infobase Publishing. New York. 2008: 23-40.
- German, Norman. "Counterfeiting and a Two-Bit Error in Zora Neale Hurston's 'The Gilded Six-Bits'" *Xavier Review* 1999 pp. 5-15.
- Hurston, Zora Neale. "The Gilded Six-Bits." in *The American Short Story And Its Writer: an Anthology*. Charters, Ann. Boston, MA: Bedford/St. Martin's, 2000.
- Jones, Sharon L. *Critical companion to Zora Neale Hurston : a literary reference to her life and work*. New York : Facts On File, 2009.

Abstract

The duplicity in Zora Neale Hurston’s “The Gilded Six-Bits”

Pak, Myunghun

This essay focuses on the duplicity in Zora Neale Hurston’s “The Gilded Six-Bits”, especially referring to the one of African-American community. The idea of love or marriage and sexuality as an economic exchange serves as a main topic of text analysis, which tells that the adultery of main character Missie May who is the wife of Joe Banks symbolizes the duplicity of African-American community. Joe plays the role of a devoted husband who suggests a commodification of their marriage and desire to be like Otis D. Slemmons who deceives them into thinking he has great wealth as much as a white rich man. Ironically, it is Joe who makes Missie May commit adultery with Otis and then they realize that he is only pretended to be rich. This reveals that naive African-American family has the duplicity in their mind that is they want to become like a rich white man and richness and being means whiteness and poorness and nothing means blackness. Their happy life is a sort of counterfeit and their reconcile may be a fake which is concealed under the discrimination of white and black and it is the large obstacle to get emancipation of people whoever he or she is black or white.

선어말 어미 ‘-겠-’의 번역 양상 - 화용적 의미 중심으로 -

김 영 주

1. 서 론

한국어와 영어처럼 상이한 두 언어 간에는 형태적 대응(formal correspondence)이 성립되기란 쉽지 않다. 첨가어적 특성을 가진 한국어는 ‘조사, 어미’와 같은 의존형태소가 발달되어 한 두 개의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하여 ‘시제(tense), 상(aspect), 양태(modality)’ 등의 문법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영어는 굴절어로 어형변화를 통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어 선어말 어미는 의존형태소로서 복수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해당 언어의 문화나 규범 등 언어외적 요소들이 개입되면서 이를 나타내는 의존형태소가 특정 담화상황에서 화용적 기능도 수행한다. 이러한 두 언어 간의 내·외적 차이로 인하여 한국어 의존형태소는 영어에서 형태적 대응 성립이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어 의존형태소는 단일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작용역이 넓고 복수의 문법적 범주에서 다의어(polysemy)적 성격을 띠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번역과정에서 실무번역가가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 나무, 책상, 매우’ 같이 단독으로 단어 성립이 가능한 자립형태소는 도착 언어에서 대응하는 형태소를 식별하기 쉽다. 반면, ‘-시-’, ‘-겠-’, ‘-더’와 같이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단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존형태소는 어떤 형태소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도착 언어에서 대응 형태가 다른 층위 또는 랭크에 속한다면 번역과정에서 식별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의존형태소인 한국어 선어말 어미 ‘-겠-’을 중심으로 의존형태소의 화용적 의미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겠-’의 화용적 의미는

‘-겠-’의 양태적 의미에 기인한 것이므로 먼저 ‘-겠-’의 양태적 의미를 분석한 후 ‘-겠-’의 화용적 의미를 논의한다. 또한 ‘-겠-’의 화용적 의미는 공손성(politeness)의 원리로 설명될 수 있으므로 영어와 한국어의 공손개념을 정립하고 공손표현을 살펴본다. 그리고 ‘-겠-’의 양태적 의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르별로 추출한 ‘-겠-’의 공손성을 논의하고 도착 텍스트에서도 공손성이 실현되었는가를 살펴본다.

‘-겠-’은 국어학과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용언에 첨가되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반면, 번역연구 분야에서는 ‘-겠-’의 양태적 의미에 의한 공손성 번역 양상을 논의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문법적 화용적 범주와 관련된 일부 연구에서 ‘-겠-’의 번역에 관해 언급되고 있으나, ‘-겠-’에 관한 연구 자료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의 공손개념과 표현을 정립하고 ‘-겠-’의 화용적 의미 번역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두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고 번역과정에서의 ‘-겠-’의 화용적 의미 처리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로 본다. 또한 아직 번역연구 분야에서 ‘-겠-’의 번역 양상에 관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가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겠-’이 번역과정에서 형태적 대응으로부터 이탈 즉 번역 변이(translation shift)발생이 불가피함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 상이한 두 언어 간에 형태적 대응 성립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겠-’이 영어의 다른 층위 혹은 랭크에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겠-’의 화용적 의미는 언어외적인 요인이 개입되면서 영어에서 대응 형태가 공손표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2. ‘-겠-’의 양태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

양태는 화자가 발화 상황에서 한 문장의 의미 내용, 즉 명제(proposition)에 대한 사실적 의미를 기술하거나 발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적 태도를 표현하는 의미 범주를 양태라고 일컫는다. Lyons(1977: 452)는 양태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나 명제가 기술하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범주’라고 정의 했다.

한국어 선어말 어미 ‘-겠-’은 주로 추측과 의지라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 이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

성과 추측, 가능성과 능력, 가능성·능력과 추측의 구분은 그 경계가 모호하고 학자마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관용적 용법의 ‘-겠-’은 추측 또는 가능의 의미로 보는 학자들이 있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겠-’의 화용적 의미는 공손성이라는 화용론적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겠-’의 추측과 의지의 의미가 양태표지로 사용될 때 ‘-겠-’은 공손성을 나타낸다. 추측의 ‘-겠-’은 확실한 경우나 단언적인 사실인데도 화자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불분명한 의미를 가진 추측의 ‘-겠-’을 사용하여 청자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공손표현이다. 이는 Brown & Levinson(1987)이 제시한 공손 전략 중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말하라’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의지의 ‘-겠-’은 청자에게 체면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 청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화자의 의도 혹은 의지를 표현하는 진술, 명령, 요청, 제안, 권유, 거절 등의 화행에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간접적으로 공손성을 드러낸다. Brown & Levinson(1987: 24)은 명령, 요청, 제안, 충고 등의 특정화행은 청자의 미래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화행으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청자의 소극적 체면위협행위에 대한 전략으로 소극적 공손 전략이 사용되는데 이 중 ‘부담을 최소화하라’ 전략을 위해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양태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다.

3. 화용적 의미 ‘-겠-’의 영어 대응 개념

Brown & Lavinson(1987: 70)은 그들의 공손이론에서 화자가 체면을 손상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언어 전략을 도모할 때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양태조동사를 비롯하여 양태부사들을 사용한다고 밝힌다. 특히 체면위협행위가 수반될 수 있는 명령, 지시, 요청, 부탁, 허가, 제안, 충고 등의 화행에서 강요되는 힘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양태표현들은 소극적 공손 전략에서 체면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직접화행을 피하고 간접화행으로 자신의 의사를 우회적이고 간접적으로 표현하려한다. 이것은 간접화행이 청자에게 공손하게 들리고 부담을 덜 주기 때문이다. Leech(1983)는 발화가 모호하고 간접성을 지닐수록 더 공손하고 발화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표현될수록 덜 공손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발화가 직접성을 지닐수록 의미가 명료하고 체면손상의 위협이 강하나, 발화가 간접성을 지니면 청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으로 체면손상의 위협이 적어

진다는 것이다.

‘-겠-’의 양태적 의미인 추측과 의지는 추측이라는 불확실성을 통해서 공손성을 나타낼 수 있고 의지는 특정 화행에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공손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Brown & Lavinson(1987)의 공손 전략 중 ‘자신의 의견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말하라’와 ‘청자의 부담 줄이기’와 관련된다 할 수 있고 이는 소극적 공손 전략으로 양태조동사를 비롯한 양태표현들 사용과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영어권에서 양태표현의 주요한 방식들은 양태조동사(modals)와 양태준조동사(quasi-modals)이다(Collins 2009). 그 밖에 명사, 부사, 형용사, 양상 부가어(I think, I guess), 양상 첨사(too, so) 등의 어휘로 양태를 나타낼 수 있고 동사 굴절을 통한 형태적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겠-’이 영어의 양태표현 형식들과 대응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에 층위의 변이(shift of level)¹⁾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겠-’이 용언과 결합함으로써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존형태소이지만 영어의 양태(준)조동사 그 외 양태를 표현하는 어휘들은 자립형태소로 단독으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의존형태소인 ‘-겠-’이 영어의 양태표현인 삽입절로 실현된다면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에 랭크의 변이(rank shifts)²⁾도 발생 가능하다.

4. 텍스트 분석

분석대상 텍스트는 문학작품으로 박완서 소설 『나목』, 영화자막으로 육상효감독 〈방가? 방가!〉, 이환경감독 〈7번방의 선물〉, 중앙데일리의 신문사설 다수를 출발 텍스트로 하고, 『나목』의 영어 번역본 유영란의 『*The Naked Tree*』, 영화 자막 영어 번역본 〈Banga? Banga!〉 〈Miracle in cell no. 7〉, 중앙데일리 전문번역가의 해당사설 영어번역본을 도착 텍스트로 선정하였다.

‘-겠-’은 구어 형태의 텍스트와 문어 형태의 텍스트 간에 사용빈도와 양상이 같음을 전제할 수 없다. 따라서 텍스트 유형에 따른 ‘-겠-’의 번역 양상을 확인

1) Catford(2000: 141)는 어떤 언어에서는 문법인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어휘로 분류되는 경우를 층위의 변이라 한다.

2) Carford(2000: 145)는 문장, 구, 어군, 단어, 형태소 등의 언어적 단위가 상이한 경우를 랭크의 변이라 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Reiss(2000)는 번역을 위한 텍스트 타입을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이 분류에 따라 표현적(expressive) 텍스트로는 『나목』, 시청각미디어(audiomedial) 텍스트로는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 정보적(informative) 텍스트로는 중앙데일리의 신문사설을 선정하였다.

각 장르의 텍스트에서 ‘-겠-’이 포함된 절 또는 문장을 추출하여 ‘-겠-’의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분석한 후, 해당 의미의 ‘-겠-’에 대응하는 도착 텍스트에서 형태를 찾아 어떤 번역 변이가 발생하는가를 논의한다. 그리고 ‘-겠-’의 공손성이 도착 텍스트에서 실현되었는가를 분석한 후, 번역 양상을 살펴본다.

먼저 ‘-겠-’의 공손성은 양태적 의미인 추측과 의지에 기인하므로 ‘-겠-’의 추측과 의지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정목(2014: 21-29)), 박재연(2006: 106-128)), 고영근(2004: 255-264))의 ‘-겠-’의 통사적 특징에 관한 연구들을 통합하여 ‘-겠-’의 추측과 의지 의미별 문법적 특징을 〈표 1〉에 제시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고자 한다.

〈표 1〉 ‘-겠-’의 추측과 의지 의미별 문법적 특징

	양태적의미	추측	의지
주어 인칭	1	x	o
	2	o	o
	3	o	x ³⁾
가능 시제	과거	o	x
	비과거	o	o
서 술 어	동사	o	o
	형용사 /지정사 ⁴⁾	o	x

출발 텍스트에서 총 206개의 ‘-겠-’이 포함된 절 또는 문장을 추출하여 추측과 의지의 의미 ‘-겠-’을 분석하여 그 사용 양상을 장르별로 살펴보면, 『나목』에서는 총 114개의 ‘-겠-’ 중 추측 50개, 의지 55개로, 〈방가? 방가!〉 〈7번방

3) 일부 학자들이 주어 3인칭인 경우 간접인용에서 가능하다고 하나, 서정목(2014: 25)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 인용되기 전인 직접화법에서 추측의 의미이므로 간접인용이지만 양태 담지자는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4) 지정사는 ‘이다’하나 뿐이다. ‘체언+이다’ ‘부사+이다’의 형태로 서술어가 된다(김종록 2008: 202).

의 선물〉에서는 총 67개의 ‘-겠-’ 중 추측 23개, 의지15개로, 중앙데일리에서는 총 25개의 ‘- 겠-’ 중에서 추측 13개, 의지 12개로 분석되었다.

‘-겠-’의 양태적 의미에 대응하는 도착 텍스트의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고자 영어의 양태조동사의 의미와 분류를 참조로 하여 인식 양태조동사와 비인식 양태조동사(의무 양태, 동적 양태)의 통사적 특징(이창희 2000)을 근거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영어 양태조동사의 통사적 특징(이창희 2000)

		인식 양태조동사	비인식 양태조동사
	의미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 미래예측, 필연성, 가능성	주어의 의지, 의무, 허가, 능력
부정어 not의 작용역	조동사 부정	작용역 없음	의지(will/would/shall) 의무(must/should) 작용역 없음, 허가, 능력의미의 경우 작용역 있음.
	본동사 부정	작용역 있음	작용역 있음
수동화	상태동사	가능 : 현재	통례 없음
	동작동사	가능 : 미래의 동작이나 사건	가능:: 미래의 동작이나 사건 ⁵⁾
문장 형태	평서문	가능	가능
	의문문	통례 없음 ⁶⁾	가능
조건절		통례 없음 ⁷⁾	가능

86개의 추측의 의미 ‘-겠-’은 양태조동사〉 생략〉 기타〉 양태준조동사, 82개의 의지의 의미 ‘-겠-’은 양태조동사〉 생략〉 양태준조동사〉 기타 순으로 도착 텍스트에서 대응을 이루고 있다. 출발 텍스트에서 ‘-겠-’은 용언의 어간에 첨가되는 구조이나 도착 텍스트에서는 주어 다음에 양태조동사가 위치하기 때문에 구조적 변이는 불가피하다. 또한 의존형태소인 ‘-겠-’이 도착 텍스트에서 자립형

- 이창희(2000)는 의지 ‘will’, 허가 ‘may’, 강제 ‘must’는 수동화에 의해 문장의 뜻이 변하며, 인식 양태조동사는 수동화에서 의미변화가 없다고 밝힌다.
- 이창희(2000)는 인식 양태조동사가 유표적 환경에서 의문문 발생이 가능한 경우를 ①청자의 평가를 듣고 싶을 때 ②상대방의 평가에 반론하여 의견을 고치도록 하는 경우 ③명제내용에 대해 불확실이나 의심을 느끼면서 자문하는 경우로 밝히고 있다.
- 이창희(2000)는 예측가능성 ‘will’은 직설법보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낮을 경우 ‘should’는 조건절에서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태소인 양태조동사 혹은 어휘로 대응되면서 층위의 변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겠-’이 우연적 형식을 띠는 양태준조동사나 삽입절로 대응되면서 랭크의 변이로도 나타난다.

추측과 의지 ‘-겠-’의 양태적 의미 분석을 근거로 하여, ‘-겠-’의 화용적 기능인 공손성을 논의하기 전에 한국어에서 경어법을 통한 공손성과 ‘-겠-’이 나타내는 공손성의 구별이 필요하고 공손표현의 대상 범위 설정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겠-’의 공손성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화행인, 명령, 요청, 거절, 제안, 권유 등에서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공손표현으로 나타나므로 ‘-겠-’의 공손성 분석을 위해서 한국어 화행유형 설정에 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에서 경어법을 통한 구별적 공손표현은 ‘-겠-’ 단독으로 나타내기 힘들고 높임을 나타내는 다른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와의 결합에 의해서 공손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추측이나 의지라는 양태의미에서 확장된 ‘-겠-’의 공손표현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경어법으로 나타나는 공손표현은 화용적 의미 분석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다.

또한 공손표현은 공손표현의 대상이 존재하여야 성립된다고 생각하여 화·청자 간의 대화에서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문학작품이나 신문사설의 경우 저자는 불특정다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쓰기를 하기 때문에 작품 속 인물의 대화가 아니더라도 저자가 독자에게 공손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허상희(2009)는 어떤 문장이나 발화라도 청자가 없는 문장이나 발화는 없다고 하면서, 신문기사, 구호, 기도문 등도 불특정 다수의 청자가 존재하며 절대문의 경우에도 청자가 불특정다수라고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측과 의지의 ‘-겠-’이 갖는 공손성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특정 화행에서만 나타난다.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화행으로 진술, 요청, 제안, 거절, 권유, 명령 등이 있다(이혜영 1995, 전혜영 1995, 박선현 2008). Brown & Levinson(1987: 24)은 명령, 요청, 제안, 충고 등의 특정화행은 청자의 미래행위를 서술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화행으로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한다.

먼저 추측의 ‘-겠-’이 포함된 발화의 화행을 분석하고 도착 텍스트에서 화행 변화가 있는가를 살펴본 후 청자에게 부담을 주는 화행들을 따로 분류하여 도착 텍스트에서 양태표현으로 공손성이 나타내는가를 살펴보고 양태표현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 다른 기제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겠다. 또한 장르별 공손성의 정도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표 3〉의 추측의 ‘-겠-’의 화행을 살펴보면, 추측의 ‘-겠-’이 포함된 발화의 화행은 『나목』은 진술〉 질문,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은 진술〉 질문 순으로 나타났고 중앙데일리에서는 진술화행만이 나타났다.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에서 주로 진술화행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식 양태로써 추측 ‘-겠-’의 의미는 발화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로 예측, 가능성, 확실성의 정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지기 때문이다.

〈표 3〉 추측 ‘-겠-’의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화행

화행	나목		방가/7번		중앙데일리	
	ST	TT	ST	TT	ST	TT
진술	37	41	19	20	13	13
질문	13	9	4	2	-	-
명령	-	-	-	1	-	-
계	50	50	23	23	13	13

총 86개 추측의 ‘-겠-’의 화행분류를 통해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진술 화행 69개를 따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한 추측 ‘-겠-’ 사용은 도착 텍스트에서도 불확실성의 추측의 의미가 사용되어져야 공손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표 4〉에서 추측 ‘-겠-’은 인식 양태조동사 would〉 will〉 can〉 could〉 must〉 might〉 may 순으로 대응되면서 대부분 공손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must’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인 확신(Collins 2009: 39) 또는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떤 명제에 대한 화자의 확실한 결론(정희자 2005)을 나타내는 양태조동사이므로 도착 텍스트에서 불확실성의 의미값을 갖는다고 볼 수 없어 공손성을 갖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표 4〉 진술화행에서 추측의 ‘-겠-’에 대응하는 도착 텍스트의 양태조동사 사용빈도

도착 텍스트의 양태조동사	사용빈도
will	10
would	12
can	7
could	6
may	2
might	4
must	5
계	46

- (1) a. 어머니가 밤새 얼마나 기다려셨겠어요. (나목)
 a'. Your mother must have waited for you last night.
 b. 뭘 잘못 봤겠지 뭘 잘못 봐. 여기 봐봐 여기. (방가? 방가!)
 b'. Your eyes must be funny.. My eye sight is fine. Look here.

(1a)는 이경과 옥희도씨 부인의 대화이다. 옥희도의 부인은 이경과 거리가 있는 관계이며 이경이 옥희도씨 직장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단언적인 표현을 피하고 추측의 ‘-겠-’을 사용하고 있다. (1b)은 방태식과 친구 용철 간에 대화로 태식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용철의 집에 기거하면서 신세를 지는 입장이자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추측의 ‘-겠-’을 사용, 공손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1a',b')에서 ‘must’를 사용하여 단정적인 사실로 표현하고 있어 (1a,b)의 ‘-겠-’의 공손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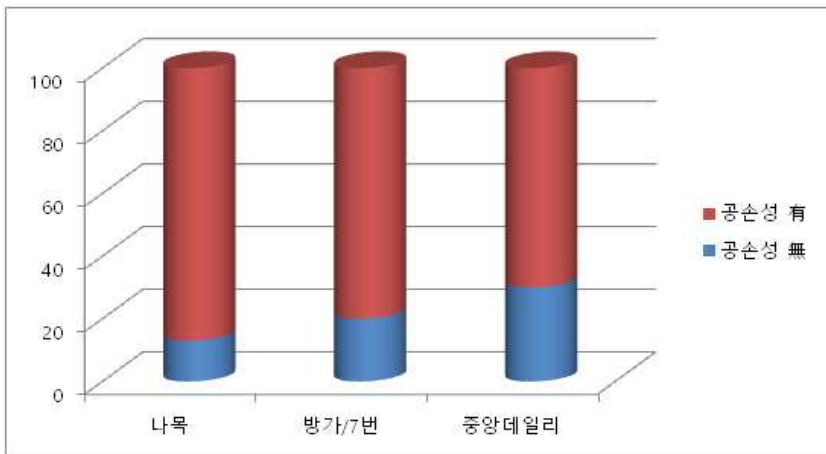
〈표 5〉에서 추측 ‘-겠-’은 도착 텍스트에서 주로 양태 조동사로 공손표현이 실현되고 있으며 어휘 또는 삽입절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도착텍스트에서 양태표현이 생략된 경우 다른 형식을 통해서 공손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생략된 16개 중 1개가 다른 형식으로 공손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5〉 추측 ‘-겠-’의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실현형태와 공손성 유무

화행	공손 유				공손 무				계
	양태 조동 사	양태 준조 동사	기 타	생 략	양태 조동 사	양태 준조 동사	기 타	생 략	
진술	41	-	7	1	5	-	-	15	69

- (2) a. 한국인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방가? 방가?)
 a'. You could say that it's the spirit of all Koreans.
 b. 미국 일본 등의 국제 사회가 흥분하겠지만... (중앙데일리)
 b'.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ould protest...
 c. 그럼, 저에게 긴 미래가 없다면 괜찮겠군요. (나목)
 c'. But, if it's my fate to live a short life, that's all right, isn't it?

(2a)은 방태식이 용철의 노래방에서 이주노동자에게 노래지도를 하는 장면으로 아직 서로 친밀도가 약하고 이주노동자로 갓 취업한 태식은 이주노동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모색하는 중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겠-’을 사용 간접적으로 공손성을 나타내고 있다. (2a’)에서 ‘could’을 사용하여 공손성을 나타낸다. (2b)는 북한 정권 붕괴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 중국이 병력을 북한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경우 미국과 일본의 태도에 대한 글쓴이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제 정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정적인 입장을 글쓴이가 취하기엔 부담스러워 불확실성의 ‘-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2b’)에서 ‘would’로 나타면서 부담 줄이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2c)는 이경이 옥희도씨에게 고백하는 장면이다. 옥희도씨는 이경보다 나이가 훨씬 많을 뿐 아니라 이경에게는 아버지와 두 오빠를 대신하는 존재로 이경이 존경하는 대상이다. 둘의 관계는 가깝고 직장동료로서 동등한 입장이지만 이경의 입장에서는 존경의 대상인 옥희도씨와 약간의 거리가 있는 관계이다. 따라서 이경이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겠-’을 사용,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c’)에서는 대응되는 양태표현은 없지만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겠-’의 공손의미를 살리려고 한 것으로 생각된다. 손중동(2005)은 청자의 이해를 간청하기 위해서 부가의문문을 사용한다고 밝힌다.



〈그림 1〉 추측 ‘-겠-’의 장르별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표현 유무

〈그림 1〉에서 추측 ‘-겠-’은 『나목』에서 약 86%, 〈방가?방가!〉 〈7번방의 선물〉에서 80%, 중앙데일리에서 70%가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목』에서 추측의 ‘-겠-’의 공손표현이 도착 텍스트에서도 공손성이 드러나도록 번역되는 분포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문학작품이라는 표현적 텍스트의 기능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공손표현을 적절히 옮기지 못할 경우 자칫 출발 텍스트에서 작품 속 인물 간의 관계, 심리적 거리, 힘의 작용 등이 도착 텍스트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저자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측의 ‘-겠-’이 함의하고 있는 공손성을 최대한 도착 텍스트에 나타나도록 했으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의지의 ‘-겠-’의 공손성 실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6〉에서 의지의 ‘-겠-’의 화행을 살펴보면, 『나목』에서는 진술>요청>질문>거절>약속·권유>제안>명령,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에서는 진술>약속>요청·경고>인사, 중앙데일리에서는 약속>진술 순으로 나타났다. 『나목』과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에서는 주어의 의지나 의도가 진술화행으로 주로 나타나지만 중앙데일리에서는 글쓴이의 의지나 의도가 독자에 대한 약속으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의지의 ‘-겠-’은 수행문적 성격가지고 있어서 주어의 의지, 의도, 허락, 능력 등이 진술, 요청, 제안, 권유 등의 화행으로 다양하게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표 6〉 의지 ‘-겠-’의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의 화행

화행	나목		방가/7번		중앙데일리	
	ST	TT	ST	TT	ST	TT
진술	22	23	6	8	3	11
질문	5	5	-	-	-	-
요청	15	11	2	2	-	-
약속	3	2	4	3	9	1
제안	2	4	-	-	-	-
권유	3	3	-	-	-	-
인사	-	1	1	-	-	-
거절	4	3	-	-	-	-
명령	1	3	-	-	-	-
허가	-	-	-	1	-	-
경고	-	-	2	1	-	-
계	55	55	15	15	12	12

총 82개의 의지의 ‘-겠-’의 화행분석을 통해서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진술, 명령, 요청, 제안, 권유, 거절, 경고 화행 60개를 분류하여 의지의 ‘-겠-’의 공손성이 실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의지의 ‘-겠-’의 공손성은 양태 의미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도착 텍스트에서도 발화수반력을 약화시키는 양태조동사와 양태 준조동사로 대응되어야 유사한 의미값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7〉에서 의지의 ‘-겠-’은 진술, 요청, 명령 등의 화행에서 양태조동사 will〉 would〉 should〉 can:could〉 might:must, 양태 준조동사는 want to〉 need to:have to〉 have got to:be to:be goin to 순으로 대응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should, need to, have to, have got to, be to’ 등의 의무 양태 사용도 꽤 나타나지만 이들은 ‘당위성, 의무’ 등을 나타내는 의무 양태 조동사이므로 공손표현이라 하기 어렵다.

〈표 7〉 진술, 요청, 명령 등의 화행에서 의지의 ‘-겠-’ 에
대응하는 도착 텍스트의 양태(준)조동사 사용빈도

도착텍스트의 양태(준)조동사	사용빈도
will	13
would	5
can	2
could	2
might	1
should	4
must	1
be going to	1
want to	5
need to	2
have to	2
have got to	1
be to	1
계	40

- (3) a. 내 초상화를 좀 급히 그려 주셔야겠어요? (나목)
 a'. You've got to draw my portrait as fast as you can.
 b. 문병을 가는 것인데, 뭐라도 좀 사지 않겠어? (나목)
 b'. We should get something for the patient, shouldn't we?

(3a)는 이경이 근무하는 미군 부대 내의 초상화가게에서 한 여성 고객이 옥희도씨에게 그림을 빨리 그려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다. 이 여성 고객은 미군 부대 내의 다른 가게에서 일을 하는 여성으로 초상화가게 화가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자주 한다. (3a)의 문장만으로는 공손한 요청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앞뒤 맥락에서 볼 때 독자들은 이 여성 고객의 발화가 공손하다고 생각지 않을 것이다. 허상희(2009)는 모든 경어나 공손표현이 발화 내에서 공손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발화에 경어나 공손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담화상황이나 맥락이 그 발화가 공손하지 않음을 나타낼 때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3a')에서 의무부과를 나타내는 'have got to'를 사용하여 공손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담화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보면 적절한 선택이라 생각한다. (3b)는 황태수와 이경이 옥희도의 병문안을 가는 길에 나눈 대화이다. 황태수는 이경과 연배가 비슷하고 계속해서 이경에게 구애하는 입장이지만 이경은 황태수를 속물적인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약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한다. 황태수는 이경과 원만한 관계가 되길 원하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이경과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병문안 가는데 뭐 좀 사자'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 '사지 않겠어'라는 간접적 표현을 사용했으나, (3b')에서는 'should'로 대응되면서 의무를 나타냄으로써 공손한 표현이라 볼 수 없다. 하지만 'Should we get something for the patient?'로 (26b)와 대응할 수 있거나 'shouldn't we?'라는 부가의문문을 사용하여 의무 부여를 완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표 8〉에서 의지의 ‘-겠-’은 도착 텍스트에서 주로 양태 조동사로 공손표현이 실현되고 있으며 양태준조동사, 어휘, 삽입절 등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도착텍스트에서 양태표현이 생략된 경우 다른 형식을 통해서 공손성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면 생략된 10개 중 다른 형식으로 공손성이 실현된 것은 없었다.

〈표 8〉 의지 ‘-겠-’의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실현형태와 공손성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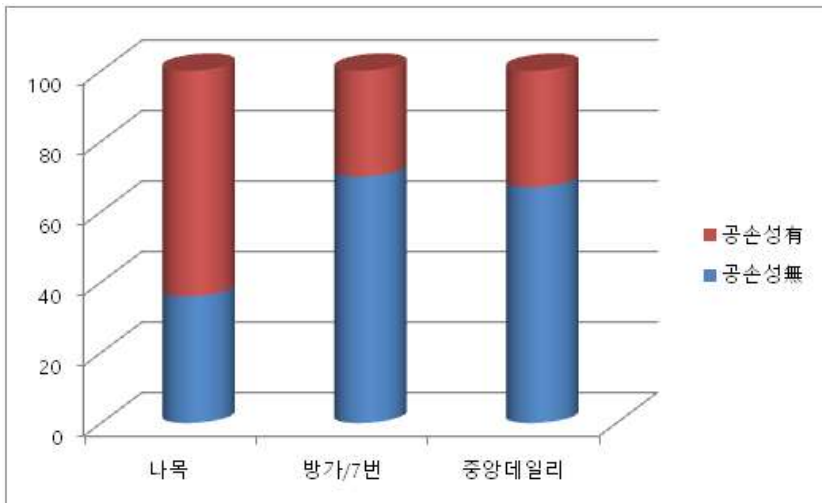
화행	공손 유				공손 무				계
	양태 조동 사	양태 준조 동사	기 타	생 략	양태 조동 사	양태 준조 동사	기 타	생 략	
진술	7	6	-	-	3	5	3	9	33
요청	12	-	1	-	1	1	-	1	16
권유	-	-	2	-	-	-	-	-	2
제안	1	-	-	-	1	-	-	-	2

거절	2	-	1	1	-	-	-	-	4
명령	-	-	-	-	-	-	-	1	1
경고	1	-	-	-	-	-	-	1	2
계	23	6	4	1	5	6	3	12	60

- (4) a. 그만 두겠어. (나목)
 a'. Let's forget it.
 b. 추방될 때 추방되더라도 노래는 부르고 가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방가? 방가!)
 b' Can't they be deported after the song contest?
 c.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7번방의 선물)
 c'. I repeat the question.
 d. 안가겠어요. (나목)
 d'. I am not going.

(4a)는 이경이 조(Joe)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대화이다. 이경의 초대를 조가 거절하는 화행인데 (4a')에서 'let's' 사용 권유화행으로 변화를 보인다. 'let's' 사용은 행위 속에 화자와 청자를 포함시켜 'you'나 'me'가 있어야 할 자리에 'us'를 사용하여 공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손중동 2005). 이것은 (4a)에서 '-겠-'이 소극적 공손전략으로 사용된 반면 (4a')는 적극적 공손전략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4b)는 방태식과 이주근로자들이 불법체류혐의를 받고 경찰서로 잡혀온 장면으로 방태식이 경찰관에게 노래자랑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화행이다. (4b')에서 'can'을 사용, 요청화행에서 공손이 적절히 나타나고 있다. (4c)는 법정에서 판사가 피고인 용구가 대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자 대답을 강요하는 경고화행이다. (4c)에서는 경고를 완하시킬 수 있는 '-겠-'을 사용하였으나 (4c')에서 완하시킬 기제를 사용하지 않아 공손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상황을 감안하면 (4c')에서 공손성이 나타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4d)는 이경의 사촌 오빠가 다 쓰러져가는 고가에서 엄마와 갈등을 겪으며 생활하는 이경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자신의 아버지 즉 이경의 큰아버지 집으로 가자고 이경에게 권유하나 이경이 거절하는 대화이다. (4d')에서 양태표현으로 공손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진행형을 사용하여 공손성을 나타내고 있다. 진행형은 진행형이 아닌 문장에 비해 더 미완성적이고 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내므로 공손표현이라 할 수 있다(손중동 2005).

〈그림 2〉에서 의지의 ‘-겠-’은 『나목』에서 64%, 〈방가? 방가〉〈7번방의 선물〉에서는 30%, 중앙데일리 33%가 공손표현으로 실현되었다. 추측의 ‘-겠-’의 공손표현 실현정도에 비해 의지의 ‘-겠-’의 공손표현 실현정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의지의 ‘-겠-’이 요청, 권유, 제안, 경고 등의 화행에서는 도착 텍스트에서 양태조동사를 사용, 공손표현으로 나타나지만 의무 양태를 나타내는 진술화행에서 의무 양태조동사를 사용하여 공손표현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측의 ‘-겠-’과 마찬가지로 『나목』에서도 공손표현 실현정도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표현적 텍스트인 문학작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자 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출발 텍스트에서의 인물 간의 관계설정을 도착 텍스트에 옮겨 놓고자하는 시도라고 보인다.



〈그림 2〉 의지 ‘-겠-’의 장르별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표현 유무

- (5) a. 또다시 발언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7번방의 선물)
a'. If you speak out, you'll be ordered to leave.
b. ...과연 한국 사람의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지 확인해야겠다. (중앙데일리)
b'. but I needed to verify if they prioritized Korean's safety.

(5a)는 법정에서의 판사가 피고석에 방청객들이 웅성거리자 경고하는 발화로 ‘-겠-’을 사용하여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켰다. (5a')에서도 ‘will’ 뿐 아니라 if 부사절, 수동형 등을 사용하여 방청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발화수반력을 약화시켜 공손성을 나타내고 있다. (5b)는 글쓴이가 불특정 다수의 독자에게 자신의 의지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으로 보이거나 (5b')에서 진술화행으로 의무를 나타내는 ‘need to’를 사용하여 공손표현이라고 보기 힘들다.

5. 결 론

본 논문은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의해서만 문장에 쓰일 수 있고 단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존형태소를 번역가가 출발 텍스트에서 그 형태소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 분석하고, 상이한 두 언어 간의 번역에서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의 번역 변이가 불가피한 경우 도착 언어에서 출발 텍스트의 의존형태소에 대응하는 형태와 의미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는가하는 물음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다른 형태소와 결합에 의해 ‘시제, 상, 양태’ 등의 범주에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특정화행에서 화용적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어 선어말 어미 ‘-겠-’의 화용적 의미 번역 양상을 살펴보았다.

‘-겠-’의 화용적 의미 분석에서는 추측의 ‘-겠-’ 86개 중 69개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화행으로 이 중 약 78%가 도착 텍스트에서 공손표현으로 실현되고, 장르별로는 『나목』 86%,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 80%, 중앙데일리 70%가 공손표현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의지의 ‘-겠-’ 82개 중 60개가 청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화행으로 이 중 약 42%가 공손표현으로 실현되고, 장르별로는 『나목』 64%,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 30%, 중앙데일리 33%가 공손표현이 실현된 것으로 분석된다. ‘-겠-’의 공손표현은 추측과 의지라는 양태적 의미에 의해 기인한 것이므로 주로 영어의 양태조동사 혹은 양태표현으로 실현된다. 의지의 ‘-겠-’의 공손표현 실현정도가 추측의 ‘-겠-’의 공손표현 실현정도보다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의지의 ‘-겠-’은 진술화행에서 의무양태조동사와 대응되어 의무부여를 나타내므로 공손표현이라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겠-’은 양태적 의미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구어에서 사용빈도수 높게 나타나는 사용양상의 영향으로 특정 담화 상황에서 ‘-겠-’의 양태적 의미가 화용적 의미로 확대되어 공손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하지만, 도착 텍스트에서 ‘-겠-

‘-’의 공손표현은 맥락에 따라 공손표현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고, ‘-겠-’의 양태적 의미와 공손표현이 생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 두 경우 모두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의 의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번역 양상은 한국어와 영어의 양태표현 사용빈도수와 선호하는 표현 방식의 차이에서 찾아 볼 수 있겠다. 한국어는 어미 속에서 양태의미가 표현되므로 매 문장마다 양태표현을 사용하는 반면 영어는 양태표현을 써야 할 때만 쓰지 굳이 문장마다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공손표현으로 사용되는 ‘-겠-’의 경우도 한국어는 청자 중심 표현을 선호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겠-’을 사용한다. 이는 한국어 문장은 영어에 비해 책임을 전가하려는 경향이 있고 청자 중심 표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출발 텍스트에서 ‘-겠-’의 양태적 의미와 공손표현이 도착 텍스트에서 대응되는 형태가 생략되는데도 불구하고 의미전달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출발 텍스트의 저자가 양태와 공손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함축된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겠-’의 양태적 의미와 공손표현을 어느 정도 충분히 도착 텍스트에 옮길 것인가의 문제를 Reiss(1977, 1989: 108-109)의 텍스트 타입에 따른 특징으로 ‘-겠-’의 번역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현적 텍스트 타입인 문학작품은 ‘-겠-’의 공손표현을 통해서 작품 속 인물의 태도와 의도, 인물 간의 관계, 심리적 거리, 힘의 작용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출발 텍스트 저자의 의도가 전달되어야 하므로 ‘-겠-’의 공손표현이 충분히 나타나도록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나목』 분석에서 ‘-겠-’의 공손표현이 다른 장르에 비해 도착 텍스트에서 생략 되는 경우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번역가가 문학작품이라는 텍스트 타입을 염두에 두고 원문에 충실한 번역 전략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시청각미디어 텍스트 타입의 영화자막은 ‘-겠-’의 공손표현이 다른 시각적 요소 혹은 배우의 억양이나 강세 등으로 표현이 가능하므로 양태나 공손표현이 비언어적 요소로 대체가능한 경우 생략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방가? 방가!〉 〈7번방의 선물〉 분석에서 비격식적으로 사용되는 ‘-겠-’의 관용적 용법이나 관습적으로 사용되는 상제 의미를 나타내는 ‘-겠-’의 사용빈도가 높다. 하지만, 도착 텍스트에서 이러한 ‘-겠-’의 의미들이 생략되어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되는 양상도 영화라는 장르라 가능했으리라 생각한다.

정보적 텍스트 타입인 신문사설은 텍스트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지식이나 정

보 전달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저자의 주장이나 견해를 나타낼 수 있는 양태표현이나 공손표현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평이하게 번역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테일리 신문사설 분석에서 직접인용문에서 발견되는 ‘-겠-’이 도착 텍스트에서 간접인용문으로 변화를 보이면서 글쓴이가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개별 범주에서 논의 되는 ‘-겠-’의 의미 분석을 ‘양태, 화용’등 복수의 의미를 갖는 ‘-겠-’의 의미들을 분석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차이로 두 언어 간의 공손개념과 표현의 차이가 발생하여 출발 텍스트와 도착 텍스트 간의 번역 변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번역 변이를 통해서 의존형태소 ‘-겠-’이 영어에서 다른 층위 혹은 랭크에 속하는 형태와 대응될 수 있으며 그 형태가 ‘-겠-’의 개별의미값과 거의 근사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겠-’의 화용적 의미 번역 양상을 장르별로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타입에 따른 번역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겠-’이 포함된 분석 텍스트의 양이 장르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분석 수치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후 이러한 문제는 다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한국어 선어말 어미 ‘-겠-’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존형태소 번역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번역가가 출발 텍스트 분석 시 의존형태소 ‘-겠-’의 범주별 의미를 어떻게 이해 분석하여야 하고, 언어 차이로 인한 한국어와 영어의 공손개념과 표현의 차이가 발생하여 의존형태소 ‘-겠-’이 영어에서 다른 층위나 랭크에 속한 형태와 대응될 수도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번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어 의존형태소 처리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번역연구 분야에서 아직 ‘-겠-’의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논문이 유용한 자료로 제공될 수도 있을 것이다.

Works Cited

- 고영근(2004)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김중록(2008) 『외국인을 위한 표준한국어문법』, 서울: 박이정.
 박선현(2008) 「추측표현 ‘것 같다’의 완곡 기능 :구어전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 태학사.
- 서정목·이정훈·우창현·정혜선·오승은·박미영·배은나·남미정·박진희·장요한·오경숙
(2014) 『한국어 어미의 문법』, 서울: 역락.
- 손중동(2005) 「케무니케이션에 있어 영어공손표현」, 『영어영문학』 47: 211-231.
- 이창희(2000) 「영어 법조동사의 인식론적 의미·통어 분석」, 『신영어영문학』 15: 197-221.
- 이해영(1995) 「현대 한국어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125-146.
- 정희자(2005) 「양상조동사에 대한 담화적 고찰」, 『새한영어영문학』 47: 207-232.
- 허상희(2009)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한민족어문학』 197-221.
- Brown, P & Levinson, S. C.(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atford, J. C.(1965/2000) 'Translation Shifts,' In Venuti, L.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141-147.
- Collins, P.(2009) Modals and quasi-modals in world Englishes Sydney: Language and Computers - Studies in Practical Linguistics, Volume 67
- Leech, G.(1983) The Principles of Pragmatics, New York: Longman.
- Lyons, J.(1977) Semantics I-I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eiss, K.(2000) Translation Criticism: Potential and Limitations: Categories and Criteria for Translation Quality Assessment.(Rhodes, E. F. trans.), Manchester: St Jerome. (Original work published 1971)

부록: 분석 텍스트

1. 문학 작품

박완서(1990) 『나목』, 서울: 작가정신

Translated by Yu. Young Nan(1995) 『The Naked Tree』, New York: East Asia Program, Cornell University

2. 영화 자막

육상효(2010) 〈방가? 방가!〉 〈Banga? Banga!〉

이환경(2012) 〈7번방의 선물〉 〈Miracle in cell no. 7〉

3. 중앙데일리 신문사설 출처

번호	제목	게재일자
1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라	2015.08.03
2	FIFA의 고양이 전용 아파트	2015.08.04
3	어디서 들은 이야기로 한 나라를 판단해서야	2015.08.07
4	피폭 70주년...일본이 가야할 길	2015.08.08
5	태극기 달기가 꼭 알파한 상술일까	2015.08.13
6	롯데, 한국 공군 탑건의 안전은 어쩔 건가	2015.08.14
7	100년 갈 성장엔진은 사람이다	2015.08.20
8	문제는 청년 일자리야, 바보야!	2015.08.22
9	아바나에서 들은 한국어 '7.2'	2015.08.27
10	효(孝)도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사태	2015.09.04
11	'전승 공정'이 시작됐다	2015.09.10
12	인내심을 갖고 보기 어려운 현대차 노조	2015.09.12
13	신동빈 롯데회장의 한국어	2015.09.24
14	노사정 대타협 부정하는 야당의원의 논리	2015.09.26
15	폴크스바겐의 사기극을 보며	2015.10.01
16	도돌이표 속의 노벨상 박탈감	2015.10.08
17	정부의 TTP전략 신뢰할 수 없다	2015.10.12
18	이런사람, 이런국감, 나라수준	2015.10.15
19	시리아에서 얻은 북한급변사태와 교훈	2015.10.19

Abstract

A Study of Translation Patterns of Korean Pre-final Ending ‘-keyss-’ -Focusing on Pragmatic meaning-

Kim, Youngjoo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nglish translation patterns of Korean pre-final ending ‘-keyss-’, focusing on pragmatic meanings. It represents modal, temporal, aspectual and pragmatic meaning in sentences as a bound morpheme. It not only interplays between plural category’s levels among tense, aspect, modality but also performs pragmatic function as an expression of politeness in specific discourses, displaying the property of polysemic word.

The analysis frames for this study are designed by accumulated linguistic findings on modality and pragmatics in both Korean and English.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frames, ‘-keyss-’ extracted from three different types Korean source texts are classified into two modal meanings: probability and inclination.

The first analysis is carried out to examine English forms in the target texts and their degree of meaning to ‘-keyss-’. The findings show that ‘-keyss-’ mostly correspond to English modal verbs which have the similar meaning to it and translation shifts such as shift of level and rank shifts occur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Also its translation patterns by text type are analysed as well. The result of analysis reveals that the rate of translating ‘-keyss-’ presents differences between text types. This tendency is more likely to be influenced by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text type.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duce high quality of translation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possibility of translation shifts caused by

linguistic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English, and to understand '-keyss-' with linguistic knowledge. These findings are also of value for translators to consider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text type so that they may adopt more effective translation strategies for '-keyss-'.

Key Words

modality, pragmatics, politeness

권력과 서법체제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 <관상> 영상 자막 번역)

김 연 주

1. 서 론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문화 중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은 단연 ‘영상매체’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영화는 타 국가의 사람들에게 영화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문화나 관습 등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데 파급효과가 크다(임응순·정군오·김의범, 2011). 영화는 그 나라, 그 시대의 정서를 분야별로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 제작국의 사회, 문화적 모습이나 언어 및 행동양식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주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한국에 영화가 처음 들어온 1899년 이후부터 한국의 역사와 함께 영화가 발전되었으며, 2000년 후반을 기점으로 한류열풍과 함께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 또한 활발해졌다. 이는 자연스럽게 영상번역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영상물의 더빙과 자막번역에 대한 다양한 전략 및 연구 활동 또한 활발해 지게 되었다. 다양한 영상물의 세계적 교류를 위해 자막이나 더빙번역을 해야 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가 된 것이다.

다양한 장르를 다루는 영상 번역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가 특히 활발하다. 이는 원천어(Source text:ST) 문화권의 사회 문화적 고찰 없이는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목표어(Target Text:TT)로의 번역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영한 영상 자막이나 더빙과 자막의 차이에 대한 연구(곽한정, 2014; 박윤철, 2007; 이주은, 2014) 및 한국 고전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한 한영 번역에 대한 연구(박옥수, 2011; 우형숙; 2006, 조재범; 2011)는 활발하다. 하지만 한국 영상물 자막을 영어로 번역한 텍스트에 관련한 연구 논문은 아직 미비한 편이고, 더욱이 한국 시대극(이하, 사극) 영상 자막번역에 대한 분석이나 연구는 몇 편 되지 않으며, 정치 담론에서 권력과 서법¹⁾의 관점에서 자막번역을 분석한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사회 문화적 관점에서 사극영화를 중심으로(<광해, 왕이 된 남

자>, <관상>) 한글·영어 자막 분석을 통해, 대화자간의 서법이 대인 관계의 권력(힘)과 거리 관계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자막이 영어로 번역될 때, 영화에서 중요한 맥락을 차지하는 관계상에 나타나는 힘의 관계가 동일한 발화기능을 함의한 상태에서, 동일한 형태의 서법으로 펼쳐지는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언어적 특성 뿐 아니라 서로 상이한 문화적 관점에서 영상물에 나타난 구어체의 번역양상을 고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아울러, 영상물의 대화 관계에서 양방의 힘의 형태에 따라 고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극체(이하, 고체)와 현대어의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성을 살펴 봄으로써, 현대극과 사극의 번역체나 번역투의 상이점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상 매체에서 자막은 ‘영상 번역의 한계’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바탕에 두고 번역되는 형태로, 한글 구어체를 최대한 의미를 살려 번역하되, 글자 수를 줄이거나 다른 어휘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번역 과정에서 권력과 거리 별로 한글과 영문의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을 분석해 보는 것은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 차이성 뿐만 아니라 특수 영역인 자막 번역의 한계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극복방안 및 영화 장르에 따른 효과적인 영상번역 전략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한국 영상물의 자막번역이 목표언어 시청자의 관점에서 영화가 담고 있는 감동을 최대한 전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법과 발화수행기능 요소를 고려하여,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징을 살리면서도 영화 내용의 본질, 또한 해당 국가 언어 및 문화 습성에 최대한 맞추어 번역하고자 하는 근본적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영상번역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영화의 한글과 영문 자막에서 인물 간 대화에 나타나는 대인간

-
- 1) 서법(mood)과 양태(modality)에 대한 논의가 언어의 모호성 측면에서 교차하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법(mood)은 Jespersen(1924, 313) 이래 직설법, 가정법, 명령법을 가리키는 통사적 범주로, 양태(modality)는 화자의 의견이나 태도를 보여주는 의미 범주로 정의된다(임동훈, 2008). 본 논문에서는 서법을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등으로 나누는 형태적 측면으로 한정한다.

권력과 거리 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서법 양상이 어떠한가?

- (2) 각 권력과 거리 관계 별 도출된 서법 양상과 일반적인 발화수행
기능의 일치성은 어떠한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취지 및 전체적 내용을 개관하고, 2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으로 영상번역에서 자막의 특징, 언어와 권력의 관계에 대한 개관, 담화의 정의, 서법과 발화수행기능의 관계, 사회 및 언어적 관점에서 힘과 권력관계를 다룰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 텍스트를 분석했는지 설명하고, 4장에서는 그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5장에서 결론 및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론적 근거

이 장에서는 영상번역에서 ‘자막’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영상의 담화에 나타나는 힘과 거리 관계에 따른 서법양상을 다룰 것이므로, 언어와 권력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담화의 정의, 담화를 구성하는 문장별 나타나는 힘과 거리 관계, 서법과 발화수행기능의 측면을 다룬 이론적 배경을 다룬 선행연구도 살펴 볼 것이다.

2.1. 영상번역과 자막

영상번역은 영상을 번역하는 것으로 영상에는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홍보영상 등이 있다. 영상은 특성 상 주인공들의 대화, 내레이션, 효과음을 포함하는 청각적(audio) 요소와 영상이라는 화면 매체와 그 안에 담긴 이미지 등의 시각적(visual) 요소를 모두 포함하므로 영상번역은 구체적으로 AVT(Audiovisual Translation)로 표현된다(류현주, 2008, 80). 영상번역의 번역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시대 흐름, 매체 발달에 따라 변화 확대되었다. TV로 방송되는 모든 영역 뿐 만 아니라, 홍보 영상물, 다큐, 비디오 게임까지도 영상번역 텍스트로 간주된다. 특히, 조안나(2013, 10)는 “영화 번역이란 영화의 한 구성 요소인 대사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번역자는 저자, 주인공의 입장에서 영화 플롯과 특성, 주제, 감독의 의도, 작가의 인생 및 세계관을 모두 파악하여 함축적으로 각 장면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영상번역 종류는 주로 화면 하단에 2줄로 생성되는 자막과, 번역되어 음성으로 구현되는 더빙으로 나뉜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자막영역으로 자막번역에 대한 이론적 특징을 계속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자막번역은 영상에 나타난 인물들의 발화인 구어체가 문어체로 구현되는 특징을 가진다. 자막 번역 중에서도 청각, 청력 장애자를 위한 언어 내 번역과 우리가 보편적으로 접하는 한 언어에서 타 언어로 이루어지는 언어 간 번역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한글과 영어, 즉 언어 간 번역을 배경으로 하는 자막번역 연구가 주를 이룬다.

자막번역은 크게 TV용, 개봉관용, 영화제 대본용등 3분류로 나눌 수 있다. TV나 DVD용 자막은 띄어쓰기 포함 12~14자씩 두 줄로 주로 이루어지며, 영화의 경우 띄어쓰기를 제외하고 7~8자씩 두 줄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10자씩 쓰는 경우도 있다. 영화의 장르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며 가령, 예술영화의 경우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을 하는 것이 원칙인 반면, 극장영화의 경우는 글자수에 많은 제약을 받으므로 가능한 핵심만 압축하여 의역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영상번역에서 자막번역의 핵심이 되는 특징은 시간과 공간 제약에 따른 압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구어체의 번역이지만, 근본적으로 영상번역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서법이나 어휘의 발화형태가 차이가 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2.2. 언어와 권력

세계 모든 인류는 각자 속한 사회 속에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사회라는 망은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보편적 형태는 가시적·비가시적 형태의 권력구조이다. 나라와 나라, 나라와 개인,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모든 관계에는 다양한 형태의 권력이 기저에 깔려있고 그러한 권력적인 형태는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나타난다. Morand(1996, 553)는 권력과 언어 예절에 관한 연구에서 권력 관계 형태가 언어 예절을 지배하므로, 인간은 권력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에 따라 예의와 관련된 언어적 전략을 다르게 구사할 수 있고, 역으로 언어 행동에 따라 권력관계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대인간의 권력과 거리 관계에 따라 의사소통의 매체인 언어의 형태가 다양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사회, 언어 그리고 철학 등 많은 분야의 학자들은 언어와 권력의 상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통찰 및 분석을 통한 이론을 제시해 왔다. 언어는 정보

나 의견을 전달하는 많은 형태 중 하나라는 입장을 규명한 언어 행위론(Speech Act Theory)은 대화에서 표면적 말의 형태 속에 숨어있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하는 이론이다. 권력은 이 언어행위를 통해서 실현되므로, 언어 행위론은 권력론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즉, 언어행위는 타인에게 의도한 효과를 기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행위는 발화행위를 통해 발생한다. Austin(1962, 94-118)은 이를 언표행위(locutionary act), 언표 내 행위(illocutionary act), 언표 외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 언표행위는 발화가 실행되기를 원하는 행위이고, 언표 내 행위는 찬성·약속·경고등과 같은 말하는 중에 행하는 행위이며, 언표 외 행위는 설득·확신과 같이 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요약할 수 있다. 이 중 언표 내 행위를 Searle(1975)이 5가지로 분류하였다. 확인이나 주장, 발표 등의 표상형(representative), 요청이나 명령의 명령형(directives), 약속 및 선서, 선언의 언약형(commisives), 축하나 감사, 환영을 표하는 표현형(expressives), 임명이나 해임, 판결의 선언형(declarations)이 그것이다. 이러한 발화행위를 통해서 언어가 권력으로 재분류되고, 인간관계의 권력에 의해 다시 언어가 구분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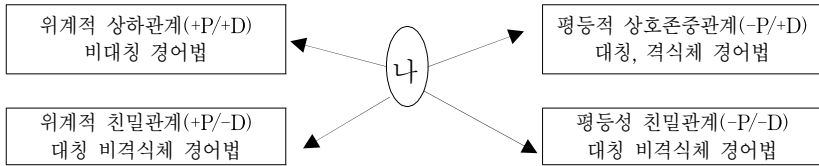
권력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타인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게 하는 힘으로 설명될 수 있다. 권력은 인간에 의해 도구로 활용되는 수단으로 본다는 점에서 도구적 권력론으로, 권력의 행사를 통해 행동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행위적 권력론으로 정의된다(Foucault, 1984). 대부분의 권력은 도구적 권력론으로 포괄되고, 도구적 권력 중 언어도 포함된다. 권력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며, 이 소통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 실현되지만, 대부분 언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언어 속에는 권력의 행사를 위한 내적 힘이 존재하고 그 힘은 언어의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속의 언표내적 행위 및 실행되는 언표외적 행위를 모두 발화수반행위로 간주하여, 권력과 거리 관계에 따른 서법과 발화수반행위를 두루 살펴보았다.

2.3. 담화와 담화상의 권력관계

언어학의 두 패러다임은 Newmeyer(1983)의 형식론과 Hopper(1988)의 기능론으로, 이 두 패러다임은 담화의 정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담화를 형식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언어 형태적 측면(Celce-Murcia, 2000)과 기능론적 측면에서 정의하는 언어 기능적 측면(Schiffrin, 1994)이 전통적 담화의 정의이다. 형식에

기인한 정의는 ‘문장’을 담화로 보고, 기능에 기인한 정의에서는 담화를 ‘언어사용’으로 본다. 두 가지를 다 통합한 개념으로 담화를 ‘외적인 의사소통 기능이나 목적 및 담화 참여자와 일관성 있게 관련되도록 만드는 형태와 의미를 내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음성 및 문자 언어의 한 예’라고 정의 하였는데, 이러한 담화의 관점에서 말하고 글을 쓸 때 발견되는 언어적인 규칙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표현과 이해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담화를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김진완, 2004). Schiffrin(1994, 20-23)은 담화에 대해 화행, 상호작용 사회언어학, 의사소통 민족지학, 화용론, 대화분석, 다양성 분석의 6가지 다른 관점에서 담화에 접근하며, 언어학의 형식주의와 구조주의, 기능주의 관점에서 담화를 설명하였다. 형식주의에서 담화는 “a particular unit of language above the sentence(문장 이상의 언어 특정 행위)”로 정의하며, 기능주의에서는 “a particular focus on language use(언어 사용에 대한 특별한 집중)”이라고 한다. 또한 Schiffrin(1994, 39-41)은 “Discourse is utterances(담화는 발화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이는 담화를 내부적으로 담화를 구성하는 소규모 단위를 포함하면서도 비맥락화된 언어 구조의 단위 집합이 아닌 맥락화된 단위로 제안하는 것이다.

담화에 나타나는 권력에 관한 연구는 많은 부분이 한국어 경어법 연구와 연관이 있다. 경어법 요소는 인물관계, 담화의 장, 화자의 태도, 내용, 형식이다. 인물관계는 발화시의 구성원인 화자·청자의 관계를 말한다.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인물관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누가, 누구에게, 누구의 일’에 관한 것인가를 파악하는 화자, 청자, 제3자와의 상호관계는 보통 힘에 의한 상하관계와 거리에 의한 친소관계가 기본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힘은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높낮이에 따라 아랫사람을 부리거나 따르게 할 수 있는 권위와 권력이라 할 수 있다. ‘힘’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위계 차이가 있는 경우(+P)와 없는 경우(-P)로 나뉜다. 인물관계에서의 거리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멀고 가까움의 정도(유송영, 1994)로 정의한다. ‘거리’가 있는 경우(+D), 없는 경우(-D)로 표현한다. Scollon & Scollon(2001, 47)은 힘과 거리에 따른 인물관계 설정은 위계적 상하관계(+P,+D), 위계적 친밀관계(+P,-D), 평등성 상호 존중관계(-P,+D), 평등성 친밀관계(-P,-D)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위계적 상하관계는 대화참여자 간 불평등 지위에 있는 비대칭 관계의 경우로 보통 상사와 부하관계가 그 예가 된다. 이 Scollon & Scollon의 4가지의 분류를 ‘나’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아래 <그림1>과 같은 형태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림 1〉 Scollon & Scollon의 인물관계 설정

2.4.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

학자마다 서법 구조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는 영어학에서 들여온 서법 개념을 국어의 체계에 적용하였기 때문이며, 아래와 같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서법이란 화자와 청자가 의사소통 할 때 말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표현하여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 문법범주이며, 발화는 그 구조를 나타낸다. 서정수(1967)에 따르면, 서법은 (i) 문장의 서술 구절에 속하는 문법적 요소들에 의하여, (ii) 말할이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말한다. 기본 범주는 절(clause) 혹은 문장(sentence)이며, 서법은 화자와 청자 간 대인간의 의미를 표현한다(Downing & Locke, 1992). Frege(1918, 22)는 “각 문장에는 ‘힘(Kraft)’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힘은 문장의 형태에 의해 표현 된다.”고 주장 했다. Harnish(2006) 외 많은 학자들도 서법은 문장 형태와 연표내적 힘의 특정 결합이라는 견해를 피력해 왔다.

Downing & Locke는 서법은 크게 평서법(declarative), 의문법(interrogative), 명령법(imperative)의 삼분법으로 나누어지며, 각 서법 구조는 그에 상응하는 전형적인 연표내적 힘과 관련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표 1〉 Downing & Locke(1992, 165)

Clause	Indicative	Declarative	
		Interrogative	Yes/No
	Imperative		Wh-

상기 이론에서 보듯, 서법은 전형적인 발화수행 기능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평서법은 진술, 의문법은 질문, 명령법은 명령의 기능을 가진다.

Eggins(2004, 147)는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 간의 전형적 대응관계를 아래 <표2>와 같이 제시했다.

<표 2>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의 대응관계(Eggins, 2004, 147)

발화수행 기능(화행 기능)	전형적 서법
진술	평서법
의문	의문법
명령	명령법
제안(offer)	조정된(modulated) 의문법
응답(answer)	생략(elliptical) 평서법
승인(acknowledgment)	
수용(acceptance)	소절(minor clause) ²⁾
응낙(compliance)	

Eggins에 따르면, 각 서법은 전형적인 발화수행 기능을 가지며, 이는 화행의 측면에서 서법에서 기대되는 화행의 기능이 있음을 뜻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영상물의 한글과 영어 자막에서 인물 간 권력 관계를 가진 담화에 나타나는 서법 체계와 발화수행 기능을 살펴보고자 함이다.

본 연구는 대화자 간 힘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군신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사극영화 2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소절은 분열되거나 생략되고 불완전한 문장 혹은 절 형태로 의미를 전달한다. 소절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감탄사, 격언, 자아일체의식, 명령, 호격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Leonard Bloomfield, 1933; Eugene Nida, 1943). 본 논문에서는 주어와 동사가 없는 모든 형태의 대사를 소절로 분류한다(단, 명령법, 응답의 생략 평서법, 청유의 조정 의문법은 생략한다.).

〈표 3〉 연구 대상 영화 2편

영화제목	개봉	주요 등장 인물	제작/배포
광해, 왕이 된 남자 (Masquerade)	2012.09.13	하선(주인공), 허균, 중전, 내관, 궁녀, 왕	CJ(2014.11.19)
관상 (The face reader)	2013.09.11	내경(주인공), 수양, 김종서, 팽현, 진형	KD미디어 (2014.02.07)

2012년 개봉한 <광해>는 당시 천이백만 관객 수를 기록하며 2010년도 총 한국 영화 중 2위를 차지한 영화이다. <관상>은 수양대군 시절과 관상학을 접목한 소재의 영화로 2014년 국내 개봉 영화 중 19위를 차지한 영화이다.

<표 3>에 정리된 2편의 한국영화 정품 DVD에서 한글과 영문 자막을 추출하는 것이 첫 단계이다. 각 한글과 영문 자막 텍스트를 대화자 별 힘과 거리를 기준으로 담화를 분류한 후, <그림 1>, <표 1>, <표 2>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 분석을 위해 Downing & Locke의 이론(1992, 165), 이원근(2013)과 서정수(1996)의 문말 서법체계, Eggins(2004, 147)의 이론을 통합하여 아래와 같이 분석도구 <표 4>를 도안하였다.

〈표 4〉 분석 도구 - 서법의 정의 및 발화수행 기능

서법 분류 ³⁾	정의	발화수행 기능
평서법	한글: (는/ㄴ)다, (는/ㄴ)구나, 지등 영문: S+V구조	진술
의문법	한글: (느)냐, 지, ? 등 영문: (의문사) V+S? 구조	의문
명령법	한글: 어라, 어 주어라, 러무나 등 영문: V구조	명령
조정된 의문법	한글: 자, 자꾸나 등 영문: Let's. Why don't, Shall구조	제안
생략 평서법	한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등 영문: Yes/No, certainly, sure 등	응답
소절 ⁴⁾	완전한 주어, 술어가 없는 모든 형태(조정된 의문법, 생략 평서법 제외)	진술, 의문, 명령, 제안, 응답

3) 사극 고체의 발화 특징 상, 아래와 같이 서법 분류 기준을 정하기로 한다.

- ① 접속역할 표현으로 연결된 문장: ‘~고’, ‘~나’, ‘~인지라’, ‘~하오니’등의 표현으로 끝난 문장의 경우에 주어와 동사가 있다면, 각 평서법으로 분류한다. (영문에서 접속사절을 평서법으로 취급하는 것과 같은 규칙이다.)
- ② 왕의 말에 응수하는 ‘황송, 황공 하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등은 소절로 처리한다.

영상번역은 영화 대사의 번역이므로 영화 시나리오 번역처럼 구어체적특성을 가진다. 즉, “구어에서 문자로의 이동”이면서 동시에 가독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진다(윤학로·김남연, 2007, 6). 이러한 영상번역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도 정확한 분석 및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의 서법 특징 및 구어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부차적 규칙을 정하였다.

- (1) 한글과 영문 모두 주어와 동사가 완벽한 경우에만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에 포함하도록 한다. 그 외 모든 형태는 기능에 따라 소절, 생략 평서법(응답), 조정 의문법(청유) 형태인 것으로 정한다.
- (2) 단, 명령법은 원래 주어와 생략 되고, 의문법 중에서도 구어체에 주어를 생략하고 ‘알고 있느냐?’, ‘무슨 일이야?’ 등의 형태는 온전한 의문법으로 취급한다.
- (3) 한글과 영문 모두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의 경우(영문: When I was young, I was happy. / 한글: 내가 어렸을 때 말이야, 난 행복했지.)는 각 절을 주어와 동사가 있는 문장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 즉, 괄호 안의 예시의 경우 한글과 영문 모두 각각 2개의 평서법으로 분류된다.

담화 관계에 나타나는 힘과 거리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도구로는 아래의 <표 5>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각 영화 별 힘과 거리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 설정은 다음과 같다.

〈표 5〉 분석 도구 - 힘과 거리 별 유형

P/D 관계	정의	예시
+P, +D	위계적 친밀하지 않은 상하관계	상사 부하, 군신
+P, -D	위계적 친밀한 관계	부모자녀, 형제자매
-P, +D	평등 친밀 하지 않은 상호존중 관계	초면 교수
-P, -D	평등 친밀한 관계	친구 사이

-
- ③ ‘마마(highness)’등의 왕을 지칭하는 표현은 다 ‘호칭’으로 취급하되, ‘그러나 마마(But, your highness)’, ‘그게..마마(Well, highness)’ 와 같이 의미를 가진 부사형이 포함된 형태는 ‘소절’로 간주한다.
- 4) 본 분석도구에서 소절은 완전한 주어나 동사가 부재한 모든 대화 형태 및 말줄임표로 끝나는 문장들을 뜻한다.

<표 5>의 틀을 바탕으로, 각 영화 별 인물 간 담화 분류를 아래 <표 6>과 같이 정리 하였다.

<표 6> 영화 별 담화 인물 관계 정리

힘/거리	광해		관상	
+P/+D	하선(왕)	중전	수양	내경
+P/-D	하선(전)	도승지	내경(부)	진형(자)

권력과 거리 관계를 설정하는 기준은 각 표에서 왼쪽에 기재된 인물을 중심으로 한다. 즉, 위 표에서 <광해>의 첫 인물관계는 ‘하선(왕)과 중전’이다. 여기서 권력과 거리를 규명하는 기준은 ‘하선(왕)’ 입장에서 중전에게 느끼는 권력감과 거리감이다. 각 영화 별 관계설정 수가 상이하여, 여러 인물 관계가 나타나지만 본 논문에서는 +P/+D, +P/-D의 경우로 분석을 한정하였다. 수치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계산은 영화별로 총 대사 수 대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정리하였다.

분석의 신뢰도를 위하여 관련 연구자 1인의 분석결과와 대조분석 한 결과, <광해>에서 총 436개의자막 중 18개가 서법이나 발화에서 불일치를 보였으며 96%의 일치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관상>도 샘플링 형태로 일치도를 분석한 결과 96%이상의 일치도를 보였다.

4.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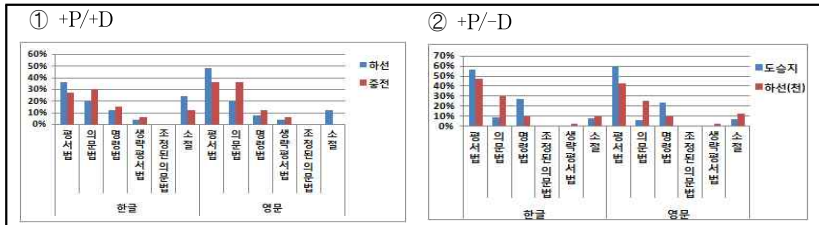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간 담화에서 권력과 거리를 기준으로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연구 질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 하였다.

연구 질문 (1)은 한국 영화의 한글과 영문 자막 중 인물 간 대화에 나타나는 대인간 힘의 관계에 따른 서법 양상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분석방법은 힘/거리 관계 인물 설정에 따라, 영화별로 한글과 영문 자막의 서법을 각 영화별로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화별로 한글과 영문에 나타나는 힘과 거리와 연관이 있는 문장의 서법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연구 질문 (2)는 도출된 서법 양상과 일반적 발화수행 기능의 일치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는 영화 별 분석

된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의 일치 여부를 분석한 후, 장르별·종합적 평균으로 산출하여 일치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영화별·장르별 자막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과의 관계가 한글과 영문에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성을 보이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4.1. 영화 별 한글·영어 자막 서법 분석

각 영화별로 힘과 거리 관계에 따라 한글과 영문의 서법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그림 2〉 사극 ‘광해’ 서법 분석

〈그림 2〉의 그래프 모두 한글과 영문 번역본에서 평서법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D ‘하선과 중전’의 담화에 나타난 서법양상은 한글과 영문 모두 평서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문에서 평서법·의문법 빈도가 한글보다 많고, 한글은 소절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극의 한글 구조가 ‘여봐라’, ‘이런, 고안..’, ‘예가 어디라고 감히..’ 식의 주어, 동사가 완벽하지 않은 구어체가 많기 때문이다.

(1) 예시문(a: (-P) → (+P))

a1. (그래프1 / 중전(-P)이 왕 하선(+P)에게)

Would you please come down? (의문법)

허면, 이제 그만... (소절)

a2. I beg your pardon? (의문법)

예? (소절)

예시문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전의 대사에서 한글은 ‘허면’, ‘예?’ 등의

완전한 구어체 소절 형태인 반면, 영문은 모두 주어와 동사가 다 있는 의문법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P/-D의 경우를 살펴보면 권력을 가진 인물의 대화에서 모두 평서법 사용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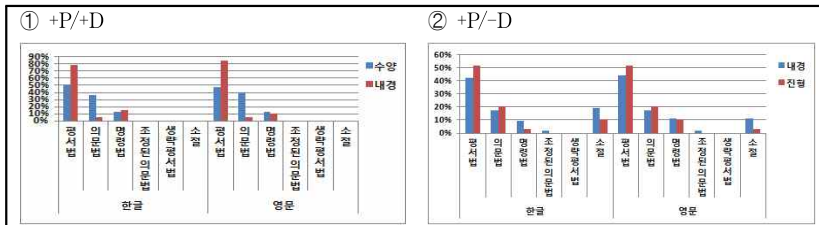
(2) 예시문(그래프2 / 도승지(+P)가 천출 하선(-P)에게)

It's for the good of the kingdom. (평서법)

나라를 위한 일이다. (평서법)

예시문 (2)를 보면, 권력자 도승지가 천출 하선에게 이르는 대사가 모두 한글, 영문 같은 평서법으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니앙스는 천출 하선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을 이르는 명령적 말투이지만 서법은 평서법이다. 간혹 전체적으로 한글보다 영문에서 '생략' 현상이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한글 자막이 문화적 색채가 너무 짙거나 달리 표현할 만한 자막 특성을 고려한 문구가 없는 경우의 번역 전략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광해>에 이어 이번에는 사극 <관상>의 분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래 <그림 3>은 사극 <관상>에 관한 분석 결과표이다.



<그림 3> 사극 '관상' 서법 분석표

<관상>에서 +P/+D 관계인 ①의 경우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가 주로 의문법, 권력이 없는 자는 주로 평서법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서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그림에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권력이 없는 자의 경우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는 사극에서 아랫사람이 위 양반이나 왕에서 '전하(Your highness)', '어르신(Your majesty)' 등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P/-D ②의 경우에는 비권력자가 평서법, 권력자가 의문법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소절도 빈번히 나타나는데,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격의 없이 거리가 가까운 경우, 주어와 술어가 분명한 대화 보다는 ‘거 참...’, ‘이럴 거야?’ 등의 구어체 형식이 빈번한 것이 그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3) 예시문(내경(-P)이 양반(+P)에게 ‘호칭’ 사용례)

1. Lord Kim (호칭)
좌상어른 (호칭)
2. Sir Jang Nyeong.(호칭)
어, 장녕어른! (호칭)

예시문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석의 범주에는 넣지 않았지만, ‘호칭’의 사용에 대한 예도 빈번히 살펴볼 수 있다.

영화별 한글과 영문 서법에 관한 그래프를 살펴보면, 모든 담화에서 한글 영문을 막론하고 평서법이 가장 빈번히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권력관계라도 영화별로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었다. 가령, +P/+D의 위치에 있는 인물의 대사는 사극의 경우, 한글에서는 <광해>에서 하선(왕)의 명령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평서법이 주를 이루며, 영문에서는 평서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관상>에서 관리대사는 주로 주어나 동사가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소절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때, 권력이 있는 인물과 없는 인물 대화 모두 소절의 형태가 가장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대화의 분위기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P/+D 위치에 있는 인물의 대사는 <광해>에서는 한글에서 응답과 의문법이, 영문에서는 의문법이 주로 사용되었고, <관상>에서는 한글, 영문 모두 평서법이 주류를 이룸을 알 수 있다.

4.2.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의 일치도

본 절에서는 분석된 서법이 화행의 측면에서 전형적인 발화수행 기능으로 실현이 되는지,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또한 한글과 영문에서 일치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아래는 각 영화별 서법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형적인 발화수행 기능과의 일치성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아래 <그림 4>에서 사극 <광해>의 발화수행 기능 일치도 분석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4〉 사극 '광해' 서법과 발화수행 일치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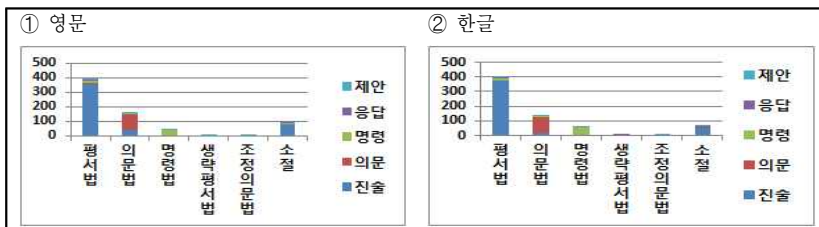
<광해>에서는 한글과 영문 모두 평서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되었으며, <그림 4>에서처럼 평서법에서 전형적 발화 수행이 아닌 다른 의도로 발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평서법의 전형적 발화 기능인 진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사용 되었지만, 명령이나 응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절은 한글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한글과 영문에서 모두 진술의 형태로 가장 많이 발현 되었다.

(4) 예시문 (도승지가 하선 왕에게)

I'll call for a high official's meeting. (평서법/진술)

당상관 회의를 준비하겠습니다. (평서법/진술)

위 예시문 (4)는 평서법이 전형적인 발화 수행 기능인 진술로 발현되는 예를 보여준다. <광해>에 이어, 다음은 인물 별 담화가 많았던 사극 <관상>에 대한 분석을 아래 <그림 5>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림 5〉 사극 '관상' 서법과 발화수행 일치도 분석

<관상>에서도 평서법의 사용이 가장 높고, <광해> 보다는 전형적 발화수행

기능인 진술의 기능으로 더 많이 발현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글과 영문 모두 의문법이 진술이나 명령으로 사용된 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글 보다 영문에서 소설의 사용 빈도가 높고 그 발화 기능은 주로 평서법인 것으로 나타난다. 서법 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광해> 보다는 <관상>에서 인물 관계상 '형님 내경과 아우 팽현', '아버지 내경과 아들 진형' 가족 간의 관계가 더 많이 분석 대상이 되었던 것이 소설의 빈도가 높아지게 된 원인 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5) 예시문(수양이 내경에게)

You probably can't read future, right? (의문법/진술)

진짜 점괘가 그리 나왔느냐 물었네 (평서법/진술)

위 (5)의 예시에서 수양의 대사가 영문에서는 의문법이 진술의 발화 기능으로, 한글에서 평서법이 진술기능으로 발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영화 자막에서 권력관계가 있는 두 사람의 담화에 나타난 서법유형과 그에 따른 발화수행기능이 한글과 영문에서 어떤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사극과 현대극의 분류를 통해 같은 권력을 가진 대인간의 담화에서 서법체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영화의 담화를 Scollon & Scollon(2001)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pm P$, $\pm D$)를 시도하였으며, Eggins(2004)의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 분류를 중심으로 담화의 대사에 나타난 서법과 발화 수행과의 일치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영화의 서법을 권력과 거리별로 분석해 본 결과, 2편 모두 한글과 영문 둘 다 평서법이 주류를 이루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진술적 내용을 수반하는 평서법이 쓰이는 것은 한글과 영어 담화에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장르의 같은 권력 체계를 가진 대화간의 담화와 하더라도 설정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언어별 서법 발현에 차이가 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다. 가령, <관상>의 경우에는 +P 지위를 가진 사람의 대화가 주로 평서법과 의문법으로 구성되는 반면, 영문

으로 번역된 서법을 살펴보면 주어와 동사가 완벽하지 못한 소절의 형태로 서법이 구성되었다.

둘째, 서법과 발화수행의 일치성을 분석해 보면, 한글과 영문 둘 다 평서법과 소절의 차이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평서법의 전형적 발화 형태인 진술이 소절의 형태로 발현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보다 영문에서 권력을 가진자의 명령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응답에 해당하는 생략 평서법의 경우도 한글 보다는 영문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난다. 권력이 있는 인물의 대사는 평서법이 주를 이루는데, 이를 통해 화행에서 선언이나 언약의 기능을 주로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권력이 없는 인물의 대사는 평서법 뿐만 아니라, 응답, 소절, 의문법의 형태가 두루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권력이 없는 자가 권력자와 대화를 나눌 때 주로 명령 하달, 질문에 대한 대답, 요청에 대한 응수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언어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의 다양한 서법으로 구현된 발화기능이 영문에서 생략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영화 영상물에서 주된 구도를 설정하는 인물의 권력간 담화에 나타나는 서법과 발화 수행기능을 한글과 영문 자막에서 추적해 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권력과 거리의 조건이 같은 담화를 사극과 현대극에서 추려내어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영화라 하더라도 극의 성질과 시대적 배경 상 사용되는 언어표현을 고려한 자막번역이 이루어져야 함을 구체화 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한국 영화에서 한글자막이 영문자막으로 번역되면서, 같은 장면의 동일한 인물 간 대화라 하더라도 서법 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사극과 현대극 모두 대체로 권력을 가진 자의 대사가 평서법을,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의 대화는 응답, 소절, 의문법 형태를 가진다는 사실을 토대로, 한글과 영어의 근본적인 언어 체계나 문화적으로 같은 권력이라도 대화자간 니앙스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편의 영화에 국한된 분석이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 연구를 기점으로 좀 더 광범위한 양적 연구를 통하여, 영상 번역에서 언어적·문화적 모미를 살려서 번역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법을 구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령, 분석된 데이터로 코퍼스를 구축하여 다양한 영상에서 적절한 번역기법을 구체화 하여, 실전에서 한글 영상물 번역에 임하는 번역가들에게 영상물의 목적과 배경에 부합하는 다양한 번역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면, 좀 더 진정성 있고 제대로 된 한국 문화 및 영상의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는 번역물이 창조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본 연구를 심화 시켜, 장르별로 더 많은 연구를 수행하여 본 결과를 일반적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권력에 중점을 두고 분석했다면, 같은 권력 상 거리가 다른 관점에서 대인 관계에 따른 서법과 발화수행 기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해 보는 등 다양한 설정을 통한 분석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Works Cited

- 고영근. 2007. 『한국어의 시제서법 동작상』, 서울: 태학사.
- 김순영·정희정. 2010. 「인터넷기반비전문가자막번역」, 『번역학연구』 11.4: 75-97.
- 권오숙. 2013. 「한국문학 텍스트 영역에 나타난 문화소 번역의 경향 연구」, 『통번역학 연구』 18.3: 263-289.
- 김지홍. 2011. 『언어와 권력』, 서울: 경진.
- 김진완. 1998. 「담화 유형이 언어회상 및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영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태엽. 2000.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어문학연구』 33:47-68.
- 김현주. 2006. 『고전서사체 담화분석』, 서울: 보고사.
- 노상희·박기성. 2008. 「한·영 번역과정에서의 서법전환에 관한 연구」, 『언어학』 16.4: 111-128.
- 문태현. 2005. 「정책담론과정에서 권력불균형의 통제방안」, 『한국행정학회』 4: 95-110.
- 박영선. 2004. 『한국어 의미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옥수. 2011. 「한영문학 번역에서 문체의 반영」, 『겨레어문학』 46: 69-95.
- 박윤조. 2012. 「충체적 국어교육을 위한 서법교육의 교수, 학습적용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번역학연구』 8.1: 125-149.
- 박윤철. 2009. 「영상번역에서 인표내적 화행 연구」, 『통역과 번역』 11.2: 65-84.
- 박찬순. 2013.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서울: 한울.
- 박초롱. 2013. 「한국 영어학습자의 요청 및 거절화행 수행 능력에 대한 연구: 권

- 력관계와 거리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용학. 1995. 「언표내적 힘의 관점에서 본 담화분석」. 『새한영어영문학회』 37.1: 247-273.
- 송경숙. 2005. 『담화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송재룡. 2014. 「유교의 문화·언어 습속과 권력 현상: 존·비어체계의 '문화적' 권력성을 중심으로」. 『사회사상과 문화』 29: 285-314.
- 심상민. 2006. 「한국 문화콘텐츠 더빙,번역,자막 활성화 방안 연구」. 『인문 콘텐츠 학회』 11: 145-166.
- 안정효. 1996 『번역의 테크닉』, 서울: 우석출판사
- 오미형. 2010. 「언어유희 한영 자막번역전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우형숙. 2006. 「아동문학작품의 한영 번역 오류 분석」. 『번역학 연구』 7.2: 105-125.
- 윤학로·김남연. 2007. 「자막번역의 이론과 실제: 「미치광이 피에로를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28: 303-324.
- 이성범. 2015. 『소통의 화용론』, 서울: 한국문화사
- 이승재. 2012. 「문화층위와 문화소: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접근」. 『번역학연구』 13.1: 137-166.
- 이주은. 2014. 「영상 텍스트의 대사 외 자막번역」. 『통역과 번역』 16.2: 157-177.
- 이혜윤. 2015. 「한국어 문장 유형의 분류」. 『한국어 의미학』 47: 167-189.
- 이효성. 2014. 「언어 행위론에 관한 일고찰: 소통학과 권력론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5: 40-78.
- 임동훈. 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회』 26: 211-249.
- 임웅순·정군오·김의범. 2011. 「영화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 『산업혁신연구』 27.1: 28-108.
- 정보라. 2013. 「바실리 숙련의 단편에 나타난 언어와 권력의 문제」. 『슬라브학보』 27.4: 335-364.
- 정희자. 2009. 『담화와 문법 그리고 의미』, 서울: 한국문화사.
- 조재범. 2014. 「한영자막과 문화소 번역전략」.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영난. 2012. 「담화문법 관점의 구어종결 표현 교육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필숙나. 2012. 「한·중서법표현에 대한 대조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선길. 1999. 『문법파괴 영상번역』, 서울: 범우사.
- 허준·표경현(2014). 「번역투를 이용한 한영 번역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실험연구」. 『현대영어교육』 15.2: 177-200.
- Austin, John. Langshaw. 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London: University of Oxford Press.
- Baker, Mona. 2005. 'In Other Words': Coursebook of Translational Studies. London and Newyork: Routledge.
- Morand, A. David. 1996. 'Dominance, Deference, and Egalitarianism in Organizational Interaction: A Sociolinguistic Analys of Power and Politeness'. Organization Science. 7.5:553.
- Alan, Duff. 1981. 'The Third Language: Recurrent Problems of Translation into English'. Oxford: Pergamon Press.
- Eggins, Suzanne. 2005. 'Introduction to 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2nd edition, Continuum Intl Pub Group.
- Foucault, Michael. 1972.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New York: Pantheon Books.
- Guy, Cook. 2003. 'Discourse', Oxford Language Teaching.
- Martin, James. Robert. & Christian, Matthiessen. & Painter, Clare. 2010 'Deploying Functional Grammar', Beijing: The Commercial Press.
- Trincanato, Elena. 2009. 'Translating Films, Translating Cultures'. Translation Studies. 10.4: 343-362.
- Thompson, Geoff 2013. 'Introducing Functional Grammar'. 3rd edition, London: Rodedge.
- Karlberg, Michael. 2005. 'The Power of Discourse and The Discourse of Power: Pursuing Peacethrough Discourse Inter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Studies, 10.1: 1-23.
- Nur, Shakila. 2015. 'Analysis of Interpersonal Metafunctional in Public Speeches: A Case Study of Nelson Mandela's Presidential Inauguration Speech'.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Sciences. 30.1: 52-63.
- Scollon, Ron. & Scollon, Wong. Suzanne. 200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Discourse Approach'. 3rd edition. Americas: Wiley-Blackwell.

- Searle, R. John.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elinker, Larry.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9-241

■ 분석대상 사이트 참조

1. <관상>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93728>
2. <광해>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3893>
- 3.<한반도>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41705>
- 4.<효자동>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37380>

Abstract

Power and Mood System - <Masquerade>, <The Face Reader> Traditional Korean Movie Subtitle Translation -

Kim, Yeon Ju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gure out the pattern of mood type and speech function on each sentence of discourses based on power and distance relationship both in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for 2 Traditional Korean movies. In addition, they were analyzed per genre-traditional and modern movie- under the same condition of power and dis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Mainly, Scollon & Scollon's interpersonal relation category per power and distance and Eggines's types and speech function were applied to analyze the data.

The thesis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ntroduces the purpose and necessity of this study with study background. And theoretical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are described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 method of study, which elaborates the tool created referring to Downing & Locke, Scollon & Scollon, Eggins and Jeongsu Seo's thesis, is described a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ata is followed in chapter 4. Lastly, the summary of findings, contribution and limitation of this study are found in chapter 5.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presented as below.

The first finding is that declarative form was used the most both in Korean and English subtitles. Second, minor clause, imperative form were mostly used in traditional movies. Third, analyzing correspondence ratio between mood types and speech function, the biggest gap was found in

declarative form and minor clause, which means not a few declarative forms supposed to act as statement were expressed as the different speech functions. and skipping technique in English subtitles seems to be utilized in translation.

Through this research, it will be helpful to definite the pattern of mood types and speech function in subtitles of Korean movies, as well as difference between subtitles of Korean and English mainly resulted from the origin of language itself and cultural background. Also,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the better skill on audio-visual translation considering power and dista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well as genre.

영상번역에서 가창성이 노래 번역에 미치는 영향 -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김 세 현

제1장 서론

영상물은 시·청각 매체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모드적(multimodal)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국내 영상번역 연구동향¹⁾에 따르면 여전히 영상번역 연구는 대사를 중심으로 한 자막, 즉 활자 중심에 머물러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활자에서 활자로만의 연구가 아니라 시·청각적 요소까지 접목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는 영상번역 연구에서 출발하되 노래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 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노래 가사의 시·청각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논의를 펼치겠다.

뮤지컬 애니메이션은 목표관객인 아동을 고려해 자막과 더빙으로 제시되고, 더빙인 경우 노래는 처음부터 ‘노래 부르기 위해 쓰인(written to be sung)’ 텍스트이므로 노래 부르기 쉽게 번역하는 가창성(singability)을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갖고 있는 이러한 장르적 특성에 주목하여 <겨울왕국>의 노래 자막과 더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 번역 전략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겨울왕국>에서는 어떠한 전략이 적용되었는가? 둘째, 상기 질문에서 확인된 전략은 노래의 자막과 더빙 번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본 논문은 상기 연구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다음과 같이 총 3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가창성과 자막·더빙 번역의 특징을 주로 논의하는데 Low(2003, 2005)와 Franzon(2008)는 가창성을 번역 기법과 접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므로 이들의 이론을 자세하게 살펴본다. 3장에서는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의 자막과 더빙에서 특징이 되는 자질들을 기술론적으로 파악한다. 이후, 해당 자질들을 통합·유형화하여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 번역 전략 분석 범주를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석 대상 텍스트인

1) 조성은(2014: 210-219)

<겨울왕국>의 노래의 자막과 더빙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이번 연구의 의의와 함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면서 본 논문이 마무리되겠다.

제2장 이론적 고찰

2.1. 가창성

노래 번역 연구에서 가창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언급한 학자는 Low(2003, 2005)이다. 그가 주장하는 가창성은 다소 제한적인 개념인데, 특정 음가(note values)에 맞춰 노래 부르기 쉬운 단어를 선택하는 것, 즉, 번역된 가사의 ‘음성적 적합성’(phonetic suitability)²⁾(Low, 2005: 192-194)이라고 한다.

Franzon(2008)은 가창성을 ‘텍스트와 음악 작품 간 음악적-언어적 합치의 달성(the attainment of musico-verbal unity between the text and the composition)’이라고 보았다. 가창성을 갖춘 가사는 운율적(prosodic), 시적(poetic), 의미적(semantic-reflexive) 층위에서 합치를 달성한다. <표 1>은 가창성을 갖춘 가사의 구체적인 구성 요소이다(Franzon, 2008: 390).

<표 1> 가창성을 갖춘 가사의 구성 요소

가창성의 범주	구체적인 구성 요소
운율적 합치	음절수, 리듬, 억양 및 강조, 부르기 쉬운 소리
시적 합치	운율, 구/절/연의 구분, 병렬 및 대조, 핵심어 위치
의미적 합치	이야기/분위기/인물 표현, 생생한 묘사, 은유

첫째, 운율적 합치는 음절수, 리듬, 억양 및 강조, 부르기 쉬운 소리로 표현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 텍스트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단어나 구를 추가/생략하는 방법이 있다. 또, 강박과 약박의 위치에 맞춰 가사의 강세가 오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포르시티모(fortissimo)가 오는 강박에서는 강세 있는 음절이 오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음 길이가 짧은 음(8분 음표, 16분 음표)은 단모음과 음

2) 예를 들어, 모음 1개에 자음 5개 붙어있는 “strict”라는 단어가 나올 경우 의미가 상실되더라도 이중 모음이 있는 “tight”를 사용하면 노래 부르기가 쉬워진다. 또 길이가 긴 음에는 “the” 대신에 장모음 지시사 “these”나 “those”로 바꾸는 것이다(Low, 2003: 93).

길이 긴 음(온음표, 2분 음표)은 장모음이나 이중모음과 결합하여야 운율적 합치가 달성될 수 있다(Low, 2003: 93-94).

둘째, 시적 합치는 운율, 구/절/연의 구분, 병렬 및 대조, 핵심어 위치에 의해 달성되는데 보통 각운을 맞추어 음악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외에도 통사적 병렬구조(syntactic parallelism)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막에서의 통사적 병렬구조는 관객으로 하여금 해당 자막을 유표적(marked)으로 인식하게 한다.

셋째, 의미적 합치는 이야기/분위기/인물의 표현, 생생한 묘사, 은유로 구현되는데, 가사는 음악이 전하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장면·인물 묘사에 사용되는 언어 사용역이나 은유적 표현이 음악적 분위기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적 제약에 의해 의미가 전이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의미의 비합치 양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Franzon과 Low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운율적 합치, 시적 합치, 의미적 합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번역 목적에 따라 상이한 전략이 선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략 선택에 있어 주요 요인은 노래가 제시되는 방식(mode of presentation)이다(Franzon, 2008: 396).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제시되는 방식으로는 글로 제시되는 자막, 성우가 노래를 직접 불러 사운드로 제시되는 더빙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장에서 이어지겠다.

2.2. 영상 번역

가. 자막번역

자막번역은 영상에 나타나는 담화적 요소(글자, 삽입문 등)와 사운드트랙(노래, 보이스 오프)에 포함된 정보를 고려해 등장인물의 발화(구어)를 일반적으로 화면 화단에 문어(written) 텍스트로 제시하는 번역방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구어에서 문어로 매체가 전환된다는 것은 구어가 갖는 전형적인 자질 중 일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Díaz Cintas & Remael, 2007: 8-61).

이렇게 구어에서 문어로 전환된다는 점 외에, 자막번역의 또 다른 특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들 수 있다. 자막은 스크린 하단에 두 줄까지 허용된다는 공간적 제약과 일반적으로 2~4초(최대 6초)까지 허용된다는 시간적 제약이 수반된다(강지혜, 2006: 29).

또, 자막 번역에서는 ST의 사운드트랙을 유지한 채 TT를 문자 형태로 제시하기 때문에 ST와 TT가 공존하게 된다. 그래서 SL와 TL에서 음성학적으로나 형태론적으로 강한 유사성이 있는 어휘들은 관객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TT에서도 살려주는 것이 일반적이다(Díaz Cintas & Remael, 2007: 55-57). 관객이 인식할 수 있는 언어적 항목은 정확하게 직역하여 TT 자막에서도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기대된다(Karamitroglou, 1998: 6).

자막 표기상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면, 자막에서는 쉼표(,), 물음표(?), 줄표(-), 느낌표(!)와 같은 문장 부호, 그리고 기울임체 글꼴 등이 주로 쓰인다. 느낌표는 분노, 경멸, 놀람, 행복, 불쾌감 등 다양한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러한 문장부호를 적절히 사용한다면 발화 내용이 강조되고, 발화에 운율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막번역은 구어에서 문어로의 전환, 시·공간의 제약, ST와 TT의 공존, 문장부호의 사용 등의 특징을 갖는다.

나. 더빙번역

더빙번역은 영화의 원천어(SL) 대사로 이루어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목표어(target language, TL)로 녹음되는 다른 사운드트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번역된 대사가 화면과 맞아야(박찬순, 2005: 44) 하고 자연스럽고 그럴듯하게(natural and credible) 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더빙의 특성 때문에 더빙 언어가 ‘가공된 구술성(prefabricated orality)’을 지닌다고 간주되었다(Baños-Piñero & Chaume, 2009).

또 다른 더빙번역의 특징으로 동시성(synchrony)이 있는데, 1)음성학적 동시성(lip or phonetic synchrony), 2)동작학적 동시성(kinesic synchrony), 3)동시발생적 동시성(isochrony)이 이에 해당한다. 음성학적 동시성은 번역을 화면 속 배우의 입술 움직임에 맞추는 것이고 동작학적 동시성은 번역이 화면 속 배우의 동작과 부합하는 것이다. 동시발생적 동시성은 번역된 대사가 화면 속 인물의 발화 길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Chaume, 2012: 68-69).

제3장 텍스트 분석

3.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영상번역에서 가창성이 노래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우선, 연구대상으로 단순히 노래가 수록된 영화가 아니라 노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월트 디즈니사의 대표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범위를 축소하였고, 그 중에서도 <겨울왕국>을 대상 영화로 선택했다. 수록된 전곡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ST, TS(TT-subtitling, 자막), TD(TT-dubbing, 더

빙)에서의 노래 번역 전략을 살펴보는 예비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은 Chaume(2012: 91-92)이 제시한 더빙언어를 기술론적 분석하기 위한 4단계³⁾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대표성을 지니는 코퍼스를 선정하기 위해 <겨울왕국>에 수록된 총 9곡에 대한 원천어 자막(ST), 목표어 자막(TS), 목표어 더빙(TD)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자막 수 산정 시 ST 자막에서 기움임체나 음표(♪) 등의 기호를 사용해 노래 가사로 구분되는 것만 산정하였고 한 화면에 두 줄로 나타난 자막은 하나로 산정하였다. SL 텍스트 및 TL 텍스트의 자막(ST, TS)은 자막 텍스트 추출에 필요한 프로그램(Subtitle Edit, VSRip, Subresync)을 사용하여 DVD에서 추출하였다. 더빙 텍스트는 DVD를 재생한 뒤 실제 들리는 가사를 그대로 전사(transcription)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다. 전사된 데이터는 다른 두 연구자에 의해 총 3회 검토되었다.

텍스트 분석 단계에서는 우선 Franzon(2008)이 제시한 1)운율적, 2)시적, 3)의미적 합치 분석들에 덧붙여, 영상번역 이론에서 다룬 특성을 중심으로 4)자막 모드의 영향, 5)더빙 모드의 영향이라는 범주를 추가해 노래 가사의 언어적 자질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각 범주별 발현 개수가 총 10회 미만인 것은 폐기한 후, 발현 개수가 총 10회 이상이고 어느 한 곡만이 아니라 모든 대상 곡에서 확인되는 자질을 통합하여 유형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 범주별 세부요소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 2〉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의 번역 전략 분석 범주

범주	세부요소
운율적 합치	음절수
	강세
	각운
시적 합치	통사적 병렬구조
	대체

- 3) 첫째, 대표성을 지니는 코퍼스를 선정, 둘째, 분석틀을 사용해 언어적 자질 파악, 셋째, 목표 언어에서 유용하지 않은 데이터 폐기, 넷째, 목표 언어에서 특징적인 새로운 자질들을 통합하여 정의

의미적 합치	정보 변화
	명시성 변화
	행위주체 변화
자막 모드의 영향	원전이 들림
	문장부호 사용
더빙 모드의 영향	가공된 구술성 (도치, 청자존대법, 조사 생략)
	동시성 (음성학적 동시성, 동작학적 동시성)

운율적 합치에서, 음절수에 대해서는 음절의 개수 및 ST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고, 강세에 대해서는 강박에 핵심어 (또는 내용어), 약박에 기능어(예: 조사)가 배치되어 음악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언어적으로도 강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시적 합치에서는 ST에서 확인된 각운(rhyme)과 통사적 병렬구조가 각 TT에서는 어느 정도 구현되는지 확인하였다. 의미적 합치에서는 Franzon의 모델이 다소 추상적이고 해석적인데다, 정량적 분석에 적합하지 않아 Chesterman(1997: 87-116)이 제시한 의미적 번역전략(semantic translation strategy)을 바탕으로 범주를 설정했다. 대체(paraphrase), 명시성 변화(explicitness change), 정보 변화(information change), 그리고 행위주체 변화가 주요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Franzon이 제시한 운율적·시적·의미적 합치 외에 더빙과 자막 모드의 특성이 반영된 번역도 확인되었다. 자막은 더빙에 비해 문어적 특징이 두드러졌고, 원전이 들리기 때문에 ST의 제약(정재영, 2008: 71)을 받았다. 더빙은 도치, 청자존대법, 조사 생략과 같은 구어체적 특징이 확인되었고(정재영, 2008: 70), 더빙 모드의 특징인 동시성(synchrony)이 TT 번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3.2. 연구내용

(1) 운율적 합치

먼저 음절수 분포를 통해 가사의 양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ST의 음절수는 영영사전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중모음은 한 음절로 산정하였다. 우리말에서 음절수는 한 글자가 한 음절을 갖기 때문에 글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다.

〈표 3〉 겨울왕국 - 운율적 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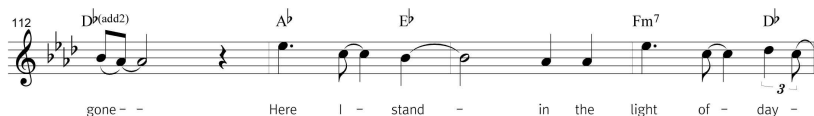
범주	세부요소	ST	%	TS	%	TD	%
운율적 합치	음절수	2,256	100%	2,721	121%	2,333	103%
	강세	61	100%	27	44%	51	84%

〈표 3〉은 음절수와 강세가 구현된 발현 개수를 나타낸 표다. 〈겨울왕국〉의 ST 총 음절수는 2,256개, TS는 2,721개, TD는 2,351개로, ST 대비 TS의 음절수 비율은 121%, ST 대비 TD의 음절수 비율은 103%이다. 음절수 비율은 100%에 가까울수록 음절수가 비슷한 것으로, 자막의 경우 원곡과 음절수 차이가 큰 반면, 더빙은 원곡과 음절수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음절수가 비슷하면 노래 부르기가 쉽기 때문에 운율적 합치 측면에서 가창성이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ST에서 강세가 확인되는 경우는 61회였는데 TS에서는 27회인 반면, TD에서는 51회로, ST의 강세가 TD에서 더 많이 구현되었음이 확인됐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정성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안나’ 공주가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경우, TD(음악연주(4)/들으며(3))가 ST(There’ll be music(4)/There’ll be light(3))와 음절수를 맞추기 위해 “There’ll be light”라는 구문 전체가 생략되었다. 반면, TS(음악도 있고/불빛도 환하겠지)는 ‘음악’과 ‘불빛’이라는 핵심어를 모두 보존하여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는 대신 음절수는 차이를 보이며 가창성을 다소 희생시켰다.

운율적 합치를 통해 가창성을 구현하는 두 번째 요소는 강세(Stress)인데, 이것은 각 단어 고유의 보격상의 강세와 선율상의 강약 강세가 일치하여 강박일 때 강세 있는 음절이 배치되는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은 “Let It Go”의 악보 발췌본으로, 4/4박자에 강-약-중강-약의 강박 패턴을 보인다. ST에서 고음과 강박이 모두 Here, light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TD에서 ‘당’과 ‘가’의 음절로 번역되었다. 각각 ‘당당하다’의 부사 ‘당당히’와, ‘살다’+‘가다’가 결합한 ‘살아가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실질형태소⁴⁾에 해당하며 강박과 음절의 강세가 일치한다. TS의 경우 음절에서 강박이 구현되지 않았지만 자막에 느낌표를 삽입하여 원곡에서 강조되는 느낌을 문장 부호로 표현하였다.

4)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를 뜻하며, 이와 대조되는 개념인 형식 형태소는 실질 형태소에 붙어 주로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표시하는 형태소로, 조사, 어미 따위가 해당 된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그림 1〉 “Let It Go” 악보 발췌본

<예1>

ST: Here I Stand | in the | light of day

TS: 나 여기서 살리라 | 이 눈부신 세상에!

TD: 달당히 | 살아 | 가리라

[“Let It Go”]

(2) 시적 합치

시적 합치 측면에서는 각운과 병렬구조의 발현 개수가 높게 나타나 이러한 요소에 해당하는 자막을 <표 4>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ST에서는 각운이 73회 확인되었는데, TS와 TD에서는 각각 24회(33%), 41회(56%)로 파악되었다. 이 수치는 ST의 각운을 그대로 재현한 것과 ST에는 없지만 TT에서 새롭게 각운을 사용해 음악적 효과를 표현한 것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병렬구조 역시 TS(15회, 38%)보다 TD(29회, 74%)에서 더 많이 확인되었다.

〈표 4〉 겨울왕국 - 시적 합치

범주	세부요소	ST	%	TS	%	TD	%
시적 합치	각운	73	100%	24	33%	41	56%
	병렬구조	39	100%	15	38%	29	74%

트롤들의 합창곡 “Fixer-Upper”의 경우, ST(Is it the clumsy way he walks?/Or the grumpy way he talks?)의 각운 ‘walks[wo:ks]’와 ‘talks[to:ks]’가 TD에서는 혀의 위치(후설모음)와 혀의 높낮이(중모음)가 동일한 모음 ‘ɪ’가 포함된 ‘(들)어’와 ‘(버벅거려)서’로 표현되어 운율적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의 경우 ST(Don’t let them in/Don’t let them see)에서 두운과 통사적 병렬구조로 형성되는 운(“Don’t”)이 TD(맘 열지만/들키지만)에서는 어간에 ‘지 마(라)’는 부정 명령형 어미가 붙은 형태로 각운이 표현되었다. 반면, TS(절대 들켜선 안 돼)의 경우 이러한 운율적 효과를 재현하지 못

하고 있다.

시적 합치를 이루는 또 다른 요소로 통사적 병렬구조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예문들은 모두 더빙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지만, 병렬로 인한 시적 효과는 자막이라는 시각적 기호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막은 화면 상에 두 줄까지 허용되는데, Díaz-Cintas & Remael(2007: 176)은 두 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된 자막의 경우 한 줄에 한 문장씩 자막이 배치되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자막의 특성을 고려해 병렬 구문을 첫 줄과 둘째 줄에 나란히 배치하면 병렬 구문이 더욱 부각되고, 관객이 읽기에도 쉬워진다. "Frozen Heart"의 경우, ST(Strike for love and strike for fear)는 두 문장을 접속사 and로 연결하여 한 줄에 나타냈지만 TS(사랑을 캐내세/두려움을 캐세)는 각 문장을 한 줄씩 병렬 배치하여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두 개의 핵심어를 강조했다. 번역자가 TD(두려움과 사랑 위해)에서는 병렬 구조를 재현하는 대신 음절수를 맞춰 가창성을 구현하려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T의 두 문장이 구성하는 병렬과 대조를 통한 시적 효과 대신 음절수를 유사하게 맞춰 가창성을 구현하려 한 것이다.

(3) 의미적 비합치

의미적 합치 여부는 Chesterman(1997: 87-116)이 제시한 정의를 기준으로 하였다. 대체는 ST를 의역, 또는 유사역하는 것으로, 어휘적 층위에서 특정 의미적 요소는 무시하고 메시지의 전반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 변화는 ST에 함축되지 않은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전략이다. 명시성 변화는 ST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텍스트의 명시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전략을 뜻한다. 행위주체 변화는 한국어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무생물 주어가 ST에 사용된 경우라든지, 복합문이 단문으로 번역되면서 행위주체가 바뀐 경우를 말한다.

〈표 5〉 겨울왕국 - 의미적 비합치

범주	세부요소	TS	%	TD	%
의미적 비합치	대체	57	59%	68	42%
	정보 변화	9	9%	63	39%
	명시성 변화	14	15%	19	12%
	행위주체 변화	16	17%	12	7%
	계	96	100%	162	100%

<표 5>는 의미적 비합치가 발생한 빈도와 그 비율을 나타낸 표다. 대체 전략은 TS와 TD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노래 가사 번역에서 일부 요소는 희생하되, 전반적인 메시지 전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보편적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정보 변화 항목이다. TS에서는 정보 변화가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해 ST에 있는 정보를 삭제하거나 ST에 없는 정보를 추가하는 경우가 적어 다소 충실하게 번역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반면, TD에서는 정보 변화가 40%에 가까운 높은 비율로 확인이 되었는데, ST에 충실하게 번역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xer-Upper”는 트롤들의 합창곡이다. 후렴구(refrain)가 나오는 시점에서는 트롤들이 다 같이 반복해서 부르는 장면이 시각적·청각적 요소로 제시된다. TD(모두가 다 알아, 부족한 점)의 경우 합창곡이라는 점을 고려해 번역자는 ‘그는 부족한 점이 있어’ 대신, ST(So, he’s a bit of a fixer-upper)에 없는 ‘모두가 다 알아’라는 구문을 첨가하여 정보 변화가 발생했다.

‘안나’의 독창곡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에는 ‘대체’ 전략이 사용되었다. TS(나 여기 있어/들여보내줘)는 ST(I’m right out here for you/Just let me in)의 의미를 비교적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반면, TD(나 항상 기다려/문 열어줘)는 닫힌 문 뒤에서 언니 ‘엘사’가 문 열고 나오길 기다리며 부르는 노래의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해, ‘기다려’, ‘문 열어줘’라는 구문을 사용하는 ‘대체’ 전략이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명시성 변화’ 전략이 채택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안나과 엘사가 부르는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Reprise)”에서는 ST의 ‘deep, deep, deep, deep’이라는 구문이 TS에서는 그대로 ‘깊이, 깊이, 깊이’로 번역됐지만, TD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었다. ST에서 ‘deep’이라는 핵심어를 반복해 강조한 것이 TS에서도 충실히 유지되고 있는 반면, TD에서는 ‘deep’을 완전히 배제한 채 번역하여 명시성이 줄어든 경우이다.

앞서 살펴본 예와 같이 가사의 전체적인 가창성 효과를 위해 여러 전략이 동시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 Franzon(2008: 389)도 주장하지만, 가창성을 갖춘 노래 번역을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노래가 수행하는 기능과 퍼포먼스이다. 따라서 원곡의 가사 내용과 형식을 존중할지 여부는 노래가 의도한 기능과 음악적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4) 자막모드의 영향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자막이라는 모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문자적 표현이다. TS(자막)에서 문장부호를 사용한 예 중에는 ST의 문장부호를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번역자가 ST에 없는 문장부호를 창조적으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안나’와 ‘한스’의 중창곡인 “Love is an Open Door”의 후렴구에서, ‘door’와 ‘with you’는 이 곡의 강박 패턴(4/4박자, 강-약-중강-약)상 강박이 오는 자리이며, ‘안나’와 ‘한스’가 동시에 부른다. 이러한 음악적 고조를 고려해 번역자는 TS(문!/그대만 있으면!)에서 ST에 없는 느낌표를 추가해 텍스트를 강조하였다.

자막 모드가 노래 번역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특징은 더빙과는 달리, 원곡의 사운드트랙이 그대로 보존되어 관객에게 들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관객이 인식할 수 있는 어휘, 목표어와 음성적·형태적 유사성이 있는 용어가 나올 때,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다(Díaz Cintas & Remael, 2007: 56).

이렇게 자막이라는 번역 모드의 영향을 받은 번역의 개수는 아래 <표 6>과 같다. 세부요소인 문장부호의 사용이 78회(78%), 원전이 들리는 현상이 22회(22%)로 문장부호 사용의 발현 개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원전이 들리는 현상 역시 발현 개수는 낮지만 관객이 청각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번역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표 6> 겨울왕국 - 자막모드의 영향

범주	세부요소	TS	%
자막모드의 영향	문장부호 사용	78	78%
	원전이 들림	22	22%
	계	100	100%

(5) 더빙모드의 영향

더빙은 크게 ‘가공된 구술성’과 ‘동시성’의 특징을 지닌다. 우선, 도치를 통한 유표적인 어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눈사람 ‘올라프’가 부르는 “In Summer”의 경우 TD(정말 난 궁금해/우리 친구들 생각이/정말 멋진 거야. 여름날/눈사람!)가 우리말에서 일반적인 목적어(object)+술어(predicate) 구성이 아니라, 모두 술어(P)+목적어(O)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도치가 되었다. TS(친구들이 날 보고/뭐라고 할지 궁금해/여름날 난 얼마나/알록달록 예쁠까?)에 비해 TD는 도치를

통해 더빙 언어의 구술성(orality)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음절수 일치를 이뤄 운율적 합치를 이룬다.

더빙 모드는 자막보다 구술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구어체적 특징이 두드러졌다. 김미형(2004: 66)에 따르면 청자지향성이 높은 구어에서는 청자 존대법이 필수이다. ‘크리스토프’가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순록 ‘스벤’에게 복화술을 사용해서 대화체 형식으로 노래 부르는 “Reindeer(s) Are Better Than People”의 경우, TS(“맞아, 인간은 때리고 욕하고 속이기만 해/인간은 다 나빠, 너만 빠고”)에서는 주인공 ‘크리스토프’에 대한 격식성이 드러나지 않지만 TD(“네, 사람들은 때리고 사람치고 욕해요/주인님만 빠고 못 됐어요”)에서는 ‘주인님’이라는 어휘와 해요체를 사용해 격식성을 드러내고 있다.

구술성에 기여하는 세 번째 요소는 조사 생략이다. 구어 자료와 문어 자료에서 조사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김건희·권재일(2004)의 연구에 따르면, 구어에서는 문어보다 조사 생략이 훨씬 잘 일어난다. 조사는 크게 격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로 구분되는데, 접속 조사와 보조사보다는 격조사의 생략 또는 축약이 두드러지며, 격조사 중에서도 목적격 조사 ‘을/를’의 생략이 다른 격조사의 생략보다 훨씬 높다(김건희·권재일, 2004: 9-12). “In Summer”에서 생략된 목적격 조사에는 ‘나는 범(을)’, ‘선탄(을)’, ‘겨울(을)’이 있다. 또 주격 조사도 생략되었는데 ‘눈 사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더빙 모드의 특징인 동시성은 음성학적 동시성, 동작학적 동시성, 동시발생적 동시성으로 나뉘는데 동시발생적 동시성(isochrony)은 노래의 리듬에 맞춰 음절수를 맞추는 운율적 합치와 관련되므로 제외하고 음성학적 동시성(lip or phonetic synchrony) 및 동작학적 동시성(kinesic synchrony)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음성학적 동시성은 등장인물의 입술 움직임과 맞추는 것인데 주로 저모음(open vowel), 양순음(bilabial)과 순치음(labio-dental consonants)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Chaume, 2012: 73-74). 저모음에 속하는 모음은 영어에서는 [a], [e], [æ], [ʌ] 등이, 우리말에서는 모음 ‘ㅏ’와 ‘ㅓ’ 등이 있다. 동작학적 동시성은 영상에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동작과 부합되게 번역하는 것을 말하는데 합창곡 “Frozen Heart”은 얼음을 톱으로 자르는 장면과 함께 연주되고, TD의 번역에서 이러한 동시성을 확인할 수 있다. ST의 ‘cut’, ‘split’에 대해서 TD에서는 ‘자르세’와 ‘깎 때면’으로 번역되어 톱으로 얼음을 자르고 깨는 영상 속 동작과 일치하는 동시성을 달성하였다. 더빙에서는 SL 가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원곡의 내용보다 화면과 부합하는 동작학적 동시성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이, 더빙이라는 번역 모드의 영향을 받은 번역의 개수는 아래 <표 7>과 같다. 세부요소인 가공된 구술성이 68회(52%), 동시성이 62회(48%)로 두 가지 요소 모두 비슷한 비율로 영향을 주었음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가공된 구술성에 기여하는 요소 중 조사 생략이 가장 두드러졌고, 동시성에서는 음성학적 동시성이 동작학적 동시성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성학적 동시성은 합창곡보다는 독창곡에서 많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독창곡에서 등장인물이 클로즈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7> 겨울왕국 - 더빙모드의 영향

범주	세부요소		TD	%
더빙모드의 영향	가공된 구술성	도치	17	25%
		청자존대법	12	18%
		조사 생략	39	57%
		소계	68	52%
	동시성	음성학적 동시성	49	79%
		동작학적 동시성	13	21%
		소계	62	48%
	계		130	100%

이상으로 <겨울왕국>에 수록된 9곡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분석 결과, TS는 최소한의 정보 변화가 발생하며 의미적 합치를 중시한 반면, TD는 운율적·시적 합치를 중시하였다. TD의 의미적 비합치 전략을 분석한 결과, 정보 변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였는데, 이를 통해 더빙에서는 정보 손실을 감수해서라도 음절수를 일치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자막과 더빙의 차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운율적 합치에서는 음절수, 시적 합치에서는 각운, 의미적 합치에서는 정보 변화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으며, 자막 모드의 영향에서는 문장부호 사용, 더빙모드의 영향에서는 조사 생략과 음성학적 동시성이 유효적으로 나타났다.

제4장 결 론

본고에서는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자막과 더빙이라는 제시 방식에 따라 번역된 결과가 다른 양상에 초점을 두고 영상번역에서 가창성이 노래 번역

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하였고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했다. <겨울왕국>에 수록된 노래 가사를 대상으로 더빙과 자막의 두 목표 텍스트를 비교하여 번역 전략상의 차이점을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겨울왕국>의 각 범주별 분석 결과, 운율적 합치에 기여하는 음절수의 경우 자막(121%, 원곡: 100% 기준)보다 더빙(103%)이 원곡의 음절수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강세의 경우에도 자막(44%)에 비해 더빙(84%)에서 발현 개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대사를 중심으로 한 기존 영상번역 연구에서는 자막은 축소, 더빙은 확대 위주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논의(박윤철, 2007, 2008; 정재영, 2008; 이은숙, 2012; 이주은, 2014c)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는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에서는 오히려 더빙에서 음절수 등 텍스트 길이 측면에서 축소되고 자막에서는 확대되어 기존 연구와 상반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적 합치의 경우 운율적 합치와 마찬가지로 각운과 병렬구조 모두 더빙(각 56%, 75%)에서 발현 개수가 높았다. 의미적 합치의 경우, 자막과 더빙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자막은 정보 변화가 9%로 가장 낮은 반면, 더빙은 정보 변화가 39%로 높은 수치를 차지했다. 이것 역시 대사 중심의 기존 영상번역 연구와는 다른 결과인데, 기존 연구에서는 자막 번역에서 정보 손실이 유발되는 반면, 더빙 번역은 원작의 언어적 특성을 보존하는데 유리하다(Tveit, 2009: 85-96)고 보았다. 즉, 같은 영역의 연구라도 분석 대상에 따라 번역 시 우선순위, 제약 등이 달라져 번역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대상 텍스트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영상물에 속하기 때문에, 번역된 목표 텍스트는 자막과 더빙이라는 번역모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막에서는 원전을 관객이 들을 수 있다는 점과 문장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번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문장부호의 사용에 있어서는 앞서 살펴본 각운에서와 마찬가지로 ST에 없는 문장부호가 TT에서는 창조적으로 구현돼 부가적인 효과가 발휘된 경우도 있었다. 원전이 들리는 특징이 고려된 자막 수는 수치상으로는 낮았지만 관객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더빙에서는 구어적 특징이 반영되는 가공된 구술성과 동시성이 번역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가공된 구술성의 요소 중에서는 격조사가 생략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동시성에서는 동작학적 동시성보다는 입술 모양 등을 일치시키는 음성학적 동시성이 TT에서 더 많이 구현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는 영상번역의 관점에서 가창성을 중심으로 노래 번역을 살펴보기 위해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노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가창성의 요소들이 노래 번역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또 뮤지컬 애니메이션의 제시 방식인 자막과 더빙이 노래 번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정성적 방법으로 탐색해 보았다. 본고는 노래 가사 번역되는 현상을 고찰한 경험적 연구이기에, 자막모드에서는 운율적, 시적 합치가 다소 희생되는 대신 의미 재현에 초점에 맞춰졌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귀도 만족시킬 수 있는,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문체를 구사하라’고 주문한 최초의 번역이론가 Dolet, 의미-형식(forme-sens) 일원론과 리듬(rhythme)이론을 주장한 Meschonnic의 논의⁵⁾와 같이, 노래의 자막 번역에서도 의미 전달에만 치중하지 않고 본고에서 논의되었던 운율적, 시적 합치의 요소와 같은 형식적인 측면까지 고려하여 영상물과 함께 제시되는 원문의 청각적 요소를 부각해 준다면, 번역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선택이 될 것이다.

Works Cited

- 강지혜. 2006. 「자막번역과 언어 사용의 경제성」, 『텍스트언어학』 12: 23-53.
- 김건희·권재일. 2004. 「구어 조사의 특성 - 문법 표준화를 위한 계량적 분석」, 『한말연구』 15: 1-22.
- 김미형. 2004.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15: 23-73.
- 박윤철. 2007. 「영화자막에서 시각기호에 의한 축소번역」, 『번역학 연구』 8(1): 125-149.
- _____. 2008. 「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 『번역학 연구』 9(4): 171-194.
- 박찬순. 2005. 『그때 번역이 내게로 왔다: 영상 번역, 소통의 미학』, 파주: 한울.
- 이은숙. 2012. 「자막번역의 가독성 전략: 축약과 정보 변화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4(2), 153-171.
- 이주은. 2014c. 「확대 전략을 중심으로 본 더빙 번역」, 『통번역교육연구』 12(3): 129-153.
- 정구웅. 2012. 『자막번역과 구술성의 재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영. 2008. 『자막과 더빙 번역 비교 연구 -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숙명여

5) 정구웅(2012: 15-16)에서 재인용.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은. 2014. 「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 『번역학 연구』 15(2): 205-224.
- Baños-Piñero, Rocío & Chaume, Frederic. 2009. 'Prefabricated Orality: A Challenge in Audiovisual Translation', *Intraline. Online translation journal* 6, Available at http://www.intraline.org/specials/article/Prefabricated_Orality (retrieved: July 7, 2015)
- Chaume, Frederic. 2012. *Audiovisual Translation: Dubbing*, Manchester, UK & Kinderhook, USA: St. Jerome Publishing.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 John Benjamins.
- Díaz-Cintas, Jorge & Remael, Aline.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UK & Kinderhook, USA: St. Jerome Publishing.
- Franzon, Johan. 2008. 'Choices in Song Translation Singability in Print, Subtitles and Sung Performance', *The Translator*, 14(2): 373-379.
- Karamitroglou, Fotios. 1998. 'A Proposed Set of Subtitling Standard in Europe', *Translation Journal*, 2(2): 6.
- Low, Peter. 2003. 'Singable Translation of Songs',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1(2): 87-103.
- . 2005. 'The Pentathlon Approach to Translation Songs', In Górlée, Dinda Liesbeth. (eds.) *Song and Significance: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 Amsterdam & New York: Rodopi. 185-212.
- Tveit, Jan-Emil. 2009. 'Dubbing versus Subtitling: Old Battleground Revisited', In Díaz-Cintas, Jorge & Anderman, Gunilla. (eds.) *Audiovisual Translation: Language Transfer on Screen*, Hampshire & New York: Palgrave Macmillan, 85-96.

■ 영상자료

겨울왕국 (Frozen), DVD (2014), 월트디즈니

Abstract

The Effect of Singability on Song Translation in Audiovisual Translation: Focusing on the Movie *Frozen*

Kim, Sehyo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ncept of 'singability' on song translation in animated musical '*Frozen*', drawing on the features of subtitling and dubbing. To attain this goal, section 2 introduces Franzon's three layers of singability—prosodic, poetic, and semantic-reflective match, and then the features of subtitling and dubbing. In section 3, this study compares among English subtitled ST, Korean subtitled TT (TS), and Korean dubbed TT (TD) of the movie *Frozen*, and analyzes the texts based on the analysis framework drawn from the theories in section 2 and the preliminary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in prosodic match, the number of syllables and stress of the TD was similar to the ST, compared to that of the TS, which is contrary to the previous dialogue-centered AVT studies, where subtitling is regarded to be contracted, whereas, dubbing, to be expanded. In poetic match, the rhyme and syntactic parallelism of the TD was similar to that of the ST, compared to that of the TS. In semantic-reflective match, however, the TS was closer to the ST, compared to the TD, particularly in terms of change of information. This result is quite contrary to the previous studies, where subtitling is more likely to lead to loss of information. In addition, the audible original soundtrack, use of punctuation marks, the prefabricated orality, and synchrony, which are found to have an influence in translating songs of animated musical, are required

to be considered when translating songs in the context of audiovisual translation.

Although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due to a limited number of analyzed texts, further research using a large corpus will make these findings more generalized, providing additional evidence in the study of song translation and audiovisual translation.

Key Words

Song translation, Audiovisual translation, Singability, Animated musical

2014학년도 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2명)	2015년 8월 28일	송 우 건	존 스타인벡 문학에 나타난 선악의식- 『분노의 포도』, 『진주』, 『에텐의 동 쪽』을 중심으로-	김 용 규
		배 주 용	영어 담화표지에 관한 연구-Well, Like, Indeed, I think의 기능과 사용을 중심으 로-	안 동 환
문학석사 (5명)	2015년 8월 28일	권 성 현	영어 선행사 불일치 생략의 수용성에 관 한 연구	이 상 도
		안 은 혜	영어 합성명사의 한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박 기 성
		이 선 현	치누아 아체베의 『무너져 내리다』에 대한 트랜스모던적 읽기	김 용 규
		임 영 아	Analyses of Ellipsis in English	이 상 도
		조 윤 실	대상 독자 기반 영어 수동문 번역 연구	박 기 성
문학사	2015년 8월 28일	16명	이지현, 김민욱, 김혜린, 박종서, 장혜선, 서민경, 김혜옥, 이소영, 전해진, 조성미, 김범철, 김한빈, 박혜연, 성유진, 이다운, 채한솔	

2015학년도 전기 학위취득자 명단

학위구분	수여연월	성명	논문제목	지도교수
문학박사 (1명)	2016년 2월 27일	주 보 현	원형이론기반의 영어색채어연구 : 빛과 사 물의 이중적 부호화	박 기 성
문학석사 (12명)	2016년 2월 27일	김 은 진	주제 구조의 영한 번역에 관한 연구	박 기 성
		김 세 현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 번역 전략 고찰 -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이 선 진
		정 현 미	영한 번역에서 나타나는 지시어 This/That 차이 연구	이 상 도
		양 재 원	한국인 학습자의 확대어(Amplifier) 습득 에 대한 연구	전 지 현
		박 미 영	영어학습자의 성격 유형에 따른 무례함에 대한 응대 화행 연구	전 지 현
		김 연 주	권력과 서법체제 - 한국 영상 영화 자막 번역 -	전 지 현
		김 은 아	발화 분석을 통한 한영 자막의 스팅 결 정 요인 연구 - 법정 영화 사례를 중심 으로 -	윤 화 영
		박 소 미	TV 예능 프로그램 자막번역 연구	김 용 규
		박 금 선	패션잡지번역에서의 외래어 차용에 관한 통시적 연구	정 병 언
		신 밝 음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에 나타난 타 자와 나의 관계	이 재 성
문학사	2016년 2월 27일	35명	미국인이라는 환상 - 필립 로스의 『미국 삼부작』 읽기	이 선 진
			양성일, 김가나, 박도영, 이시은, 권희연, 김은지, 배연, 신호정, 이지원, 이해운, 정소현, 정재원, 조정옥, 강민정, 권정민, 김민정, 민순정, 박근민, 박이레, 안도영, 우미레, 임정은, 장정화, 최소운, 최희진, 한민영, 다이룬, 박도경, 이강언, 이유진, 정아림, 조동민, 강용수, 오하나, 이정미	

2015학년도 영어영문학과 연보

분류	제목	기간
해외 연수	BK21 영상산업 번역전문인력 양성사업단 호주 연수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2015년 1월 15일 ~2015년 1월 31일
학술 행사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5년 2월 27일
	대학원 번역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4월 17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4월 24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4월 24일
	대학원 어학,문학,번역 봄산행	2015년 5월 15일
	대학원 영어학 하계세미나	2015년 7월 17일
	대학원 영문학 하계세미나	2015년 8월 27일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2015년 8월 28일
	대학원 영어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10월 23일
	대학원 영문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10월 30일
	대학원 번역학전공 논문 본발표	2015년 10월 30일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2016년 2월 27일
	대학원 신입생환영회 및 동계세미나	2016년 2월 27일

『효원영어영문학』 원고 기고 및 작성 요령

• 원고 기고

1. 마 감 일 : 매년 1월 10일
2. 내 용 : 영어학 및 영문학에 관한 논문, 번역, 또는 서평
3. 분 량 : A4용지로 15-20면 내외, 영문 논문은 500행 이내
4. 제출방법 : ‘아래아 한글’ 또는 ‘한글 97’에 담은 디스켓과 프린터 사본 1부
5. 제출자격 :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박사과정 및 수료자
박사학위 취득자, 시간강사, 교수
6. 제 출 처 :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63번길 2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우편번호 46241)
『효원영어영문학』 편집위원(학과사무실 전화 510-1510)

• 원고 작성법

1. 논문은 제목부터 우리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문에 한자와 영문을 쓰지 않기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로 처리한다.
3. 고유명사는 우리말로 표기하되, 처음 나올 때 괄호 속에 영문 표기를 제시한다. 인용문은 번역하되, 분리 인용의 경우 번역문 아래에 원문을 제시한다. 단, 영어학 논문에서 영어 구절이나 문장을 분석하는 경우, 해당구절이나 문장은 번역하지 않는다.
4. 그 밖의 규정은 미국 현대 어문협회(MLA)에서 발행한 *MLA Handbook for Writers for Research Papers*(1995년판)를 따른다. 국내서적이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각주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필자(또는 저자), 「논문제목」, 『책이름』, 편자, 출판사, 출판연도, 면수.
5.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을 함께 인용 문헌으로 처리하는 경우,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에 따라 열거한 다음, 국내 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열거한다.
6. 우리말 논문 뒤에는 20행 이내의 영문 요약을 붙인다. 영문으로 된 논문뒤

에는 A4 용지 1면 이내의 우리말 요약을 붙인다.

7. 영문 원고와 영문 요약은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교정을 받은 후 제출한다.
8. 원고 게재는 일정한 심의를 거쳐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효원영어영문학

제34호

2016년 2월 23일 인쇄

2016년 2월 26일 발행

발행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인쇄 만수출판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2동 401-1

Tel : (051) 513-4042, 2662

E-mail : mansu4042@korea.com

mansu4042@naver.com

(비매품)